



■ 정책보고서 2014-23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정기혜 · 김동우 · 김동영

【책임연구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동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	71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91
제2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현황	5· 2
제1절 총괄 현황	2
제2절 영국	3
제3절 일본	4
제3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3· 6
제1절 조사설계	5
제2절 2014년 조사계획	27
제3절 사전조사	4
제4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5· 7
제1절 조사 계획	7
제2절 조사 결과	8
제3절 세부 조사 결과	0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

제5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521
제1절 조사 계획	17
제2절 조사 결과	10
제3절 세부 조사 결과	1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
제6장 2013년,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771
제1절 조사대상자	10
제2절 조사결과	1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0
제1절 결론	207
제2절 정책제언	27
참고문헌	209
부록	211
부록 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112

표 목차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5
〈표 2〉 표본설계 기본원칙	5
〈표 3〉 조사실시 개요	6
〈표 4〉 조사 선호 방법	7
〈표 5〉 2013, 2014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8
〈표 6〉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9
〈표 7〉 2014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0... 1
〈표 1-1〉 표본설계 기본원칙	9... 1
〈표 1-2〉 맞춤형 조사방법	0... 2
〈표 1-3〉 조사설계 개요	1... 2
〈표 2-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7... 2
〈표 2-2〉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9... 2
〈표 2-3〉 영국 Tracker 조사 빈도	0... 3
〈표 2-4〉 영국 Tracker 조사 대상	0... 3
〈표 2-5〉 영국 Tracker 조사대상자 그룹	2... 3
〈표 2-6〉 영국 Tracker 조사항목	3... 3
〈표 2-7〉 식품안전모니터 구분	7... 4
〈표 2-8〉 조사표 세부내용	8... 4
〈표 3-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5... 6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7... 6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8... 6
〈표 3-4〉 식품패널 분포	9... 6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0... 7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1... 7
〈표 3-7〉 조사실시 개요	2... 7
〈표 3-8〉 설문지 구성	3... 7
〈표 3-9〉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4... 7
〈표 4-1〉 본조사 식품패널 구축 개요	7... 7
〈표 4-2〉 조사 선호 방법	8... 7
〈표 4-3〉 조사대상 식품패널 현황	9... 7

〈표 4-4〉	상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9	7
〈표 4-5〉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0	8
〈표 4-6〉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1	8
〈표 4-7〉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2	8
〈표 4-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2	8
〈표 4-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3	8
〈표 4-10〉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3	8
〈표 4-11〉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4	8
〈표 4-12〉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5	8
〈표 4-13〉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6	8
〈표 4-14〉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8
〈표 4-1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7	8
〈표 4-16〉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8	8
〈표 4-17〉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9	8
〈표 4-18〉	정보 구독 매체	9	8
〈표 4-19〉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0	9
〈표 4-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1	9
〈표 4-21〉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4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2	9
〈표 4-22〉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3	9
〈표 4-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4	9
〈표 4-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변수별 세부분석	5	9
〈표 4-25〉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	9
〈표 4-26〉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	9
〈표 4-27〉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8	9
〈표 4-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9	9
〈표 4-29〉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0	1
〈표 4-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1	1
〈표 4-31〉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2	1
〈표 4-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3	1
〈표 4-33〉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	1
〈표 4-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	1

〈표 4-35〉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6·0·1
〈표 4-36〉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7·0·1
〈표 4-37〉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8·0·1
〈표 4-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0·1
〈표 4-39〉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0·1·1
〈표 4-4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1·1·1
〈표 4-41〉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2·1·1
〈표 4-42〉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3·1·1
〈표 4-4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4·1·1
〈표 4-44〉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5·1·1
〈표 4-4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6·1·1
〈표 4-46〉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7·1·1
〈표 4-47〉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8·1·1
〈표 4-48〉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9·1·1
〈표 4-49〉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2·1
〈표 4-50〉	조사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1·2·1
〈표 4-5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2·2·1
〈표 5-1〉	하반기 조사 개요	7·2·1
〈표 5-2〉	조사 선호 방법	8·2·1
〈표 5-3〉	하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9·2·1
〈표 5-4〉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0·3·1
〈표 5-5〉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1·3·1
〈표 5-6〉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2·3·1
〈표 5-7〉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3·3·1
〈표 5-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3·3·1
〈표 5-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4·3·1
〈표 5-10〉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5·3·1
〈표 5-11〉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6·3·1
〈표 5-12〉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7·3·1
〈표 5-13〉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3·1
〈표 5-14〉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9·3·1

〈표 5-15〉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9·3·1
〈표 5-16〉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0·4·1
〈표 5-17〉 정보 구독 매체	141
〈표 5-18〉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1·4·1
〈표 5-1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2·4·1
〈표 5-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3·4·1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5·4·1
〈표 5-2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6·4·1
〈표 5-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변수별 세부분석	7·4·1
〈표 5-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8·4·1
〈표 5-25〉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4·1
〈표 5-26〉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0·5·1
〈표 5-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1·5·1
〈표 5-28〉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2·5·1
〈표 5-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3·5·1
〈표 5-30〉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4·5·1
〈표 5-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5·5·1
〈표 5-3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5·1
〈표 5-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5·1
〈표 5-34〉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8·5·1
〈표 5-35〉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9·5·1
〈표 5-36〉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0·6·1
〈표 5-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6·1
〈표 5-38〉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2·6·1
〈표 5-3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3·6·1
〈표 5-40〉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6·1
〈표 5-41〉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6·1
〈표 5-4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6·6·1
〈표 5-43〉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7·6·1
〈표 5-44〉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8·6·1
〈표 5-45〉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9·6·1

〈표 5-46〉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0·7· 1
〈표 5-47〉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7·· 1
〈표 5-48〉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1
〈표 5-49〉 조사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3··7·· 1
〈표 5-50〉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4·7· 1
〈표 6-1〉 2014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	9·7· 1
〈표 6-2〉 2014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0··8· 1
〈표 6-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1
〈표 6-4〉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8·· 1
〈표 6-5〉 2014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일치도 평가	3··8·· 1
〈표 6-6〉 2014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비교	4··8·· 1
〈표 6-7〉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5··8· 1
〈표 6-7〉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6··8·· 1
〈표 6-8〉 2014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7··8·· 1
〈표 6-9〉 2014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8··8·· 1
〈표 6-10〉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9··8· 1
〈표 6-11〉 2014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0··9· 1
〈표 6-12〉 2014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1··9· 1
〈표 6-13〉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9· 1
〈표 6-14〉 2014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3··9· 1
〈표 6-15〉 2014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4··9· 1
〈표 6-16〉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5··9· 1
〈표 6-17〉 2014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6··9· 1
〈표 6-18〉 2014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7··9· 1
〈표 6-19〉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8··9· 1
〈표 6-20〉 2014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9··9· 1
〈표 6-21〉 2014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수준 체감도 비교	0··0· 2
〈표 6-22〉 2014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2·0· 2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	2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4	2
[그림 2-1]	각 식품안전 이슈에 관한 우려 정도	8	3
[그림 2-2]	식품안전 이슈에 관한 우려 정도	9	3
[그림 2-3]	외식안전의 시계열적 변화	10	4
[그림 2-4]	업소 위생수준 판단 기준	1	4
[그림 2-5]	업소의 위생수준 판단 기준의 시계열적 변화	2	4
[그림 2-6]	지역별 위생제도 및 체계 인식률	2	4
[그림 2-7]	국가의 위생체계 및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3	4
[그림 2-8]	FHRS/FHIS의 스티커나 인증서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	4	4
[그림 2-9]	FSA 인지도의 시계열적 변화	4	4
[그림 2-10]	FSA가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분야	5	4
[그림 2-11]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6	4
[그림 2-12]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5	5
[그림 2-13]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 관점에서의 요소별 불안의 정도	6	5
[그림 2-14]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방사성 물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	7	5
[그림 2-15]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동일본 대지진 전후 식품 구입시 의사결정의 변화	8	5
[그림 2-1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육류 생식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	10	6
[그림 2-17]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지난 1년간 고기 생식에 대한 태도 변화	1	6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6	6
[그림 4-1]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1	8
[그림 4-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5	8
[그림 5-1]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1	3
[그림 5-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6	3

Title: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4

As one of the presidential agenda, study of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was made in the second half of 2013. From this year, to compare the consumer's perception from first and second half of year, bi-annual study was carried out. These findings will enable the time series analysis by year or half year. Also, analyzing consumer's perception of major countries and comparing the results will be possible. Therefore,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becoming emphasized. In this study, partial comparison between results from 2013 and 2014 were implement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the system for biannual survey of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to calculate the level of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4. Detail purposes are as follows; 1) Build up the survey system for statistical sampling; 2) Develop questionnaire for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3) Identify customized survey methodology for panels; 4) Implement pilot survey for reliability test on the questionnaire; 5) Investig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first and second half of 2014; 6) Calcul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2014; and 7) Suggest policies for research efficiency of next year survey.

The survey was largely made up of two parts; basic survey and supplement survey. In basic survey, overall food safety management level and five investigation areas, which are safety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overall safety of imported food; safety of eating out; safety of foo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and safety of communal food service were studied. In

supplement survey, public concerns about relative risk by category, factors affecting food safety, rooting out low-quality food, interest level about food safety policy and food related information. Overall Cronbach's alpha value appeared as 0.81 which was higher than last year, 0.71. Also each investigation area is also above 0.6, meaning reliable.

In the first study from first half of the year, total 970 people compl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s of food safety was 74.4% and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was 47.7% which was the lowest among five areas.

In the second study, total 974 people compl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s of food safety was 73.2%. The safety level of imported food was 51.5%, which was the lowest among five areas.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lternative social study of Statistics Korea(KOSTAT) and presidential agenda of current government. However, it has not approved for national statistics yet and composition of panel is not statistically perfected either. Therefore, appropriate plan for the study and panel would be needed.

* Key Words: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Panel survey,
Building up survey system, Sample design,
National statistic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중 하나로 2013년 하반기부터 조사되어온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2014년에는 상, 하반기로 나뉘어 2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이런 조사결과는 향후 연도별, 회차별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2014년 올해 조사결과도 부분적으로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음
- 그리고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연도별 비교도 가능해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의미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알수 있음
- 2014년 조사는 조사성공률 제고를 위해 1,000명의 조사대상 패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전화조사)을 파악하여 방법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4대 사회악에 포함되어 매년 7월과 12월에 보고, 언론 공개를 하고 있고, 특히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식품안전분야를 대신하는 등 그 중요성은 큼
- 하지만 국가통계 지정시 조건부로 승인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바, 우선 패널선정을 현재 이메일을 통한 모집방식에서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통계청의 모집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체해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조사예산을 증액하여 내실화된 부가조사를 실시, 분석해야 조사의 활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이런 시대적 요구 및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실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4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갖고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둘째, 설문지(Questionnaire) 수정 및 보완

셋째, 패널별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넷째, 설문지의 신뢰도 측정 등을 위한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다섯째,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 하반기 조사 실시

여섯째, 2014년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일곱째, 2015년 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2. 주요 연구결과

가. 조사설계

- <표 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내용이 제시되어있음. 2013년 조사에 참여했던 식품패널의 85% 정도가 2014년 식품패널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2013년에는 하반기 1회만 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표본설계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는데 조사대상단위는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패널의 표본추출단위(Sampling Unit)는 성, 연령, 지역이었음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1,200명	조사성공을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및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치에 의해 전국의 성인 남녀 36,690,307 명으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를 사용하였는데 40 대가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이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였음

□ 식품패널은 총 1,127명이 선정되었음

〈표 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다. 조사실시

- 사전조사와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표 3>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되었음
- 조사설계가 2013년과 동일하여 사전조사는 상반기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계산하니 전체 항목은 0.81로 2013년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이는 설문지의 순서와 형식을 수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30일~ 7월 2일
상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면접조사	6월 30일~ 7월 18일
하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12월 3일

라. 설문지 보완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13년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7개 조사영역(수입식품, 단체급식, 외식,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등)의 총 2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체감도 등 조사는 5점 척도의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여 개발되었음
- 2014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2013년과 동일하나 순서와 형식을 통계청 지침대로 수정하였음

마.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및 활용

- 2014년 조사에서는 조사실시전 조사대상자 개인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선호조사 방법으로는 통계청에서 최근 선호하고 있는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등 3가지 방법으로 한정하였는데 인터넷 조사가 전체의 73.6%로 월등히 선호하는 조사방법으로 선정되었음

〈표 4〉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127	1,127	—
전화조사	패널수	286	264	-22명
	비율	25.4	23.4	-2.0%
인터넷조사	패널수	832	829	-3명
	비율	73.8	73.6	-0.3%
면접조사	패널수	9	10	+1명
	비율	0.8	0.9	+0.1%
패널탈락	패널수	0	24	+24명
	비율	0.0	2.1	+2.1%

바. 주요 조사결과

-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의 유지율은 95%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2014년 패널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5>에는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와 각 주요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음

- 2014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의 평균 결과는 73.8%로 작년의 72.2%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였음. 회차별로 보면 2014년 상반기에는 보통 이상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74.4%로 나타나 작년보다 2% 포인트 상승하였고 하반기 는 73.2%로 낮아졌으나 2013년 결과보다는 1.0% 포인트 상승하였음

〈표 5〉 2013, 2014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1차	928	1.0	17.2	54.0	25.8	2.1	72.2
	2차 (상반기)	970	1.1	24.1	49.2	24.4	1.1	74.4
	3차 (하반기)	974	0.4	24.3	48.5	25.0	1.9	73.2
	2·3차 평균	—	0.8	24.2	48.9	24.7	1.5	73.8

- 세부영역별로 보면 2014년 하반기에는 단체급식 안전체감도가 81.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여전히 제조·유통식품 안전이 78.8%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은 51.6%로 안전체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게 평가된 세부영역은 수입식품 안전으로 하반기에 51.5%로 2013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 하반기는 학교주변판매식품 안전체감도 보다는 0.1%포인트가 낮은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세부영역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조사결과는 2013년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 60대 이상, 영남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공무원, 중졸 이하 대상층은 지속적인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음
-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중졸 이하에서 고졸 이상보다 안전체감도가 낮은 것은 작년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올해 결과에서의 특이점은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40대를 기준으로 그 아래 연령층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40대 이상 연령층과 다른 결과를 보였음

〈표 6〉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

구분	회차	조사 대상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4	8.4	34.2	45.9	11.1	43.0
	2차	970	0.3	10.6	36.8	46.0	6.3	47.7
	3차	974	0.7	12.9	38.0	42.7	5.7	51.6
	2, 3차 평균	—	0.5	11.8	37.4	44.4	6.0	49.7
수입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9	9.7	42.4	39.3	7.8	52.9
	2차	970	0.3	10.7	41.0	42.1	5.9	52.1
	3차	974	0.4	12.3	38.8	40.6	7.9	51.5
	2, 3차 평균	—	0.4	11.5	39.9	41.4	6.9	51.8
외식 안전체감도	1차	928	0.4	16.1	58.0	23.0	2.6	74.5
	2차	970	0.5	14.4	54.9	28.0	2.2	69.8
	3차	974	0.5	16.4	57.9	23.6	1.5	74.9
	2, 3차 평균	—	0.5	15.4	56.4	25.8	1.9	72.4
제조·유통 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9	24.6	54.0	19.2	1.4	79.4
	2차	970	0.3	19.8	57.4	21.0	1.4	77.5
	3차	974	0.6	21.9	56.3	19.9	1.3	78.8
	2, 3차 평균	—	0.5	20.9	56.9	20.5	1.4	78.2
단체급식 안전체감도	1차	928	1.2	25.8	46.4	24.3	2.4	73.4
	2차	970	1.8	31.8	42.1	21.8	2.5	75.7
	3차	974	3.3	32.8	45.1	16.0	2.7	81.3
	2, 3차 평균	—	2.6	32.3	43.6	18.9	2.6	78.5

* 1차: 2013년 11월

2차: 2014년 6월~7월

3차: 2014년 11월~12월

- 세부분석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권역의 6가지 변수별로 수행되었으며 소득별 차이를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3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V자 형태의 분포가 나타났음
-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습득은 방송매체가 강세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방송매체 활용률이 높았고, 어린 연령층에서는 본인의 경험과 가족의 권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학생층의 불량식품 정책 인지도가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지만 정책홍보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홍보 강화 대상으로 나타났음

〈표 7〉 2014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2014년 상·하반기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 체감도 변화	상승한 그룹	하락한 그룹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하락	—	영남권 200만원대 소득 사무직 직종	860명
학교주변 판매식품	상승	여성 500만원 이상 대출 이상 전업주부	—	860명
수입식품	하락	20대	40대 사무직	860명
외식	상승	여성 40대 50대 대출 이상 공무원/전문직 사무관리직 수도권	—	860명
제조·유통 식품	상승	중부권 전업주부	기능직	860명
단체급식	상승	50대 500만원 이상 대출 이상 사무관리직	—	505명

3. 정책제언

- 통계승인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식품패널 선정이 현재 이메일 수집 및 선정에서 통계청에서 통계학적으로 구축해 놓은 모집단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재 1,000명의 패널은 패널 수가 적어 16개 시·도 지역별로 분석을 못하고 4대 권역별로 묶어 분석해야 하므로 향후 패널 수를 늘려야 할 것임
- 현재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있는 조사내용중 부가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함. 즉, 기본조사는 매년 동일하게 실시하여 연도별 비교를 하고 부가조사는 현안에 따른 조사항목 증가와 다양한 비교, 분석이 필요함 다만 조사내용이 많아 질 때 조사비용 증액은 선행되어야 할 조치임

* 주요용어: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설계, 표본설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는 2년차 조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식품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국정과제로 매년 추진되고 있고,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식품분야가 독립을 하면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로 대체됨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표본설계에 문제가 있어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4년 하반기 조사는 10월에 발생한 제과업체의 식품사고로 소비자 인식조사에 영향을 직접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식약처의 정책적 홍보 노력과 기본적으로 제조유통업에 대한 소비자의 우호적인 인식으로 식품사고는 조사결과에 큰 영향은 안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사먹은 과자류 및 시리얼류에 식중독균, 대장균군이 오염된 사고로 자가품질검사의 허점이 노출된 사고이며, 향후 동종의 사고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품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 조사체계에 대한 통계학적 점검과 특히 패널 1,000명을 선정하는 방법과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조사비용의 증액으로 부가조사 내용을 매년 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14년은 2013년 하반기 1회 조사한 것과 달리 상하반기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3회의 조사자료가 축적되면서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는 물론 세부영역별 체감도 증감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지난 1년간의 분야별 정책 노력을 측정할 수 있었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은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의 참고국인 영국과 일본의 관련 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 정리되어있고, 제3장은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결과가 분석되어있다. 제4장은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결과가 분석되어있으며, 제5장은 2014년 하반기 조사결과가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2013, 2014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는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3.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3년 하반기 1회차 조사부터 시작되어 2014년 상하반기 등 2회 조사를 실시한 식품안전체감도의 조사설계, 조사실시, 조사결과의 분석 등으로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함이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계학적인 표본추출 등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 둘째, 설문지(Questionnaire)보완 및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셋째,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소비자 조사 현황 파악
- 넷째,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 다섯째,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 여섯째, 2013년과 2014년간 시계열 분석
- 일곱째, 정형화된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확정 등 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및 분석

- 1) 상하반기 년 2회 조사에 따른 조사설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2)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기존 문헌 등이 고찰되었다.
- 3) 영국, 일본의 소비자 인식조사 현황이 파악되었다.
- 4) 최근 식품안전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자료 등이 분석되었다.

2. 설문지(Questionnaire) 보완

- 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 조사체계를 변경하였다.
- 2) 조사내용은 2013년과 동일하나 순서와 형식을 달리 하였다.
- 3)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항목과 해마다 내용을 달리하여 조사하는 부가조사항목은 2013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4) 영국, 일본의 소비자 인식조사의 설문지가 참고로 활용되었다.

3. 조사설계

- 1) 시계열 분석 및 조사결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를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 2) 상하반기 2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식품안전체감도를 국가통계화하기 위한 표본틀을 검토하였다.
- 4) 조사마다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틀로 설계되었다.

4. 표본 설계

- 1) 모집단은 2012년 통계청이 전국의 성인을 추계한 인구추계치를 근간으로 표본이 선정되었다.
- 2) 2012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바탕으로 확률층화추출법에 의해 1,000명의

패널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 3) 표본추출 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하였다.
- 4) 조사 성공률을 감안하여 총 1,300명의 패널이 추출되었다.

5.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1) 평가표의 통계학적 검증 및 수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 2) Cronbach's alpha 값(0~1)에 의해 전체 설문지, 설문항목별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하인 설문항목을 제외시키는 등 보완하였다.
- 3) 2013년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6. 상하반기조사 실시

- 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상하반기 조사가 실시되었다.
- 2) 조사대상자는 2013년에 식약처가 구축한 식품패널이었다.
- 3) 최종 조사대상자는 식품패널 1,000명이 목표치였다.

7.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 1) 최종 확정된 설문지에 의한 2014년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였다.
- 2) 총괄 및 세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3) 2013년 하반기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친 조사결과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8. 매년 효율적 조사를 위한 정책제언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개진하였다.
- 2) 식품안전체감도를 식약처 대표 국가통계화 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다.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방법

가. 조사 설계

- 1)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결과 발표 일자 등을 설계하였다.
- 2) 통계학적 검증방법도 제시되었다.

나. 표본설계 및 추출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즉,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이며, 패널은 1,200명을 구축하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하였다.

〈표 1-1〉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 표본 추출의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 3)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었고,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를 포함시켰다.

다. 설문지 보완

- 1) 설문지 내용은 2013년에 개발된 것과 대동소이하나 순서 및 형식이 보완되었다.
- 2) 설문지는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세부영역별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 3) 설문지는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 산출을 위해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라.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 1) 2013년은 주로 전화조사에 의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2) 2014년은 1,000명의 패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을 파악하였다.
 - 조사방법은 통계청에서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및 조사실시로 조사성공율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표 1-2〉 맞춤형 조사방법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127	1,127	-
전화조사	패널수	286	264	-22명
	비율	25.4	23.4	-2.0%
인터넷조사	패널수	832	829	-3명
	비율	73.8	73.6	-0.3%
면접조사	패널수	9	10	+1명
	비율	0.8	0.9	+0.1%
패널탈락	패널수	0	24	+24명
	비율	0.0	2.1	+2.1%

마. 사전조사 실시

- 1) 사전조사는 기 개발된 평가도구 수정, 보완 및 본조사시 유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2) 조사대상자는 200명이었으나 2013년과는 달리 상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되었다.
- 3)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이 실시되었는데 Cronbach's α -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4) 조사 기간은 2014년 6월 3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표 1-3〉 조사설계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30일~ 7월 2일
상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면접조사	6월 30일~ 7월 18일
하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12월 3일

바. 상·하반기 조사 실시

- 1) 2014년 상하반기 조사 실시 목적은 2014년 상하반기 각각 식품안전체감도(전체, 수입식품, 단체급식 및 외식, 제조가공식품, 학교앞 판매식품 안전)를 산출함에 있었다.
- 2) 조사대상은 구축된 1,200명의 식품패널이었다.
- 3) 평가도구는 2013년에 개발된 설문지로 리커트 5단계 척도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사전조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검증이 된 설문지였다.
- 4)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면접조

사로 각각 조사되었다.

- 5) 조사기간은 상반기 경우에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8일, 하반기는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 첫날 오전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회의 개최

- 1) 연구방향성 결정 및 연구 추진 과정상 Brain Storming을 위한 담당부처, 연구진, 해당 업종 단체 대표자간 정례적인 정책간담회의가 개최되었다.
- 2) 착수보고회, 평가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통계분석

- 1)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4.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하였다.
- 2) 조사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3) 성, 연령, 지역,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등의 독립변수별 전체 식품안전체감도와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를 분석하였다.

나.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조사의 신뢰성 분석

- 1)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에 의하여 인식도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표 구성시 조사항목의 스케일은 Cronbach's alpha 계수 값 산출을 위하여 리커트 5단계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2)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았다.

$$\alpha = \frac{N}{(N-1)} \left(1 - \frac{\sum \sigma_i^2}{\sigma^2_t} \right)$$

N =문항 수, σ_t^2 =총분산 σ_i^2 =각 문항의 분산

3) 계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설문문항이 가지는 신뢰도의 하한값이라 볼 수 있었다. 조사 전체의 신뢰도 및 각 문항별 신뢰도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 수정 및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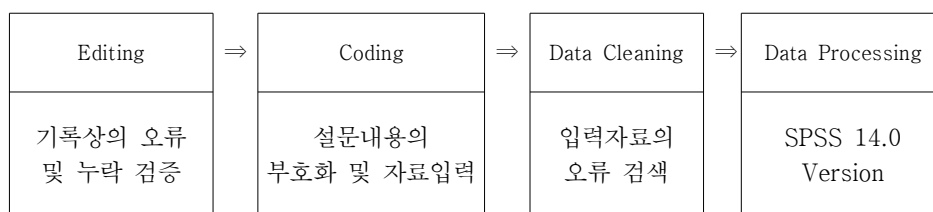
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1)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귀무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통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 2)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p value는 주로 95%내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라. 자료 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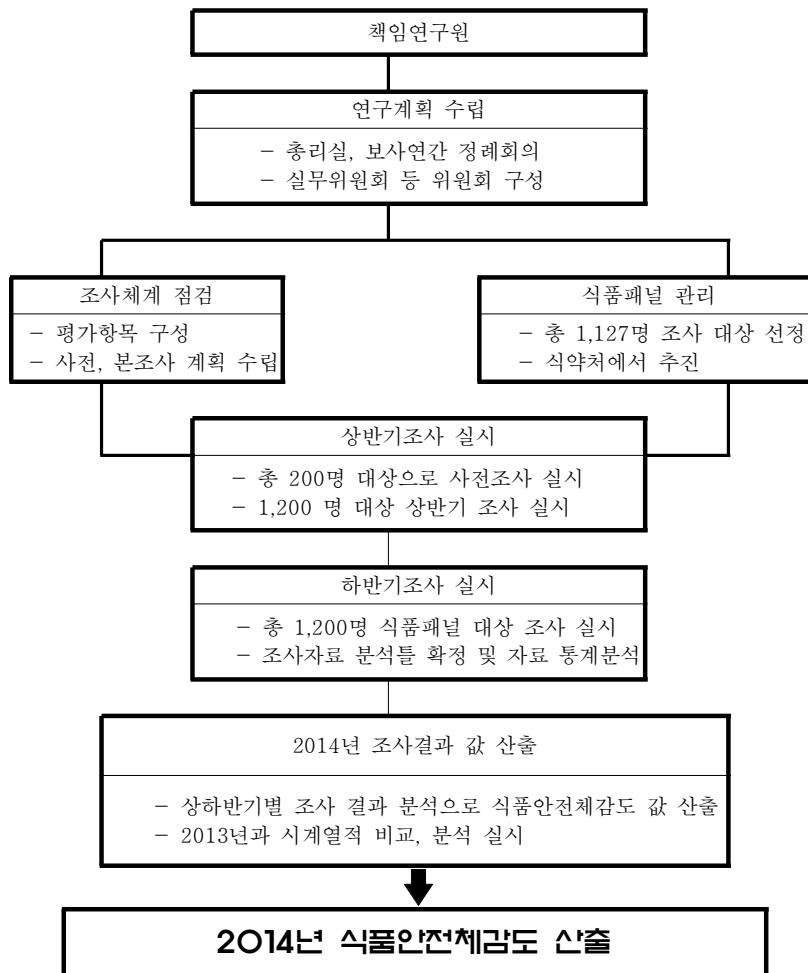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조사, 상하반기를 통해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였으며 2013년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2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현황

제1절 총괄 현황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2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 현황 <

제1절 총괄 현황

<표 2-1>에는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표 2-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국가	조사명	조사목적 및 항목	조사척도						조사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우리나라	'13,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 수준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③④⑤	72.2%
EU	'10 EURO BARO-METER	식품섭취로 인한 건강의 위험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음	상당 수준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잘 모름		③④	49.0%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크게 우려	다소 우려	별로 우려 안함	전혀 우려 안함	잘 모름		③④	21.0%
미국	'11 Deloitte 소비자 의식조사	5년 전에 비해 더 불안한지 여부	예	아니오					②	27.0%
	'14 Food and Health survey	미국 식품공급의 안전에 대한 신뢰	매우 신뢰	다소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잘 모름		①②	78.0%
일본	'13 식품안전 모니터	여러 위험요인별 불안정도	매우 불안함	어느 정도 불안함	어느 쪽도 아님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③④⑤	33.1%
영국	'14 Public attitudes tracker	FSA(영국 식품청) 및 외식 등 분야별 신뢰도	매우 신뢰	신뢰	어느 쪽도 아님	불신	매우 불신		①②	6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4.

<표 2-1>에 제시된 식품안전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의 개요를 보면 각 국별로 질문의 내용과 조사척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가별 간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조사는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잘 모르겠음’이 추가된 6개 척도의 형태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국의 경우 중간단계의 척도인 ‘보통’ 또는 ‘어느 쪽도 아님’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EU나 미국,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선택항목을 포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과 주요기관에서는 국민의 식품관련 위험 인식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과 영국의 경우 그 역사가 10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 외에도 EU의 경우 5년 주기로 Euro Barometer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조사가 이루어져 내년(2015년)에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Euro Barometer는 EU에 소속된 27개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대상자 26,691명을 대면 방식의 형태로 2010년 6월에 수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의 주도로 Food and Health survey라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8분 가량이 소요되는 인터넷 방식의 조사이다. 18세부터 80세까지의 미국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표본은 연령, 교육수준, 인종, 성별, 지역으로 층화하여 선정하고 있다.

제2절 영국

1. 식품 소비자 인식조사(Tracker) 개요

영국 식품안전국(Food Standards Agency, FSA)은 연 2회의 소비자 면접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행된 금번 8차 조사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2,483명의 성인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2-2>에는 영국 Tracker 조사의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표 2-2〉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FSA의 식품이슈 모니터
시작년도	2001
현재	2014 wave 8
주기	1년 2회(biannual)
주관기관	Food Standards Agency
조사방식	면접조사
조사대상	영국 성인 (TNS 소비자)
표본수	2,483명(2014년 기준) 매해 약 2000명
조사방법	단순무작위-지역표본 (random-location sampling)
질문수	10개

이 조사는 대면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본선정은 단순무작위-지역 표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조사 지역구는 2001 센서스 데이터와 우편코드를 사용하여, 143개 지역구가 선택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본 조사는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1년 시작 당시 연 4회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6개의 문항이 개발되어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봄에 설문문항이 재개발되고, 그 이후 연 2회조사로 변경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3개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5차 조사에서는 재접촉 문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문항으로 고정되었다.

〈표 2-3〉 영국 Tracker 조사 빈도

조사 연도	조사 빈도	연간 조사 회수
2001년 4월 ~ 2001년 12월	3개월	연 4회
2001년 10월 ~ 2002년 9월	1개월	연 12회
2002년 12월 ~ 2010년 3월	3개월	연 4회
2010년 11월 ~ 현재	6개월	연 2회

조사대상자는 단순무작위 지역표본 추출법을 통하여 표집되었다. 2001년부터 2006년 6월 조사까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영국인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06년 9월 조사부터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영국 전역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하였다.

〈표 2-4〉 영국 Tracker 조사 대상

조사 연도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지역
2001년 4월~2006년 6월	16세 이상 영국인	면접 조사	단순무작위-지역표본 (random-location sampling)	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제외 지역)
2006년 9월~현재				United Kingdom (영국 전 지역)

2. 조사 방법

가. 표본설계법(sample design) 및 표본 수(sample size)

이 조사에서는 TNS에 의뢰하여 단순무작위-지역표본추출법(random-location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에서 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¹⁾이 표

1) 조사대상자가 특성 할당에 해당되는 제약 내에서 추출 (within the constraints that particular quotas

본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그 결과가 일반 모집단의 행동이나 의견과 다를 수 있어 결과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표본추출법(probability sampling)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조사비용이나 조사기간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Tracker 조사에서는 1회 조사당 2,000명의 조사대상자가 적정 표본수로 보고 있으며 조사 간 표본의 변동률은 약 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조사 방식(Mode)

영국 Tracker의 조사방식은 면접조사방법이다. 전화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한 바가 있으나, 전화조사의 경우 5점 척도로 질문하는 경우 5개 등급을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화조사의 경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조사방법의 전환은 시계열 조사로서 결과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현재 영국 내에서 전화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조사방식이 추후에도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다. 조사대상

<표 2-5>에는 조사결과에서 시용된 조사대상자들의 직업그룹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have to be met by interviewers)

〈표 2-5〉 영국 Tracker 조사대상자 그룹

직업그룹	분류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3% - 전문직, 기업경영인, 고위공무원 등 - 예전에 A등급이었던 은퇴자 및 부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18% - 대기업의 중간관리자(middle management executive) - 중소기업의 경영인 - 예전에 B등급이었던 은퇴자 및 부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28% - 중소기업의 중간관리인 - 이 그룹에 속하는 직업들은 책임감과 교육수준이 매우 다양함 - 예전에 C1등급이었던 은퇴자 및 부인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22% - 숙련된 기술 노동자 등 (All skilled manual workers, and those manual workers with responsibility for other people) - 연금을 받으면서 예전에 C2등급이었던 은퇴자 및 부인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18% - 노동자 (All semi skilled and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apprentices and trainees to skilled workers) - 연금을 받으면서 예전에 D등급이었던 은퇴자 및 부인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의 약 11% - 질병, 실업, 많은 나이 등의 이유로 전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실직한지 6개월 이상이 된 사람 - 고정수입이 없는 노동자

* Market Research Society 2011의 분류를 이용하여 그룹 분류임.

조사대상 그룹은 Market Research Society(2011)자료를 활용하여 분류되었으며 총 6개 그룹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A, B, C1, C2, D, E로 나누어 속하는 계층, 비율 등이 결정되어있다.

라. 조사 항목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항목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조사항목에는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식품이슈, 외식이나 식품구매시 식품의 위생 기준에 대한 걱정정도 및 고려 여부, 식품점이나 외식업체 위생기준 판단 방식, 영국 식품 관련 정부기관의 인지도, FSA의 신뢰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표 2-6〉 영국 Tracker 조사항목

구분	질문내용
Q1	<p>A: 식품이슈 중 귀하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주관식)</p> <p>B: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식중독 - GM 식품 - 광우병(BSE) - 가축 사료 - 농약 사용 -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제 사용 - 식품의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외식의 식품 위생 - 가정에서의 식품 위생 - 해당사항 없음 <p>C: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소금 함량 - 식품의 설탕 함량 - 식품의 지방 함량 - 식품 포화지방 함량 - 학교급식을 포함한 어린이 관련 식품들 - 해당사항 없음 <p>D: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 - 식품가격 - 식품쓰레기

구분	질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 마일 (식품의 이동거리) - 해당사항 없음
Q2	<p>A: 귀하는 영국의 식당, 선술집(pubs), 카페 및 포장전문점(takeaways)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걱정한다 - 어느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것도 걱정하는 것 도 아니다 - 어느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p>B: 귀하는 영국의 상점과 슈퍼마켓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걱정한다 - 어느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것도 걱정하는것도 아니다 - 어느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Q3	<p>A: 귀하가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선술집, 포장전문점 등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러한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고려하려고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 : 항상 - 그렇다 : 간헐적으로 - 그렇지 않다 <p>B: 귀하는 식품을 구매업체나 외식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영국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위생기준을 고려하는 사람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문 - 평판 - 종업원의 외모 - 상점들의 일반적인 외관 - 위생표시 간판 (Hygiene sticker) - 위생 증명서 (Hygiene certificate) - 홈페이지 - 다른 방법 (자세히 작성)

구분	질문내용
Q4	<p>다음 중 들어본 적이 있는 기관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Health - Department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 (DHSSPS) - Public Health Agency (PHA) - Scottish Government Health Improvement Directorate - Department for Public Health and Health Professions - Food Standards Agency - Safefood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 Department for Rural Affairs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ARD) - The Environment Agency -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EPA) - Scottish Government Rural Directorate -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 Audit Scotland - Health & Safety Executive - Office of Fair Trading -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BDA)
Q5	<p>A: 귀하는 FSA가 어떠한 식품이슈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국 FSA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 (주관식)</p> <p>B: 귀하는 FSA가 다음 보기 중 어떠한 식품이슈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국 FSA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하는 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여부 보장 - 가정내에서의 식품안전 증진 -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식품의 지속성 보장(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 영양정보표시(신호등 표시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원산지 표시제 - 기타(자세히 작성)

구분	질문내용
Q6	<p>A: 귀하는 FSA가 수행하는 업무를 얼마나 신뢰 또는 불신하십니까?</p> <p>즉, 상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가정내에서의 식품안전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믿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신뢰한다 - 신뢰한다 - 신뢰하는것도 신뢰하지 않는것도 아니다 - 불신한다 - 매우 불신한다
Q7	<p>귀하가 식품을 구매하는 상점이나 외식을 하는 장소에 대한 위생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책 (initiatives or scheme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Q8	<p>그렇다면 그 정책은 무엇입니까?(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Hygiene Information Scheme - Food Hygiene Rating Scheme - Scores on the Doors - "H" for Hygiene Award Scheme - Food Hygiene Assessment Scheme - Food Hygiene Award - Food Hygiene Inspection Rating Scheme - Food Hygiene Star Rating Scheme - Food Safety Star Rating Scheme - Ratemyplace - Safe2eat - Smilesafe - Other
Q9	<p>다음 보기의 정책들은 귀하가 식품을 구매하거나 외식하는 장소에서 위생기준에 대해 알려주는 정책이다. 이중 듣거나 본적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od Hygiene Information Scheme - Food Hygiene Rating Scheme - Scores on the Doors - None of these

구분	질문내용
	<p>다음 표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만 응답)</p> <div data-bbox="466 506 732 669">  </div> <div data-bbox="767 479 1106 900">  </div> <p>- 있다 - 없다</p> <p>Q10</p> <p>다음 표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코틀랜드만 응답)</p> <div data-bbox="443 1099 727 1344">  </div> <div data-bbox="782 1090 1133 1523">  </div> <p>- 있다 - 없다</p>

3. 2014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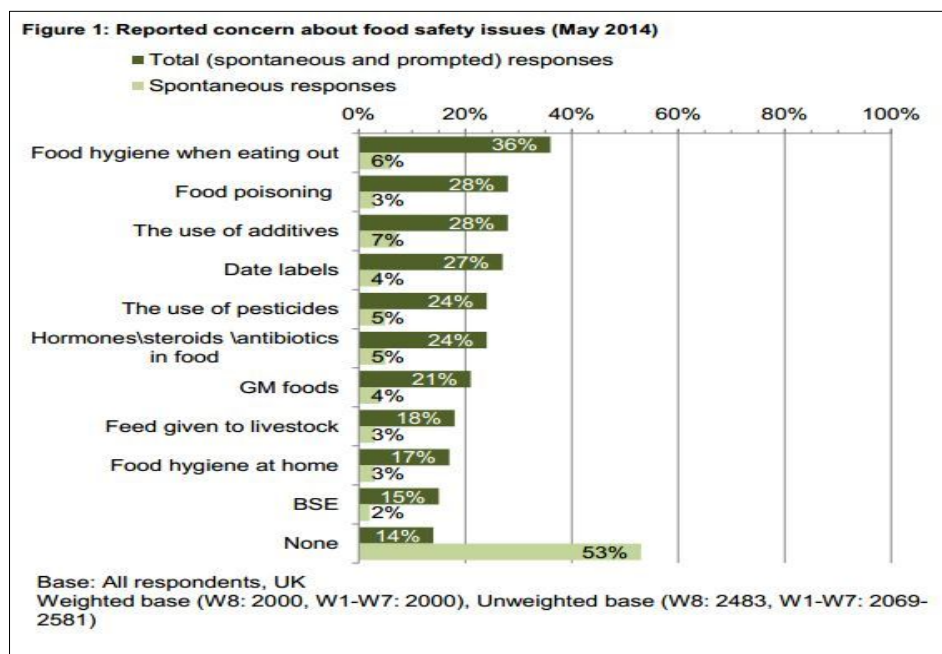
가. 현안에 관한 우려

[그림 2-1]에는 2014년 조사결과로 각 식품안전 이슈에 관한 응답자의 우려 정도가 나타나있다.

조사대상자가 관심 있는 식품관련 이슈 세 가지는 외식시의 식품위생(36%), 식중독(28%), 식품첨가물 사용(28%)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식품내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제외한 모든 개별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좀 더 식품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5세 연령의 응답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식품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16~25세 연령의 응답자 그룹은 관심 있는 식품이슈가 없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 각 식품안전 이슈에 관한 우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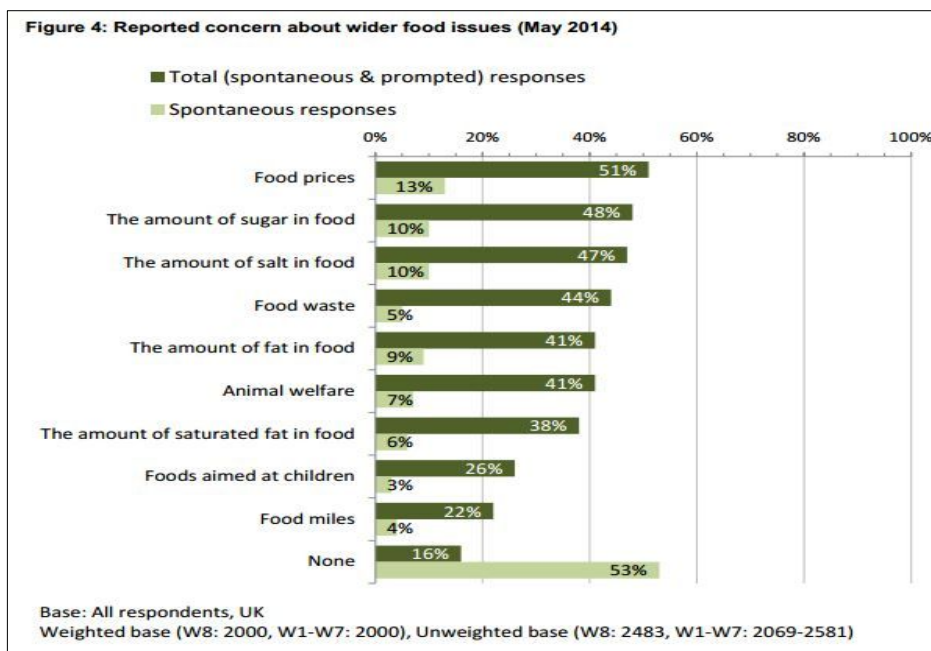


나. 관심 현안

[그림 2-2]에는 광의의 식품관련 이슈 문항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문항 Q1의 c와 d).

식품 가격이 5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식품내 설탕 양이 48%, 식품내 소금의 양이 47% 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문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연령대 역시 50~65세 응답자가 관심이 가장 높았다.

[그림 2-2] 식품안전 이슈에 관한 우려 정도



다. 외식안전

[그림 2-3]에는 외식시 고려하는 사항이 연도별로 분석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49%는 레스토랑, 술집, 카페 및 테이크아웃 등의 장소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이 수준은 조사마다 변동을 거듭하였다. 상점과 슈퍼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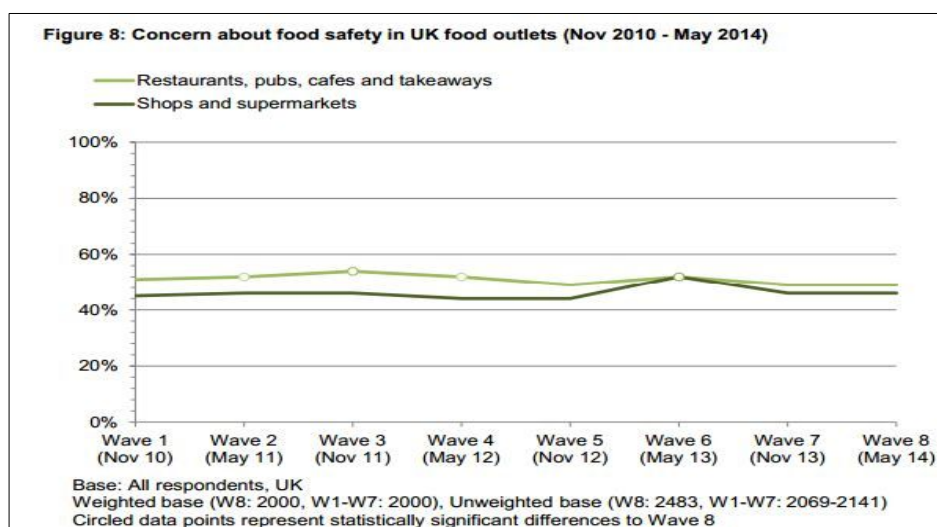
등에서의 식품 안전을 고려한다는 응답자는 46%였으며 이 수준은 6번째 조사(2013년 5월)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하였다.

레스토랑 등에서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여성의 52%, 남성의 45%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여성의 49%, 남성의 43%가 안전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수민족의 경우 레스토랑 등의 식품안전을 60%, 상점 등의 식품안전을 62%가 고려한 반면 백인의 경우 각 47%, 44%만 고려하였다.

FSA의 전략목표중 하나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먹는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생 기준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림 2-3] 외식안전의 시계열적 변화



라. 외식업소 위생수준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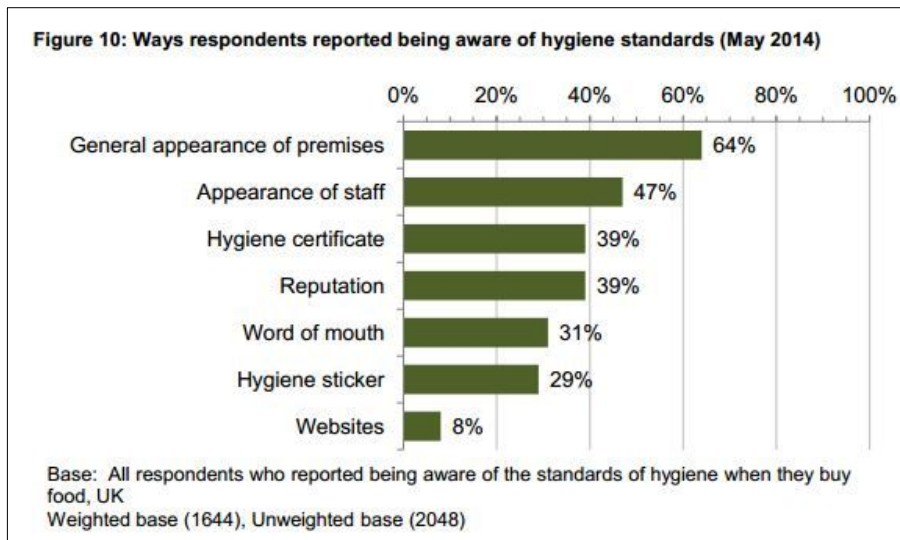
[그림 2-4]에는 업소 선정시 위생기준의 판단기준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82%는 외식을 하거나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의 위생 기준을 인식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위생 기준을 인식하는 방법은 매장의 일반적인 모습(64%)과 종업원의 모습(47%)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 혹은 식품구입시 위생 수준을 판단할 때 응답자의 39%는 위생 증명서, 29%는 위생 스티커를 보고 위생 기준을 판단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4] 업소 위생수준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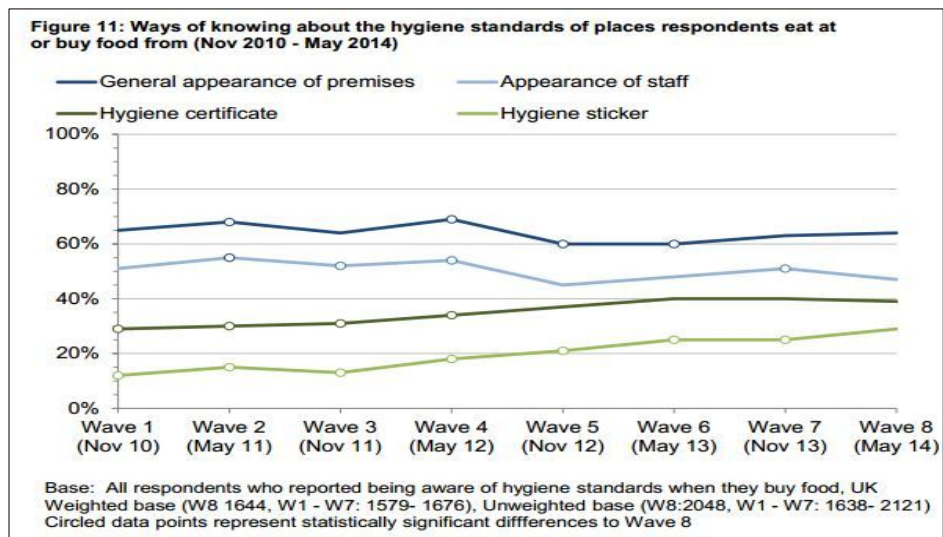
마. 연도별 외식업소 위생수준 판단 기준

[그림 2-5]에는 외식업소 선정시 위생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최근 조사에서 위생 증명서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한 상태를 보인 반면, 위생 스티커에 대한 응답이 지난 조사들에 비해 4~17% 높았다.

여성(85%)이 남성(79%)보다 높았으며, 아이가 있는 가정(85%)의 경우 아이가 없는 가정(81%)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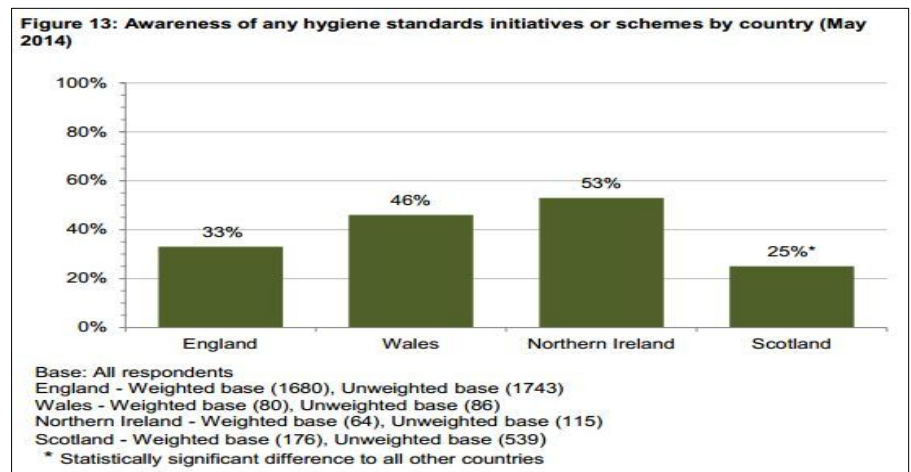
[그림 2-5] 업소의 위생수준 판단 기준의 시계열적 변화



바. 위생제도 등

[그림 2-6]에는 조사대상자의 국가 위생제도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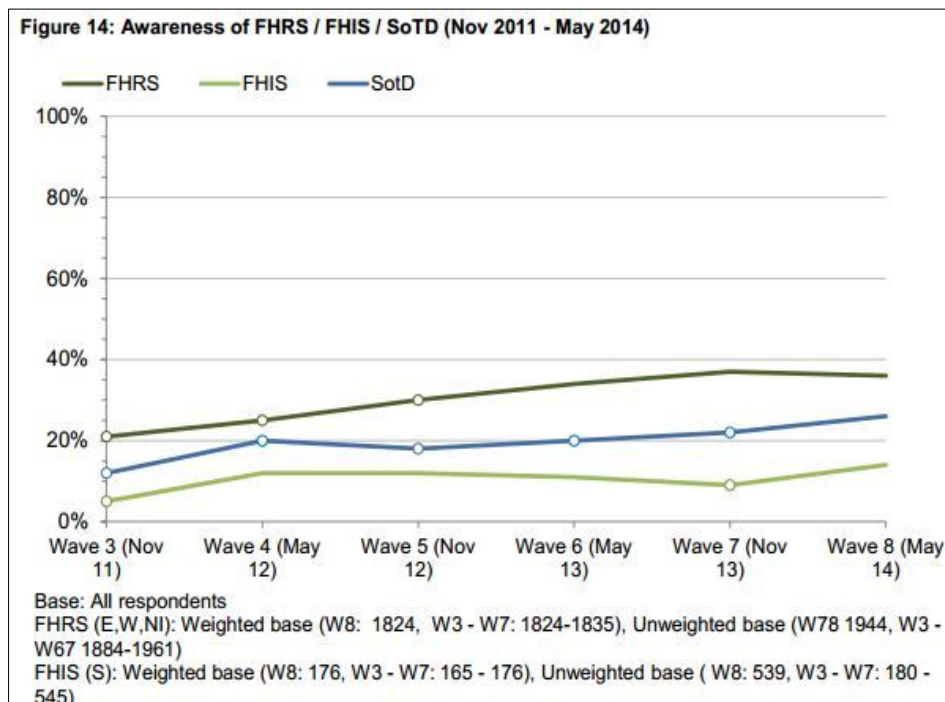
[그림 2-6] 지역별 위생제도 및 체계 인식률



국가의 위생제도 및 체계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의 응답자가 위생제도 및 체계 등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아일랜드가 53%, 웨일즈가 46%, 잉글랜드가 33%, 스코틀랜드가 2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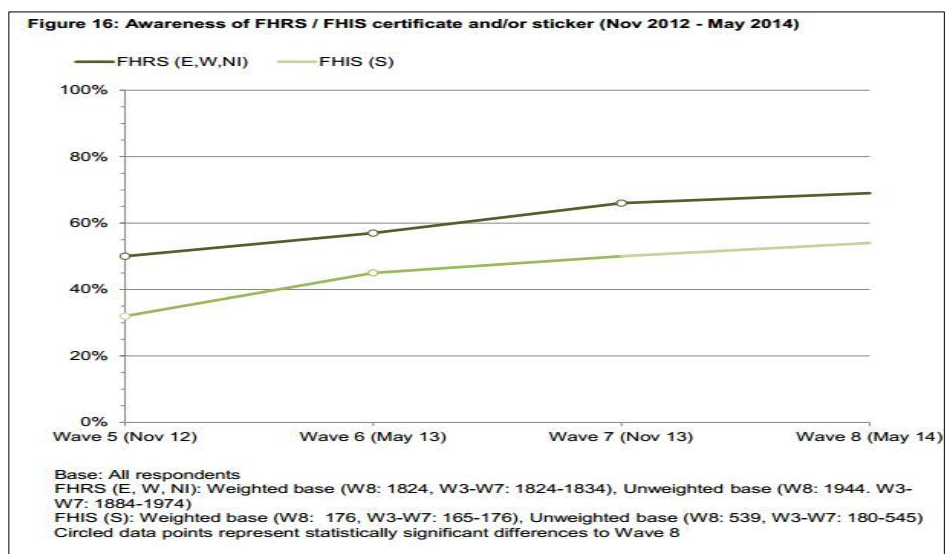
과거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시계열적인 비교를 해보면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응답자의 36%가 Food Hygiene Rating Scheme(FHRS)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 반면에 스코틀랜드의 경우, 14%의 응답자만이 Food Hygiene Information Scheme(FHIS)를 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는 9%였던 지난 조사에 비해 5% 늘어난 수치이다. [그림 2-7]

[그림 2-7] 국가의 위생체계 및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또한 FHRS의 스티커나 인증서를 봤을 때, 69%의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응답자는 둘 중 하나 이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 3번의 조사(50~66%)에 비해 3~19% 증가한 수치였다. FHIS의 인증서 또는 스티커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로 과거에 비해 9~22% 증가하였다. [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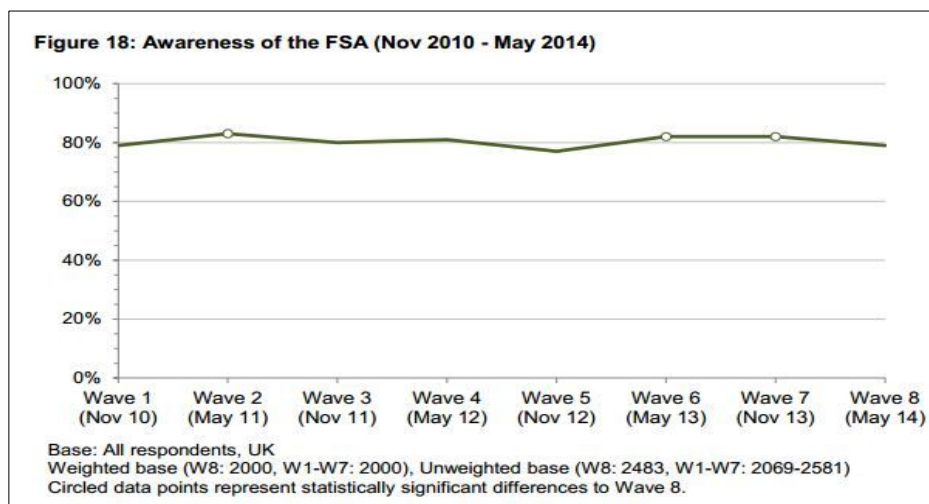
[그림 2-8] FHRS/FHIS의 스티커나 인증서를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



사. FSA에 대한 인지

[그림 2-9]>에는 연도별로 FSA에 대한 인지도 변화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2-9] FSA 인지도의 시계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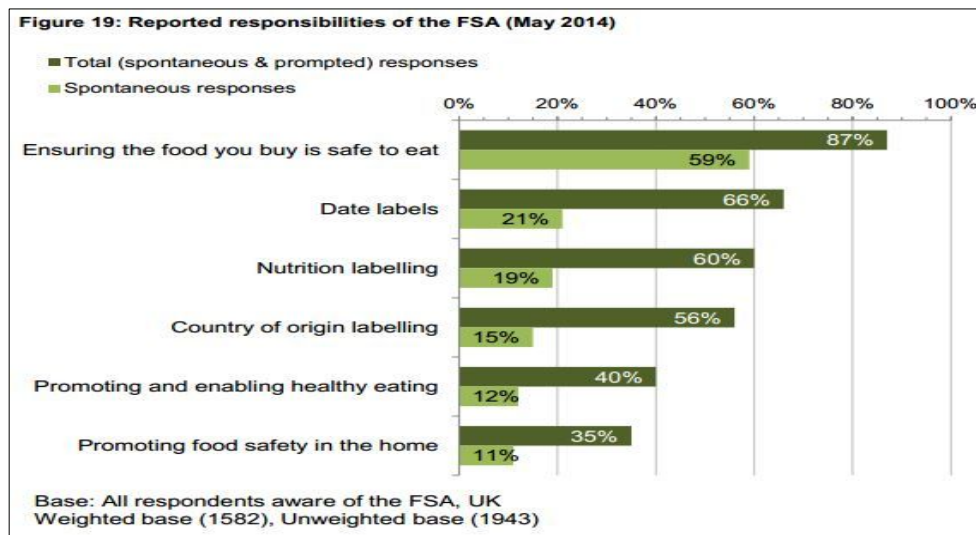
영국 식품청인 FSA라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9%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지난 두 번의 조사(82%)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50~65세 연령대의 8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67~83%의 타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웨일즈의 9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78~79%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에는 FSA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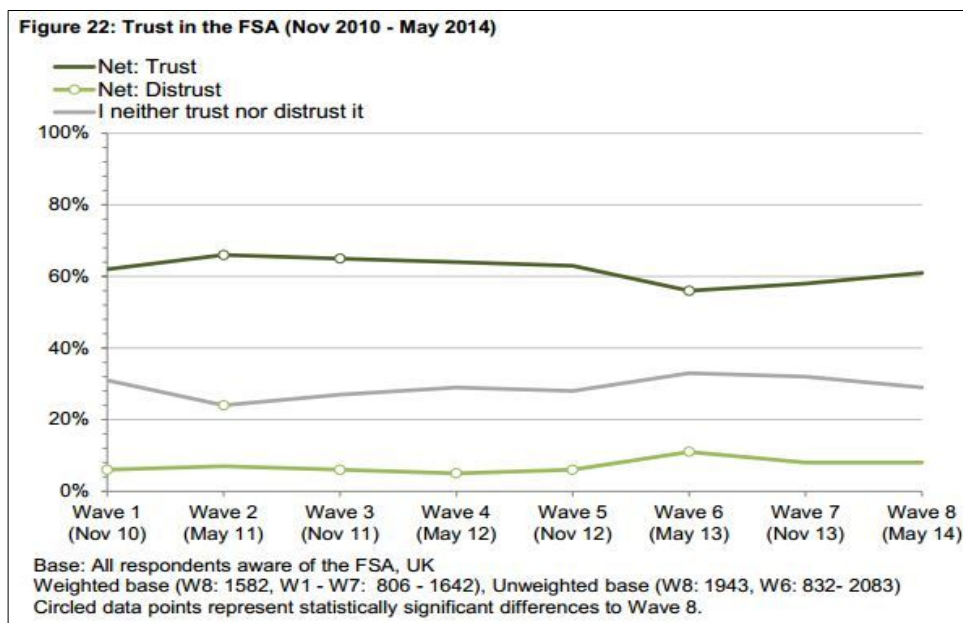
FSA가 책임감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식품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87%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는 유통기한 라벨링(66%), 영양표시 라벨링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FSA가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분야



마지막으로 FSA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FSA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61%가 FSA를 신뢰한다고 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8%만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1]

[그림 2-11]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제3절 일본

1. 소비자 인식조사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위해소통 (Risk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매년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정보발신 등에 대해 년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대학 등에서 식품과 관련한 학문을 이수한 사람, 식품과 관련이 깊은 자격(영양사 등)이 있는 사람, 또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

470명을 식품안전모니터로 선정하고 있다.

2. 조사대상

일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470명의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있다. 식품안전모니터의 직업그룹은 총 4개로 구분하였다.

〈표 2-7〉 식품안전모니터 구분

직업그룹	설명
식품관련 업무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또는 과거에 식품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직업(식음료 조리종사자, 회사·단체 등 포함)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 과거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식품관련 연구직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기관(민간의 연구기관 포함), 대학 등 식품 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의료·교육직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또는 과거에 의료·교육에 관한 직업(의료, 의사, 약사, 간호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에 종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외 일반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조사기간

최근 발표된 조사의 경우 2013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식품안전모니터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353명, 응답률 75.1%)

4. 세부조사항목

조사 분야는 크게 4분야로 다음과 같다.

①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등에 대해

- ②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③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 ④ 고기의 생식에 관하여

<표 2-8>에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2013년 8월에 실시한 소비자 조사의 주요 항목이 제시되어있다.

〈표 2-8〉 조사표 세부내용

조사분야	질문내용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	문1: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 A~G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리스크 관점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선택지 1~6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선택항목</th></tr><tr><td>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td><td>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td></tr></table>	내용	선택항목	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	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
	내용	선택항목			
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	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				
문 2: 식품의 안전성 관점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 - A~L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관점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선택지 1~5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십시오. 또는 A~L의 사항 이외의 식품의 안전성 관점에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M 기타」에 구체적인 예를 기입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선택지 1~5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십시오.					
	<table><tr><th>내용</th><th>선택항목</th></tr><tr><td>A. 식품첨가물 B. 농약 C. 가축용항생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수은 등) F. 유해미생물(세균·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td><td>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td></tr></table>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농약 C. 가축용항생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수은 등) F. 유해미생물(세균·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농약 C. 가축용항생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수은 등) F. 유해미생물(세균·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조사분야	질문내용
	<div>G. BSE H. 유전자조작식품 I. 体細胞クローン家畜由来食品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M.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div> <p>문3: 식품의 안전성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유 - 문2의 사항 A~K 및 M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다」 또는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사항이 있는 분에게 문의합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p> <div>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불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불충분 4. 행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불충분 5. 사업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불충분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 7. 막연한 불안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p>문4: 식품의 안전성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 - 문2의 사항 A~K 및 M에 대해서 「3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또는 「4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를 선택한 사항이 있는 분에게 문의합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시오.</p> <div>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남득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충분 4. 행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충분 5. 사업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충분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 7. 막연한 안심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p>문5: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 - 문2의 사항 L(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 매우 불안하다」 또는 「2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분에게 문의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9 중에서 제일 강하게 맞는 순 3개를 선택하시오.</p>

조사분야	질문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선택항목</div> 1.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2.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해 과학자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3. 피폭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4.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5. 새로운 규제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6. 식품의 검사규제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7. 정부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8. 주위에서 걱정하기 때문에 9.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기여하는 영향에 대해서	<p>문6: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처 -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선택지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개 선택하시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선택항목</div> <table border="0"> <tr> <td>1. TV</td><td>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td></tr> <tr> <td>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td><td>11. 식품생산자</td></tr> <tr> <td>3. 일반 잡지·서적</td><td>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td></tr> <tr> <td>4. 전문서·학술서 등</td><td>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td></tr> <tr> <td>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td><td>14. 의료기관</td></tr> <tr> <td>6. 식품안전위원회</td><td>15. NPO·소비자단체</td></tr> <tr> <td>7. 소비자청</td><td>16. 가족·지인</td></tr> <tr> <td>8. 후생노동성</td><td>17. 지역·학교</td></tr> <tr> <td>9. 농림수산성</td><td>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td></tr> </table> <p>문7: 식품에 대한 영향의 정보수집 자세 - 일본대지진에 동반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후 식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선택지 1~5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선택항목</div> 1. 사고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사고직후에도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1. TV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11. 식품생산자	3. 일반 잡지·서적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4. 전문서·학술서 등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14. 의료기관	6. 식품안전위원회	15. NPO·소비자단체	7. 소비자청	16. 가족·지인	8. 후생노동성	17. 지역·학교	9. 농림수산성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1. TV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11. 식품생산자																		
3. 일반 잡지·서적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4. 전문서·학술서 등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14. 의료기관																		
6. 식품안전위원회	15. NPO·소비자단체																		
7. 소비자청	16. 가족·지인																		
8. 후생노동성	17. 지역·학교																		
9. 농림수산성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p>문8: 일본대지진 전후의 식음료 구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의 변화 - 일본대지진 전후에 식음료품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p>																		

조사분야	질문내용
	선택지 1~4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오.
	<div>선택항목</div> <div>1. 일본대지진 전후에 변화가 없다. 2. 일본대지진 직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과 같아졌다. 3. 일본대지진 이후에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div>
	문9: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밑도는 식품에 대한 사고 방식 -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밑도는 식품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해당 사항을 1~5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div>선택항목</div> <div>1. 기준치를 밑돌더라도 건강을 위해 먹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2. 현재 유통되는 것은 검사 결과 건강에 무해하므로 먹거나 구매한다. 3. 방사성 식품에 개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판단할 수 없다. 4.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없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div>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문10: 어린이(중학생 이하)에게 알려야 할 정보 - A~I 중 어린이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우선 순위가 높은 순으로 3개 선택하십시오
	<div>선택항목</div> <div>[위험요소] A. 유해 미생물 B. 식품첨가물 C. 방사성 물질 D. 농약 E. 오염물질 (카드뮴, 메틸 수은 등) F.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의 용출 물질 G. 건강기능식품 H. BSE (광우병) I. 유전자 재조합 식품</div> <div>[선택지] 1. 기본 정보 등 2.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div>

조사분야	질문내용						
	3. 위협의 정도 4. 외국의 상황 5. 일상생활에서 유의할 것 6. 일상생활에서 유의할 것 없음 7. 과거의 건강피해 8. 특별히 알려야할 정보는 없다 9.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문11: 식품안전모니터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 - A~I 중 식품안전모니터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선 순위가 높은 순으로 3개 선택하십시오 선택지는 문9와 같음 문12: 위험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 - 문11과 같은 위험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업무상의 필요입니까 일상 생활상의 필요입니까? <table border="1"> <thead> <tr> <th>선택항목</th></tr> </thead> <tbody> <tr> <td>1. 업무상 알 필요가 있음</td></tr> <tr> <td>2.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td></tr> <tr> <td>3.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td></tr> <tr> <td>4. 일상생활에서 알 필요가 있음</td></tr> <tr> <td>5.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td></tr> </tbody> </table>	선택항목	1. 업무상 알 필요가 있음	2.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	3.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	4. 일상생활에서 알 필요가 있음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선택항목							
1. 업무상 알 필요가 있음							
2.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							
3.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더 큼							
4. 일상생활에서 알 필요가 있음							
5.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문13: 주위에 정보 제공 - 당신은 식품안전모니터로 A~M까지의 위험에 대해 주위분들에게 정보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어느 범위로 정보제공을 했는지 1~6 까지 보기중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조사분야	질문내용				
	<div>선택항목</div> <p>[위험요소]</p> <p>A. 유해 미생물 B. 식품첨가물 C. 방사성 물질 D. 농약 E. 오염물질 (카드뮴, 메틸 수은 등) F.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의 용출 물질 G. 건강기능식품 H. BSE (광우병) I. 유전자 재조합 식품 J. 식품 저장 및 보관에 관한 일반 K. 조리시의 위험에 관한 일반 L. 육류의 생식 위험에 관한 일반 M. 식품안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N.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p> <p>[선택지]</p> <p>1. 자신의 가족, 친척들에 말한 적이 있다. 2. 친구, 지인이나 이웃, 직장동료에게 말한 적이 있다. 3. 지역활동, 강연회, 세미나 등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4. 지역활동, 강연회, 세미나 등에서 향후 강연을 할 예정이다. 5.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6. 없다</p>				
고기의 생식에 관하여	<p>문14: 고기의 생식에 대한 리스크의 인식도</p> <p>- 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까? 선택지 1~4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p>				
	<div>선택항목</div> <p>1. 중증이 될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 설사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리스크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다. 4. 어린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히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p>				
	<p>문15: 고기의 생식 장소와 빈도</p> <p>- 과거 1년간 말, 돼지, 닭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고기의 종류별로 선택지 1~4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십시오.</p>				
	<table> <tr> <th>고기의 종류</th><th>선택항목</th></tr> <tr> <td>A. 말의 생 고기</td><td rowspan="2">1.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없으나,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td></tr> <tr> <td>B. 말의 생 장기(간 등)</td></tr> </table>	고기의 종류	선택항목	A. 말의 생 고기	1.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없으나,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
고기의 종류	선택항목				
A. 말의 생 고기	1.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없으나,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				
B. 말의 생 장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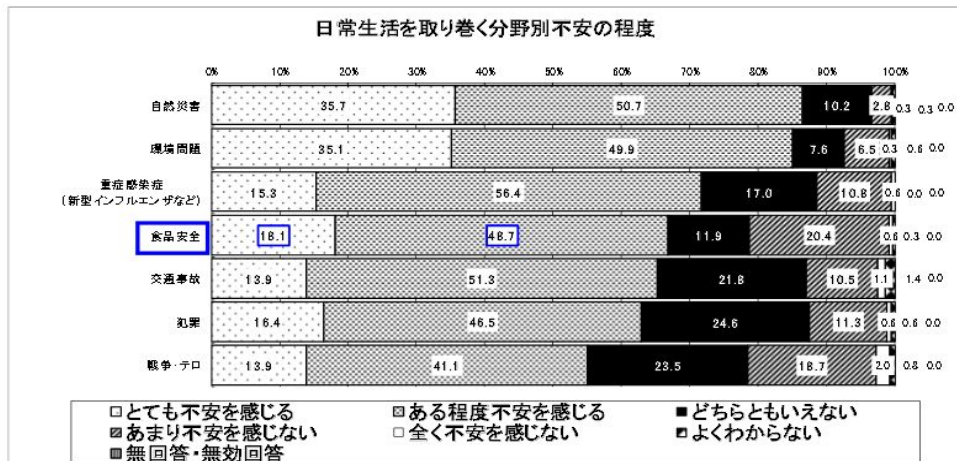
조사분야	질문내용						
	<table border="1"> <tr> <td> C. 돼지의 생 고기 D. 돼지의 생 장기(간 등) E. 닭의 생 고기 F. 닭의 생 장기(간 등) G. 사슴, 멧돼지, 곰의 생 고기 H. 사슴, 멧돼지, 곰의 장기 I. 소의 간 이외의 장기 </td><td> 2.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있으나, 집에서 먹은 적은 없다, 3. 음식점에서도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 4. 먹은 적이 없다. </td></tr> </table> <p>문16: 고기를 생으로 먹는 이유</p> <p>- 문11에 대해 먹은 적이 있는 경우(1~3을 선택하신 경우)에 문의합니다. 말, 돼지, 닭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은 이유에 대해서 선택지 1~8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p> <table border="1"> <tr> <th>선택항목</th></tr> <tr> <td> 1. 좋아하기 때문에 2. 음식점에서 추천해준 메뉴였기 때문에 3. 주위에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4. 선도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가정용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 자신의 몸상태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td></tr> </table> <p>문17: 지난 1년간 고기 생식에 대한 상황과 변화</p> <p>- 지난 1년간 당신이나 당신 주위에서 고기의 생식에 대한 상황과 변화에 대해 다음 옵션 1~12중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p> <table border="1"> <tr> <th>선택항목</th></tr> <tr> <td>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12.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td></tr> </table>	C. 돼지의 생 고기 D. 돼지의 생 장기(간 등) E. 닭의 생 고기 F. 닭의 생 장기(간 등) G. 사슴, 멧돼지, 곰의 생 고기 H. 사슴, 멧돼지, 곰의 장기 I. 소의 간 이외의 장기	2.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있으나, 집에서 먹은 적은 없다, 3. 음식점에서도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 4. 먹은 적이 없다.	선택항목	1. 좋아하기 때문에 2. 음식점에서 추천해준 메뉴였기 때문에 3. 주위에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4. 선도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가정용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 자신의 몸상태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선택항목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12.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C. 돼지의 생 고기 D. 돼지의 생 장기(간 등) E. 닭의 생 고기 F. 닭의 생 장기(간 등) G. 사슴, 멧돼지, 곰의 생 고기 H. 사슴, 멧돼지, 곰의 장기 I. 소의 간 이외의 장기	2. 음식점에서 먹은 적은 있으나, 집에서 먹은 적은 없다, 3. 음식점에서도 집에서 먹은 적이 있다. 4. 먹은 적이 없다.						
선택항목							
1. 좋아하기 때문에 2. 음식점에서 추천해준 메뉴였기 때문에 3. 주위에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4. 선도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가정용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 자신의 몸상태가 좋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오)							
선택항목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 12.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조사 결과

가.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

[그림 2-12]에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가 나타나 있다. 상대적인 안전의 수준을 물어본 항목에서는 식품안전의 경우 「매우 불안」과 「어느 정도 불안」을 합친 비율이 66.8%였다. 다른 분야의 경우 자연 재해 86.4%, 환경문제 85.0%, 중증감염 (신종 인플루엔자등) 71.7%, 교통사고 65.2%, 범죄 62.9%, 전쟁/테러 5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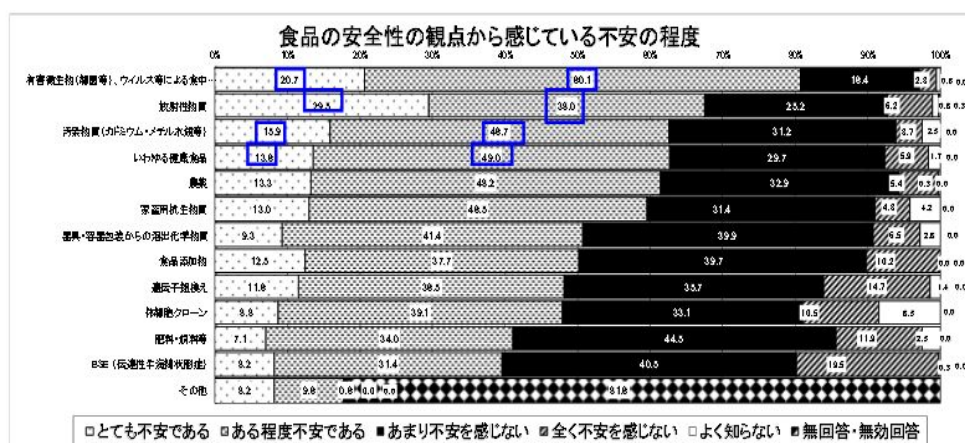


2011년 1차 조사는 동일본 대지진 4개월 후에 수행되었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하였었다. 이후 2012년 조사까지 감소하였으나 (64.8%), 이번 조사에서는 2.0%가 증가하였다. 직업별 응답양상으로 교육직 종사자에서는 식품안전, 범죄, 전쟁/테러,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불안의 비율이 특히 높았으며, 의료직 종사자에서는 식품안전, 전쟁/테러, 교통사고에서 매우 불안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나. 식품안전 관점에서 위해요소별 불안 정도

[그림 2-13]에는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위해요소별 불안의 정도가 나타나 있다.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로 「매우 불안」 과 「어느 정도 불안」 의 합이 높은 3가지 항목을 산출한 결과 첫 번째로는 유해 미생물(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등이 80.8%를 차지하였고, 방사성 물질 67.5%, 오염 물질(카드뮴, 메틸수은 등) 62.6%, 건강식품: 62.6%의 순이었다.

[그림 2-13]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 관점에서의 요소별 불안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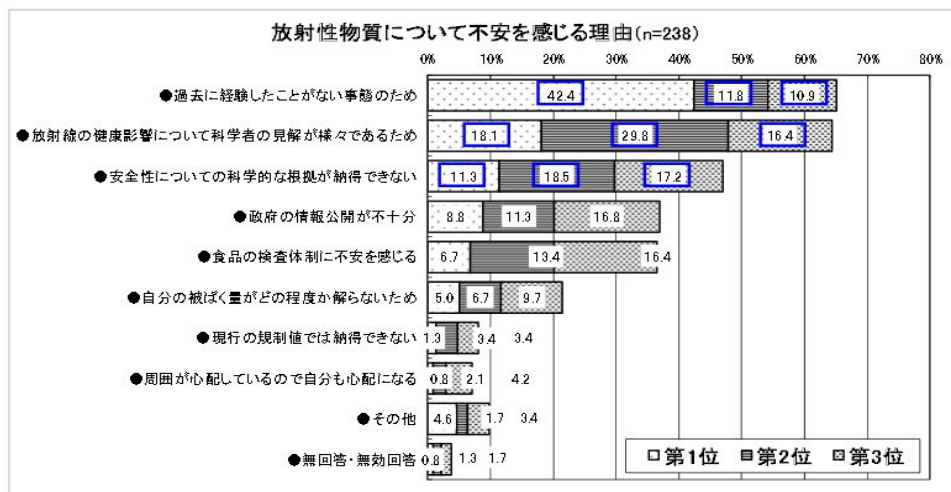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유(방사성 물질 제외)의 사례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과학적인 근거에 의문이 들어서라는 응답은 체세포 복제에서 52.7%, 유전자 재조합에서 51.2%, 식품 첨가물에서는 36.7%였고, 행정규제가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은 건강 식품에서 21.3%, BSE에서 17.1%, 화학비료와 사료에서 13.1%였다. 사업자의 법령준수 및 위생관리가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에서는 유해 미생물(세균 등)에 의한 식중독 등이 33.7%, 가축용 항생제에서는 32.4%, 화학비료와 사료 등에서 30.3%가 나타났다.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은 건강 식품에서 16.3%, 가축용 항생제에서 10.0%,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의 용출 화학물질에서 8.4%가 나타났으며, 과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라는 응답에서는 오염물질(카드뮴, 메틸수은 등)에서 33.9%, BSE에서 28.6%,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에서 20.7%로 나타났다. 반대로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의 사례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과학적 근거에 납득해서라는 응답이 식품첨가물에서 60.2%, 유전자 재조합식품에서 40.4%, 농약에서 9.3%로 나타났다으며 행정규제가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오염물질에서 45.5%, 농약에서 39.3%, 가축용 항생제에서 38.3%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가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등에서 22.7%,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등)에서 13.0%, 가축용 항생제에서 1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안심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건강 식품에서 21.4%, 비료/사료 등에서 20.6%, 체세포 복제에서 17.5%로 나타났다.

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불안 정도

[그림 2-14]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불안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매우 불안」 과 「어느 정도 불안」 으로 응답한 사람의 불안감 이유 상위 3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사태이기 때문이 6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자의 견해가 다양해서가 64.3%,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납득이 안 되어서가 47.0%를 기록했다.

[그림 2-14]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방사성 물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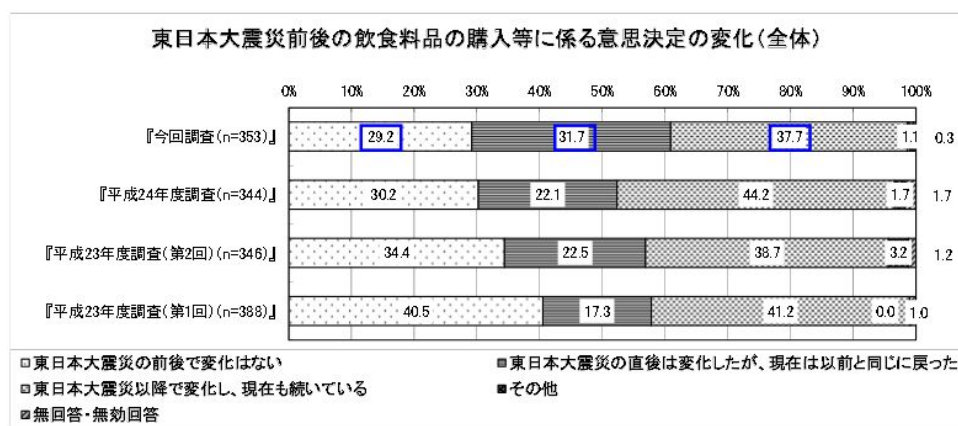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식품의 건강영향 정보의 입수처는 1위부터 5위까지의 답변을 합계시 신문이 84.4%, TV가 70.2%, 식품안전위원회가 65.4%로 나타났으며, 개별 답변의 경우 TV가 34.3%로 1위였다.

식품의 건강영향 정보 수집 태도에서는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집했지만, 현재는 적극적이지 않음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임” 비율이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교육직”에서 “사고 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임”이 40.0%로 가장 높았고, “기타 소비자”에서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했지만 현재는 적극적이지 않음”이 62.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토호쿠”지역에서 “사고 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임”이 61.1%로 가장 높았다.

[그림 2-15]에는 동일본 대지진 전후 식품 구입시 의사결정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동일본 대지진 전후의 식음료품 구입 관련 의사결정의 변화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변화했지만, 현재는 이전과 동일함”은 31.7%, “동일본 대지진 전후에 변화는 없음”이 29.2%였다.

[그림 2-15]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동일본 대지진 전후 식품 구입시 의사결정의 변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밑도는 식품에 대한 인식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이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없이 먹고, 구입함”이 55.2%로 가장 높았다.

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자녀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1위는 “유해 미생물 (세균 등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본 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해 미생물 (세균 등 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의 경우 “기본 정보”보다 “일상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약간 높았다. 응답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로는 “기본 정보”와 “위험 관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관리의 내용”이 1순위로 많이 선정되었으나,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기본 정보”외에도 “그에 관한 주요 식품 건강 영향 평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본인에게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업무상의 필요인지, 일상생활의 필요인지 여부에서는 “업무상 알아야 함”과 “업무상 알아야 하는 편임”의 합계가 51.5%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함”과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하는 편임”의 합계는 4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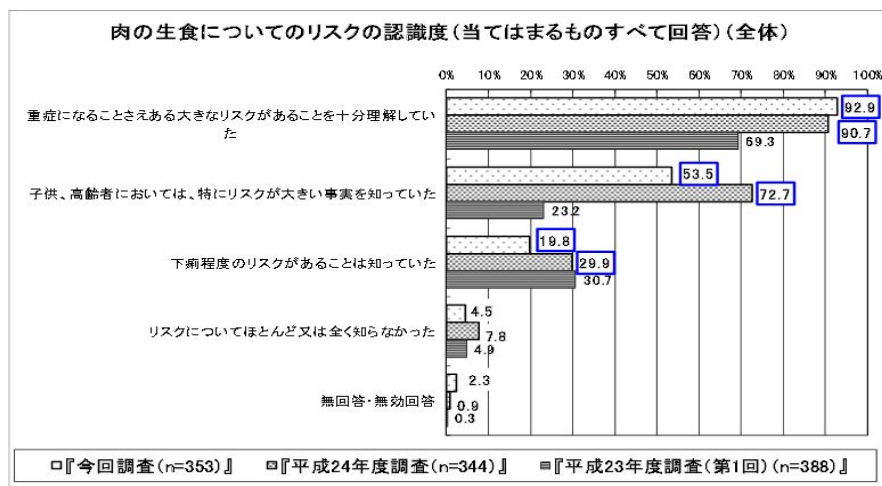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자신의 가족/친족에 말한 적이 있음”은 “유해 미생물(세균등)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의 저장, 보관에 관한 일반정보”, “조리시 위험에 관한 일반 정보” 등의 순이었다. “친구/지인이나 이웃, 직장동료에게 말한 적이 있음”은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에 이어 “식품안전위원회 활동”, “식품 첨가물”의 순이었고, “지역 활동, 강연회, 세미나에서 강연한 적이 있음”은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에 이어 “식품 저장 보관에 관한 일반 정보”, “식품첨가물”의 순이었다. “지역 활동, 강연회, 세미나에서 추후 강연할 예정임”은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에 이어 “요리 전반의 위험에 대한 것”, “식품의 저장, 보관에 관한 일반 정보”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정보 발신 한 적이 있음”은 “유해 미생물(세균 등) 바이러스”에 이어 “방사성 물질”, “식품의 저장 보관에 관한 일반정보”, “식품안전위원회의 활동” 순이었다.

마. 육류 생식에 대한 위험 인식도

[그림 2-16]에는 육류 생식에 대한 위험 인식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육류 생식에 대한 위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중증 질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가 92.9%로 가장 높았으며, “노약자에게서 특히 위험이 큰 것을 이해하고

있다”가 53.5%, “설사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다”가 19.8%, “위험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몰랐다”는 4.5% 정도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2-1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육류 생식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



지난 1년간 육류의 생식 상황을 살펴보면, 말 생고기가 38.2%가 가장 높았으며, 닭 생고기가 27.1%, 닭의 장기가 10.1%, 소의 간이외의 장기가 8.7%로 나타났다. 생고기를 섭취한 장소로는 “음식점에서 먹은 적이 있지만 집에서는 없다”가 가장 높았다. 육류 생식의 상위 3개 이유는 “음식점의 추천 메뉴였기 때문에”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좋아했기 때문에”가 35.6%, “선도가 좋은 경우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가 33.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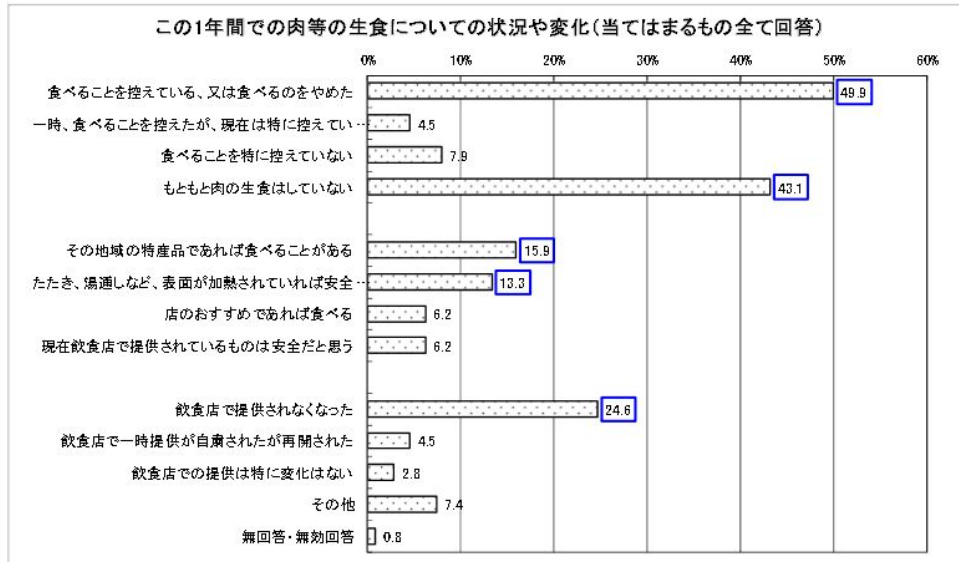
마. 육류 생식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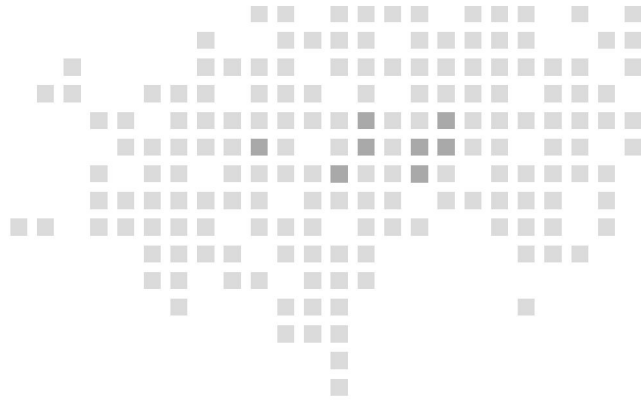
[그림 2-17]에는 지난 1년간 육류 생식에 대한 태도변화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간 육류 생식에 대한 상황 변화로는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가 49.9%, “원래 생식을 하지 않는다”가 43.1%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또한 생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인식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가 15.9%, “표면이 가

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가 13.3%로 높은 편이었다. 주변 음식점에서의 가용성은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가 24.6%로 가장 높았다.

[그림 2-17]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지난 1년간 고기 생식에 대한 태도 변화





제3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계획

제3절 사전조사

3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 조사설계 <

제1절 조사설계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하반기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2회씩 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다. 조사내용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 현안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2013년에 선정한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주체는 국무조정실이 되며 조사주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7월과 12월에 각각 보고 및 발표하게 되었고, 조사 및 통계분석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 등 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1,200명	탈락률 등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가. 조사절차

이 연구의 전체 절차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표본설계를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설문지 개발, 사전조사, 상하반기 조사 실시 및 2014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산출한다.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1) 조사자료 에디팅(editing)

조사가 완료된 평가표를 오류 점검 및 수정하여 코딩할 수 있는 자료화한다.

2) 조사자료 코딩(coding)

에디팅이 된 조사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부호화 한다.

3) 조사자료 크리닝(cleaning)

조사자료의 코딩 후 입력된 자료의 오류 점검 및 수정으로 통계분석 전 마지막 조사자료 질관리를 한다.

4) 조사자료 프로세싱(processing)

조사자료를 에디팅, 크리닝한 후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나. 표본설계

1) 기본원칙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다.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이었다.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2) 모집단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성인 남녀인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치이다.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은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40대 인구수가 남, 녀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6,690,307	3,587,760	3,231,240	4,100,937	3,909,584	4,340,214	4,191,892	3,708,107	3,708,864	2,754,588	3,157,121
서울	7,715,005	787,703	808,662	885,118	866,717	823,430	834,599	731,849	794,267	564,237	618,423
부산	2,622,981	251,639	228,559	251,575	247,484	271,727	285,138	287,403	310,114	229,658	259,684
대구	1,823,926	180,792	155,466	184,114	188,664	215,182	222,105	188,454	194,497	134,716	159,936
인천	2,060,782	204,206	186,035	242,851	225,116	257,297	251,437	214,642	206,892	129,264	143,042
광주	1,079,629	113,823	110,321	122,924	122,886	127,866	127,302	98,786	100,730	72,464	82,527
대전	1,121,627	129,013	115,495	124,267	124,100	130,576	130,018	109,381	108,554	71,306	78,917
울산	811,368	76,460	58,177	97,344	88,980	110,014	105,452	91,268	84,077	49,338	50,258
경기	8,664,116	829,101	758,288	1,065,844	1,020,512	1,134,173	1,074,551	845,958	803,657	529,771	602,261
강원	1,085,284	110,223	80,232	101,726	96,299	124,289	115,241	122,206	118,862	99,446	116,760
충북	1,109,778	113,225	93,826	116,991	108,132	130,469	121,325	117,662	112,376	90,541	105,231
충남	1,511,901	157,553	133,018	172,855	146,115	176,241	151,338	150,145	140,444	131,767	152,425
전북	1,261,737	118,080	99,069	120,787	117,092	141,909	134,866	129,761	130,949	121,807	147,417
전남	1,213,303	91,250	70,722	111,953	102,863	142,583	126,245	131,885	128,415	138,180	169,207
경북	1,903,052	182,543	143,694	190,608	173,974	213,345	197,468	202,746	200,700	180,153	217,821
경남	2,321,269	209,027	160,463	269,980	240,615	291,039	268,493	247,472	237,076	180,054	217,050
제주	384,549	33,122	29,213	42,000	40,035	50,074	46,314	38,489	37,254	31,886	36,162

3) 표본 추출

<표 3-4>에는 연령별, 지역별로 구성된 식품패널이 분포되어있다. 분석시 대상자 수가 적은 지역은 권역으로 묶어 16개 시도별로 구분한 지역별 오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 3-4〉 식품패널 분포

	남자						여자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합계	100	105	109	102	88	504	91	101	107	102	95	496	1,000
서울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63	126
부산	7	7	8	8	7	37	7	7	8	8	7	37	74
대구	6	6	7	6	5	30	6	6	7	6	6	31	61
인천	6	7	7	7	5	32	6	7	7	7	5	32	64
광주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대전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울산	4	4	5	4	3	20	3	4	5	4	3	19	39
경기	13	15	15	13	10	66	12	14	15	13	11	65	131
강원	5	5	5	5	5	25	4	4	5	5	5	23	48
충북	5	5	5	5	4	24	4	5	5	5	5	24	48
충남	6	6	6	6	5	29	5	5	6	5	6	27	56
전북	5	5	5	5	5	25	4	5	5	5	5	24	49
전남	4	5	5	5	5	24	4	5	5	5	6	25	49
경북	6	6	7	6	6	31	5	6	6	6	7	30	61
경남	7	7	8	7	6	35	6	7	7	7	7	34	69
제주	3	3	3	3	3	15	2	3	3	3	3	14	29

<표 3-5>에는 표본설계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정리되어있다.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전국의 20세이상 국민(통계청 추계인구)을 대상으로 층화계통추출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 : 95% ± 3% - 표본규모 : 성인 1,000명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2012년 통계청 인구추계치를 모집단으로 하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하여 등확률로 표본선정 - 층내에서 계통추출 -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 - 세종시는 모집단 미파악으로 제외
표본배정방식	-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단 크기에 근거하여 1/38,418의 확률로 각 셀별로 표본 할당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hat{p}_{st} = \sum_{r=1}^{16} \sum_{s=1}^2 \sum_{a=1}^5 w_{rsa} \hat{p}_{rsa}$ <p>r : 16개 지역, s : 1,2(남,여), a : 20대, ...,60대이상</p> <p>w_{rsa}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의 가중치</p> $\hat{Var}(\hat{p}_{st}) = \sum_r \sum_s \sum_a w_{rsa}^2 \hat{Var}(\hat{p}_{rsa})$ <p>여기에서</p> $\hat{Var}(\hat{p}_{rsa}) = \frac{N_{rsa} - n_{rsa}}{N_{rsa}} \frac{\hat{p}_{rsa}(1 - \hat{p}_{rsa})}{n_{rsa} - 1}$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전년 대비, 올해, 내년의 3종으로 구성 - 식품안전체감도는 5개 세부영역으로 구분 (수입식품, 외식, 단체급식, 학교주변 식품, 제도가공식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의 총 Sample 수는 1,000표본이고, Final Sampling Unit 1단위 (명)에 대한 Sampling Fraction(표본추출확률)은 $\frac{1}{38,418}$ (단위:명)

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 전체 List(Sampling Frame)를 확보하여 일정한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 Random하게 복원 추출(With replacement)하는 단순무작위추출(SRS : Simple Random Sampling)을 할 경우 모집단의 수가 전 국민이 되고,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 할 때 불가능함에 따라 이 연구의 최종적인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연령·지역이라 가정하고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추출은 조사원에게 주어진 표본할당의 70%를 Birthday Method 방식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30%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과소 표집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할당 추출을 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어있으며,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1,000명의 패널을 지역, 성, 연령별 각 셀별로 분포시키다 보니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령대별 일부 계층군은 표본 수가 적어 발생 오차율이 10%p 이상 발생하는 계층이 있어 향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시 지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묶어 자료분석 및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지역	목표 허용오차	연령	목표 허용오차
경기(최소)	±8.5%p	40대(최소)	±6.7%p
제주(최대)	±18.5%p	60대~(최대)	±7.2%p

제2절 조사계획

1. 조사계획 개요

<표 3-7>에는 사전조사, 상반기조사 등 이 연구의 조사계획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사전조사는 200명, 본조사는 1,000명을 조사 완료할 목표이며, 조사방법은 패널조사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조사비 절약 등을 이유로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등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방법을 다양하게 채택하여 실시기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이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시기 실시되어 2014년에는 본조사 전에 따로 실시하지 않고 상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하여 조사 초기의 2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표 3-7〉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30일 ~ 7월 2일
상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면접조사	6월 30일 ~ 7월 18일
하반기 조사	전국, 식품패널	1,127명	식품패널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 12월 3일

2. 설문지 수정·보완

<표 3-8>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사용되기 위해 수정, 보완된 설문지의 세부영역, 세부항목 등으로 구분되어있고,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설문지는 7개 평가분야, 9개 평가영역, 2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 일반사항으로는 표본추출 단위인 성, 연령, 지역에 학력, 소득액, 직업이 추가되었다.

사전조사 후 평가영역별 Cronbach's alpha 계수 값 산출로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순서, 형식 등을 수정하였다.

〈표 3-8〉 설문지 구성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항목
1. 식품 안전 인식도 및 관심도	1.1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1.1.1 환경문제
		1.1.2 자연재해
		1.1.3 식품안전
		1.1.4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1.1.5 범죄
		1.1.6 전쟁, 테러
		1.1.7 교통사고
	1.2 인지도 및 관심도	1.2.1 식품안전 영향 요인
		1.3.1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4.1 식품안전정책 관심 정도
		1.5.1 식품 정보 습득 이용 매체
		1.6.1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2. 제조·유통식품 안전		2.1.1 제조·유통식품 안전정도
3.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3.1.1 학교 주변 판매 식품 안전정도
		3.1.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 단체 급식과 외식 안전	4.1 단체급식 안전	4.1.1 단체 급식 안전정도
		4.1.2 단체 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2 외식 안전	4.2.1 외식 안전정도
		4.2.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 수입식품 안전		5.1.1 수입식품 안전정도
		5.1.2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 식품안전		6.1.1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6.1.2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6.1.3 올해 식품안전관리수준
		6.1.4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7. 응답자 인적사항		7.1.1 성별
		7.1.2 연령
		7.1.3 거주지
		7.1.4 월평균 가구소득
		7.1.5 최종학력
		7.1.6 직업

제3절 사전조사

1. 조사 개요

2014년 사전조사는 2013년 하반기 조사와 동일한 조사대상,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3년 조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상반기 조사에 포함되어 조사초기 200명의 조사결과를 사전조사결과 분석하였는데 설문지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2013년 0.71에서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0.81로 상승하여 그만큼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에는 사전조사 결과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2. 설문지 신뢰도 검증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해 보니 <표 3-9>처럼 분석되어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도 통계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설문지의 순서, 양식 등을 개선해서인지 계수값이 0.81로 상승되었다.

<표 3-9>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제외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0.81	0.61	0.77	0.61	0.77
전반적인 수입식품 안전		0.52	0.79	0.52	0.79
외식 안전		0.54	0.78	0.55	0.79
제조·유통식품 안전		0.60	0.77	0.61	0.78
단체급식 안전		0.64	0.76	0.65	0.77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51	0.79	0.51	0.80



제4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계획
- 제2절 조사 결과
- 제3절 세부 조사 결과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4-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4-1> 본조사 식품패널 구축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4년 6월 30일 ~ 7월 18일	
조사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1,000명	
조사내용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16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전화조사 : 254명 인터넷조사: 708명 대면조사 : 8명	
탈락사유	총 30명	전화 연결안됨 10명
		전화 응답거부 6명
		인터넷조사 무응답 13명
		대면조사를 전화조사로 교체 1명
조사 성공자	총 970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1,127명의 명단을 제공 받아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1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상반기 조사는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가 사용되었다.

<표 4-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상반기조사	
	조사대상자수	비율
합계	1,127	100.0
전화조사	286	25.4
인터넷조사	832	73.8
면접조사	9	0.8

2014년 6월 27일(금)에 전화 조사원 3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었고,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주일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8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1,127명의 조사대상자 중 패널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으며,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 970명에 대해 상반기 조사가 완료되었다.

3.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목표

<표 4-3>에는 본조사 목표인 식품패널 1,000명에 대한 성, 지역, 권역별 구성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총 1,000명이 대상이며 성별, 4개 권역별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5개 연령군(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층화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중부권은 강원, 대전, 충남, 충북을, 호남권은 광주, 제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고 있다.

〈표 4-3〉 조사대상 식품패널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000	512	97	108	113	108	86	488	89	98	114	102	85
수도권	331	170	32	39	40	33	26	161	32	33	38	33	25
영남권	299	150	29	30	34	31	26	149	26	30	34	33	26
중부권	199	101	19	21	21	23	17	98	17	19	22	21	19
호남권	171	91	17	18	18	21	17	80	14	16	20	15	15

나. 조사 성공

<표 4-4>에는 조사에 성공한 970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 있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20개 조사단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조사성공률이 가장 낮은 조사단위는 호남권의 20대 여성군이였다 (78.6%). 대체적으로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권역별로는 중부권, 성별로는 남성, 연령군별로는 40대에서 조사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4〉 상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7.0	97.3	95.9	99.1	98.2	96.3	96.5	96.7	92.1	96.9	97.4	98.0	98.8
수도권	96.7	97.1	93.8	97.4	100.0	97.0	96.2	96.3	93.8	93.9	100.0	93.9	100.0
영남권	97.7	98.0	96.6	100.0	100.0	100.0	92.3	97.3	96.2	96.7	94.1	100.0	100.0
중부권	99.0	99.0	94.7	100.0	100.0	100.0	100.0	99.0	94.1	100.0	100.0	100.0	100.0
호남권	94.2	94.5	100.0	100.0	88.9	85.7	100.0	93.8	78.6	100.0	95.0	100.0	93.3

제2절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5>에는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는데 성, 연령, 지역별 특성은 <표 4-3,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을 사용하여 경제적, 학력수준이 국민 평균수준 보다 높은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표 4-5〉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합계	
		명수	비율
합계		970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9	6.1
	100만원대	127	13.1
	200만원대	152	15.7
	300만원대	188	19.4
	400만원대	183	18.9
	500만원 이상	261	26.9
교육수준	중졸 이하	73	7.5
	고졸	337	34.7
	대졸 이상	560	57.7
직업분류	공무원	29	3.0
	기능직	39	4.0
	대학생	3	0.3
	무직	75	7.7
	보험영업	1	0.1
	사무관리직	130	13.4
	사무기술직	229	23.6
	사무종사자	2	0.2
	사무직	5	0.5
	서비스종사자	1	0.1
	운전기사	1	0.1
	자영업	83	8.6
	전문자유직	50	5.2
	전업주부	8	0.8
	조교	1	0.1
	주부	185	19.1
	판매서비스직	55	5.7
	학생	72	7.4
	회사원	1	0.1

2. 기본 조사

가.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4-6>에는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 전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패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4%로 조사되었다.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66.6% 및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72.2%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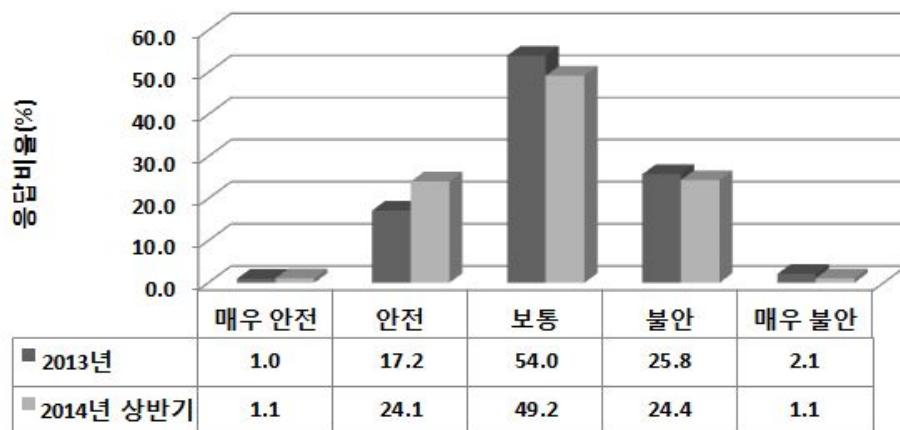
〈표 4-6〉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11	234	477	237	11	722
비율	100.0	1.1	24.1	49.2	24.4	1.1	74.4

[그림 4-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4-1]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나.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1) 안전체감도

<표 4-7>에는 201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0.6%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작년 90.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4-7〉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크게 나아짐	나아짐	동일	떨어짐	크게 떨어짐	동일 이상
응답자수	970	26	376	477	84	7	879
비율	100.0	2.7	38.8	49.2	8.7	0.7	90.6

2) 나아진 이유

<표 4-8>에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401	100.0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117	29.2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87	21.7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68	17.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62	15.5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58	14.5
기타	9	2.2

3) 감소한 이유

<표 4-9>에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로는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로 26.4%의 대상자가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9〉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1	100.0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24	26.4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24	26.4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22	24.2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11	12.1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9	9.9
기타	1	1.1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0>에는 내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4.4%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자 (52.7%)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4-10〉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

구분	합계	크게 나아질 것	나아질 것	동일할 것	떨어질 것	크게 떨어질 것	동일할 것 이상
응답자수	970	28	483	405	51	3	916
비율	100.0	2.9	49.8	41.8	5.3	0.3	94.4

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4-11>에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3.2%의 대상자가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반대로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3.4%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4-11〉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19	43.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302	31.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106	10.9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98	10.1
정부 정책 홍보 강화	33	3.4
기타	12	1.2

마.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2>에는 학교 주변 판매식품안전, 수입식품안전, 외식안전, 유통식품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4.4%인데 이보다 높게 조사된 분야는 77.5%의 유통식품, 75.7%의 단체급식의 안전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2.1%,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체감도는 4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두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적용, 홍보 등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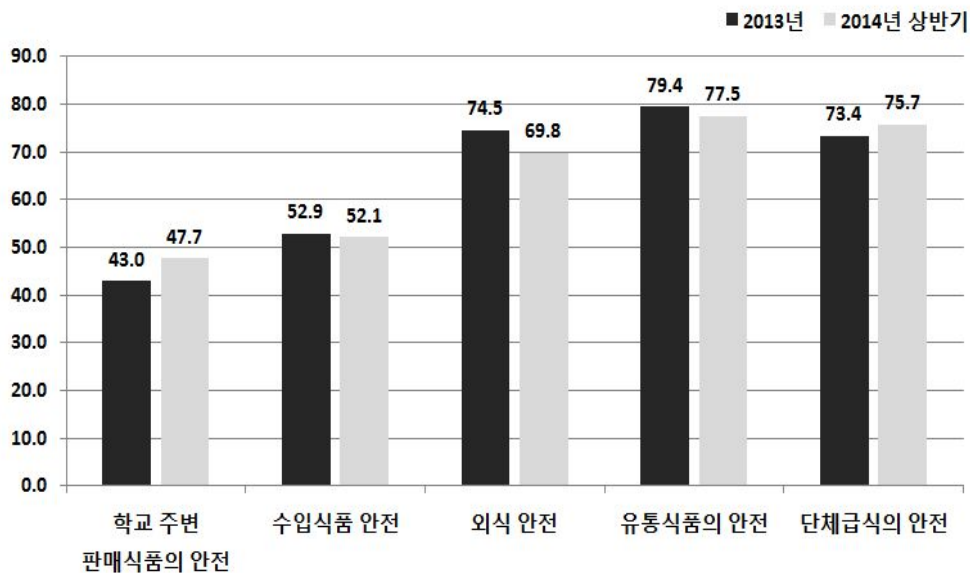
〈표 4-12〉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100.0	0.3	10.6	36.8	46.0	6.3	47.7
수입식품 안전	100.0	0.3	10.7	41.0	42.1	5.9	52.1
외식 안전	100.0	0.5	14.4	54.9	28.0	2.2	69.8
유통식품의 안전	100.0	0.3	19.8	57.4	21.0	1.4	77.5
단체급식의 안전	100.0	1.8	31.8	42.1	21.8	2.5	75.7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1.1	24.1	49.2	24.4	1.1	74.4

[그림 4-2]에는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를 2013년 결과와 비교한 결과가 막대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작년대비 학교주변 판매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체감도는 상승한 반면, 수입식품과 제조·유통식품은 소폭 감소, 그리고 외식의 안전체감도는 약 5%포인트 가까이 하락하여 가장 크게 안전체감도가 감소한 세부영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3. 부가 조사

2014년 상반기 조사의 부가조사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대적 불안감

<표 4-13>에는 2014년 상반기 범죄, 식품안전, 교통사고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별 상대적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97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불안한 사회위험은 범죄로 나타났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는 40.6%로 전쟁, 테러보다는 더 불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에서 6순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사회위험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비율					
	응답수	비율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미만
범죄	970	100.0	0.2	9.2	24.9	47.0	18.8	65.8
자연재해	970	100.0	0.8	10.5	36.9	44.0	7.7	51.8
환경문제	970	100.0	0.7	10.1	40.7	42.5	6.0	48.5
교통사고	970	100.0	0.3	10.4	43.8	39.2	6.3	45.5
중증감염증	970	100.0	1.0	16.9	38.9	37.7	5.5	43.2
식품안전	970	100.0	0.6	14.0	44.7	36.7	3.9	40.6
전쟁, 테러	970	100.0	2.3	19.8	42.4	29.1	6.5	35.6

나. 영향요인

<표 4-14>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4〉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605	62.4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30	13.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07	11.0
막연한 불안감	68	7.0
주변 사람의 의견	30	3.1
정부의 보도 자료	27	2.8
기타	3	0.3

방송 보도 등 언론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2.4%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전문가나 과학적 지식’과 ‘본인 및 가족의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4%, 11.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응답은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보였다.

다.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4-15>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자의 76.9%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32	304	410	204	20	746
비율	100.0	3.3	31.3	42.3	21.0	2.1	76.9

라.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4-16>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의 43.7%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를 지적한 비율이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익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사결과이다.

〈표 4-16〉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24	43.7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5	21.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87	19.3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89	9.2
정부의 단속 소홀	57	5.9
기타	8	0.8

마. 식품정책에 대한 관심

<표 4-17>에는 평소에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 갖는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자의 93.4%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심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6.6%에 그쳤다.

〈표 4-17〉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보통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107	474	325	54	10	906
비율	100.0	11.0	48.9	33.5	5.6	1.0	93.4

바. 주요 정보 구득원

<표 4-18>에는 평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방송매체가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8.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27.9%가 인터넷 지식정보라고 응답하였다. SNS는 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8〉 정보 구득 매체

(단위: 명, %)

항목	응답수	비율
합계	1,946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747	38.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43	27.9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333	17.1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194	10.0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26	6.5
기타	3	0.2

사. 유용한 식품정보

<표 4-19>에는 평소에 이용하는 식품안전 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생활 정보가 전체의 36.5%,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정보가 24.9%, 식품안전 전문 정보가 21.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위해식품 정보나 리콜 정보가 9.7%로 이러한 정보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단위: %)

항목	응답수	비율
합계	970	100.0
식생활 정보	354	36.5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241	24.9
식품 안전 전문 정보(연구자료, 교수·의사 인터뷰 등)	206	21.2
위해식품 정보나 회수(recall) 정보	94	9.7
식품 기준 규격 및 법령 등	72	7.4
기타	3	0.3

제3절 세부 분석 결과

1. 기본 조사

가. 식품안전체감도

<표 4-20>에는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60대, 공무원, 100만원대, 중졸 이하, 영남권 거주 대상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 공무원, 100만원대, 중졸이하의 안전체감 정도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1.1	24.1	49.2	24.4	1.1	74.4	—
성별	남	1.8	29.1	47.2	21.1	0.8	78.1	0.0003***
	여	0.4	18.9	51.3	28.0	1.5	70.6	
연령군별	20대	0.0	22.3	46.3	31.4	0.0	68.6	0.0137*
	30대	1.0	21.8	43.1	32.2	2.0	65.8	
	40대	2.7	22.1	53.6	20.3	1.4	78.4	
	50대	0.5	27.0	52.5	19.1	1.0	79.9	
	60대 이상	1.2	28.1	49.7	19.8	1.2	79.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34.2	45.6	19.0	0.0	81.0	0.1532
	기능직	2.5	10.0	60.0	27.5	0.0	72.5	
	무직	1.3	32.0	40.0	26.7	0.0	73.3	
	사무관리직	2.3	23.9	48.5	22.3	3.1	74.6	
	사무직	0.8	27.9	47.3	23.2	0.8	76.0	
	자영업	1.2	13.3	60.2	25.3	0.0	74.7	
	전업주부	1.0	19.2	53.9	23.8	2.1	74.1	
	판매서비스직	0.0	24.6	43.9	29.8	1.8	68.4	
	학생	0.0	26.3	43.4	30.3	0.0	69.7	
소득별	100만원 미만	3.4	22.0	52.5	22.0	0.0	78.0	0.0517
	100만원대	0.8	19.7	52.8	26.8	0.0	73.2	
	200만원대	0.7	27.6	44.7	26.3	0.7	73.0	
	300만원대	1.1	16.0	51.6	29.8	1.6	68.6	
	400만원대	1.1	22.4	52.5	23.5	0.6	76.0	
	500만원 이상	1.2	31.8	45.2	19.5	2.3	78.2	
학력별	중졸 이하	1.4	24.7	61.6	12.3	0.0	87.7	0.2453
	고졸	1.2	24.0	49.3	24.9	0.6	74.5	
	대졸 이상	1.1	24.1	47.5	25.7	1.6	72.7	
권역별	수도권	1.6	18.8	50.6	27.2	1.9	70.9	0.1686
	영남권	0.3	26.4	50.0	22.6	0.7	76.7	
	충부권	0.5	25.9	49.8	22.8	1.0	76.2	
	호남권	2.5	28.6	44.1	24.2	0.6	75.2	

* p<.05, ** p<0.01, *** p<0.001

나.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1>에는 작년 대비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1>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4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크게 나아짐	나아짐	동일	떨어짐	크게 떨어짐	동일 이상	p
합계		2.7	38.8	49.2	8.7	0.7	90.6	-
성별	남	2.6	40.0	48.6	8.0	0.8	91.2	0.9057
	여	2.8	37.5	49.8	9.3	0.6	90.0	
연령군별	20대	0.6	30.3	56.6	11.4	1.1	87.4	<.0001***
	30대	2.0	26.2	54.0	17.3	0.5	82.2	
	40대	2.3	41.0	49.1	6.8	0.9	92.3	
	50대	2.5	45.1	48.5	3.9	0.0	96.1	
	60대 이상	6.6	52.1	36.5	3.6	1.2	95.2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5	48.1	43.0	6.3	0.0	93.7	0.1718
	기능직	0.0	32.5	52.5	15.0	0.0	85.0	
	무직	8.0	38.7	45.3	6.7	1.3	92.0	
	사무관리직	1.5	33.1	60.0	5.4	0.0	94.6	
	사무직	2.1	40.9	47.3	9.3	0.4	90.3	
	자영업	2.4	42.2	47.0	8.4	0.0	91.6	
	전업주부	3.1	40.9	46.6	8.3	1.0	90.7	
	판매서비스직	1.8	42.1	43.9	10.5	1.8	87.7	
소득별	학생	2.6	23.7	57.9	13.2	2.6	84.2	0.0008***
	100만원미만	13.6	32.2	40.7	11.9	1.7	86.4	
	100만원대	1.6	31.5	55.9	9.5	1.6	89.0	
	200만원대	2.0	43.4	44.1	10.5	0.0	89.5	
	300만원대	3.7	34.6	52.7	8.5	0.5	91.0	
	400만원대	1.1	39.3	50.3	8.7	0.6	90.7	
학력별	500만원이상	1.5	43.7	47.5	6.5	0.8	92.7	0.0518
	중졸이하	6.9	52.1	38.4	2.7	0.0	97.3	
	고졸	3.0	36.8	50.5	8.9	0.9	90.2	
권역별	대졸이상	2.0	38.2	49.8	9.3	0.7	90.0	0.4528
	수도권	2.2	35.0	54.4	7.5	0.9	91.6	
	영남권	1.7	41.8	46.6	9.6	0.3	90.1	
	중부권	3.6	36.6	49.2	9.6	1.0	89.3	
지역별	호남권	4.4	43.5	43.5	8.1	0.6	91.3	0.4528

* p<.05, ** p<0.01, *** p<0.001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2>에는 올해 대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2〉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크게 나아질 것	나아질 것	동일할 것	떨어질 것	크게 떨어질 것	동일할 것 이상	p
합계		2.9	49.8	41.8	5.3	0.3	94.4	—
성별	남	2.8	52.6	39.6	4.6	0.4	95.0	0.4185
	여	3.0	46.8	44.1	5.9	0.2	93.9	
연령군별	20대	1.1	36.6	54.3	8.0	0.0	92.0	<.0001***
	30대	3.0	37.6	48.5	10.9	0.0	89.1	
	40대	3.2	52.3	40.5	3.6	0.5	95.9	
	50대	2.0	55.4	40.2	2.5	0.0	97.6	
	60대이상	5.4	68.3	24.0	1.2	1.2	97.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5	63.3	27.9	6.3	0.0	93.7	0.0274*
	기능직	5.0	37.5	47.5	10.0	0.0	90.0	
	무직	8.0	53.3	36.0	2.7	0.0	97.3	
	사무관리직	1.5	51.5	42.3	4.6	0.0	95.4	
	사무직	2.1	44.7	47.7	5.5	0.0	94.5	
	자영업	0.0	59.0	36.1	4.8	0.0	95.2	
	전업주부	3.6	54.4	36.3	5.2	0.5	94.3	
	판매서비스직	3.5	42.1	50.9	1.8	1.8	96.5	
소득별	학생	2.6	35.5	52.6	7.9	1.3	90.8	0.0410*
	100만원미만	10.2	50.9	32.2	5.1	1.7	93.2	
	100만원대	2.4	48.8	43.3	5.5	0.0	94.5	
	200만원대	4.0	51.3	40.8	4.0	0.0	96.1	
	300만원대	2.7	41.5	50.0	5.3	0.5	94.2	
	400만원대	1.6	48.6	42.1	7.7	0.0	92.4	
학력별	500만원이상	1.9	55.9	37.6	4.2	0.4	95.4	0.0419*
	중졸이하	8.2	57.5	31.5	2.7	0.0	97.3	
	고졸	3.9	47.8	43.0	5.0	0.3	94.7	
권역별	대졸이상	1.6	50.0	42.3	5.7	0.4	93.9	0.8684
	수도권	2.5	48.8	41.9	6.3	0.6	93.1	
	영남권	2.4	49.3	42.5	5.5	0.3	94.2	
	충부권	2.5	51.8	41.6	4.1	0.0	95.9	
	호남권	5.0	50.3	40.4	4.4	0.0	95.7	

* p<.05, ** p<0.01, *** p<0.001

라.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4-23>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안전체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7.7%로 5개 평가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얻었다. 하지만 작년 43.0%보다는 다소 향상된 결과이다. 식약처는 2013년 6월 소비자 포럼에서 학교 매점보다 학교앞 문방구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더 많이 판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문방구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2014년에는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다소 향상된 식품안전체감도가 산출되어 잘못된 정책의 폐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²⁾.

〈표 4-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3	103	357	446	61	463
비율	100.0	0.3	10.6	36.8	46.0	6.3	47.7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24>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 40대, 기능직, 100만원 미만, 중졸이하, 호남권 거주자의 특성을

2) 이승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제4회 소비자 포럼 개최-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성별, 학력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변수별 세부분석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3	10.6	36.8	46.0	6.3	47.7	—
성별	남	0.4	14.3	39.2	41.6	4.6	53.8	0.0001***
	여	0.2	6.8	34.3	50.6	8.1	41.3	
연령군별	20대	0.6	13.1	34.3	43.4	8.6	48.0	0.2375
	30대	0.0	8.9	31.7	52.0	7.4	40.6	
	40대	0.5	13.1	38.3	42.8	5.4	51.8	
	50대	0.5	7.4	43.1	46.1	2.9	51.0	
	60대 이상	0.0	10.8	35.9	45.5	7.8	46.7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12.7	38.0	44.3	3.8	51.9	0.2507
	기능직	0.0	10.0	52.5	35.0	2.5	62.5	
	무직	0.0	9.3	36.0	52.0	2.7	45.3	
	사무관리직	0.0	13.1	37.7	41.5	7.7	50.8	
	사무직	0.0	13.5	35.4	45.6	5.5	48.9	
	자영업	1.2	6.0	37.4	50.6	4.8	44.6	
	전업주부	0.5	4.7	36.3	49.7	8.8	41.5	
	판매서비스직	0.0	12.3	42.1	40.4	5.3	54.4	
	학생	0.0	15.8	27.6	46.1	10.5	43.4	
소득별	100만원 미만	1.7	15.3	40.7	35.6	6.8	57.6	0.6507
	100만원대	0.0	9.5	37.8	48.0	4.7	47.3	
	200만원대	0.0	12.5	34.2	46.7	6.6	46.7	
	300만원대	0.0	9.0	33.0	51.6	6.4	42.0	
	400만원대	0.6	9.3	43.7	39.9	6.6	53.6	
	500만원 이상	0.4	11.1	34.9	47.1	6.5	46.4	
학력별	중졸 이하	0.0	9.6	50.7	32.9	6.9	60.3	0.0346*
	고졸	0.3	9.8	38.0	48.7	3.3	48.1	
	대졸 이상	0.4	11.3	34.3	46.1	8.0	45.9	
권역별	수도권	0.3	10.0	32.2	50.0	7.5	42.5	0.4039
	영남권	0.3	9.3	36.6	46.9	6.9	46.2	
	충부권	0.0	12.2	40.6	41.1	6.1	52.8	
	호남권	0.6	12.4	41.6	42.2	3.1	54.7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4-25>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0%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관리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작년과 대동소이 했다.

<표 4-25>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64	100.0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259	30.0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48	28.7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123	14.2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109	12.6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61	7.1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59	6.8
기타	5	0.6

4) 불안 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26>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와 여자간에 학교주변 판매식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여성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경험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 반면, 남성은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4-26〉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28.7	14.2	7.1	30.0	6.8	12.6	0.6	—
성별	남	31.8	16.9	5.9	24.9	8.2	11.3	0.9	0.0017**
	여	25.7	11.6	8.2	34.9	5.5	13.9	0.2	
연령군별	20대	22.5	15.2	10.6	27.8	8.6	14.6	0.7	0.5120
	30대	25.0	16.9	6.5	33.2	7.1	10.3	1.1	
	40대	32.8	12.0	4.7	30.7	6.3	13.5	0.0	
	50대	33.2	11.8	5.4	30.0	5.9	13.9	0.0	
	60대 이상	28.7	16.0	9.3	27.3	6.7	10.7	1.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44.1	16.2	4.4	23.5	2.9	8.8	0.0	0.2591
	기능직	30.6	11.1	8.3	30.6	8.3	11.1	0.0	
	무직	29.4	14.7	10.3	26.5	7.4	10.3	1.5	
	사무관리직	31.0	15.0	4.4	29.2	3.5	16.8	0.0	
	사무직	26.3	14.6	4.4	35.1	8.8	10.2	0.5	
	자영업	33.8	15.6	7.8	26.0	3.9	10.4	2.6	
	전업주부	25.0	9.2	9.2	32.1	8.2	16.3	0.0	
	판매서비스직	24.5	18.4	6.1	32.7	4.1	14.3	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18.4	12.2	8.2	40.8	8.2	12.2	0.0	0.2633
	100만원대	22.6	17.4	12.2	24.4	11.3	12.2	0.0	
	200만원대	23.9	17.9	9.0	29.1	6.7	12.7	0.8	
	300만원대	29.4	12.9	6.5	34.1	6.5	10.6	0.0	
	400만원대	32.1	10.3	4.9	30.3	7.9	13.3	1.2	
	500만원 이상	33.8	14.7	5.2	27.7	3.9	13.9	0.9	
학력별	중졸 이하	19.7	21.2	9.1	33.3	7.6	9.1	0.0	0.2868
	고졸	25.4	13.5	8.6	31.7	8.3	12.2	0.3	
	대졸 이상	31.9	13.7	5.9	28.5	5.9	13.3	0.8	
권역별	수도권	32.1	17.4	8.0	26.1	4.2	11.5	0.7	0.2040
	영남권	28.0	10.2	8.0	34.5	6.4	12.5	0.4	
	충부권	29.5	12.7	4.6	28.3	9.8	14.5	0.6	
	호남권	22.1	17.1	6.4	31.4	9.3	12.9	0.7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이유 7. 기타

* p<.05, ** p<0.01, *** p<0.001

마. 수입식품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4-27>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2.1%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013년 52.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4-27〉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3	104	398	408	57	505
비율	100.0	0.3	10.7	41.0	42.1	5.9	52.1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28>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변수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 40대, 무직, 100만원대,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만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성별과 연령군별, 직업별에서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20대, 30대, 40대, 60대 이상은 5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50대에서만 46.6%로 낮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39.9%만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무직은 61.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직군으로 분석되었다.

〈표 4-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3	10.7	41.0	42.1	5.9	52.1	—
성별	남	0.4	14.7	45.4	35.7	3.8	60.4	<.0001***
	여	0.2	6.6	36.4	48.7	8.1	43.2	
연령군별	20대	0.6	19.4	34.3	38.3	7.4	54.3	0.0289*
	30대	0.5	7.9	44.6	42.1	5.0	53.0	
	40대	0.5	10.8	43.7	37.8	7.2	55.0	
	50대	0.0	6.9	39.7	47.6	5.9	46.6	
	60대 이상	0.0	9.6	41.9	44.9	3.6	51.5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6.3	41.8	45.6	5.1	49.4	0.0002***
	기능직	0.0	12.5	37.5	37.5	12.5	50.0	
	무직	0.0	13.3	48.0	34.7	4.0	61.3	
	사무관리직	0.8	10.0	40.8	43.9	4.6	51.5	
	사무직	0.4	14.8	43.9	37.6	3.4	59.1	
	자영업	0.0	4.8	53.0	39.8	2.4	57.8	
	전업주부	0.0	4.7	35.2	51.3	8.8	39.9	
	판매서비스직	0.0	8.8	45.6	42.1	3.5	54.4	
	학생	0.0	23.7	25.0	38.2	13.2	48.7	
소득별	100만원 미만	0.0	13.6	40.7	42.4	3.4	54.2	0.7196
	100만원대	0.0	9.5	44.9	40.2	5.5	54.3	
	200만원대	0.0	10.5	33.6	50.7	5.3	44.1	
	300만원대	0.5	8.5	44.7	38.8	7.5	53.7	
	400만원대	0.0	9.3	43.2	41.0	6.6	52.5	
	500만원 이상	0.8	13.4	39.5	41.0	5.4	53.6	
학력별	중졸 이하	0.0	11.0	48.0	35.6	5.5	58.9	0.8463
	고졸	0.0	11.3	40.7	42.1	5.9	51.9	
	대졸 이상	0.5	10.4	40.4	42.9	5.9	51.3	
권역별	수도권	0.3	13.1	35.6	45.3	5.6	49.1	0.5326
	영남권	0.7	8.6	43.8	40.8	6.2	53.1	
	충부권	0.0	11.2	43.2	40.6	5.1	54.3	
	호남권	0.0	9.3	44.1	39.8	6.8	53.4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4-29>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9.6%,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8.2%로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63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255	29.6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243	28.2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60	18.5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118	13.7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77	8.9
기타	10	1.2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4-30>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군별로는 20대와 30대의 의견이 유사하였으며, 40대와 50대의 의견이 유사하였다. 2~30대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지만, 4~50대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과 함께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소득별로는 200만원대에서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정부의 관리미흡보다는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많았다.

〈표 4-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8.5	29.5	8.9	13.7	28.2	1.2	—
성별	남	21.5	30.0	6.4	12.5	28.4	1.2	0.0549
	여	15.7	29.1	11.4	14.8	28.0	1.1	
연령군별	20대	14.3	30.7	11.4	12.9	28.6	2.1	0.0451*
	30대	11.4	34.1	10.3	16.2	25.4	2.7	
	40대	24.4	26.9	6.1	14.7	27.9	0.0	
	50대	21.1	25.8	6.8	13.2	32.1	1.1	
	60대 이상	20.5	31.1	11.3	10.6	26.5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8.8	26.0	4.1	12.3	27.4	1.4	0.0792
	기능직	22.9	20.0	5.7	20.0	31.4	0.0	
	무직	26.2	23.1	4.6	15.4	29.2	1.5	
	사무관리직	20.7	29.3	5.2	14.7	29.3	0.9	
	사무직	19.4	31.3	8.0	11.9	27.9	1.5	
	자영업	19.0	32.9	6.3	11.4	27.9	2.5	
	전업주부	13.6	27.2	15.8	15.2	27.7	0.5	
	판매서비스직	13.5	26.9	19.2	15.4	25.0	0.0	
소득별	학생	6.9	46.6	5.2	10.3	29.3	1.7	0.0122*
	100만원 미만	7.8	23.5	9.8	23.5	35.3	0.0	
	100만원대	18.3	26.1	14.8	10.4	29.6	0.9	
	200만원대	11.8	39.0	10.3	12.5	24.3	2.2	
	300만원대	18.1	29.2	9.9	14.0	28.1	0.6	
	400만원대	16.9	26.5	7.8	12.7	34.3	1.8	
학력별	500만원 이상	26.8	29.5	4.9	14.3	23.7	0.9	0.0155*
	중졸이하	9.2	32.3	20.0	15.4	23.1	0.0	
	고졸	18.1	30.1	10.4	12.7	28.4	0.3	
권역별	대졸 이상	20.0	28.9	6.6	14.0	28.7	1.8	0.4498
	수도권	22.0	29.2	7.9	14.1	25.6	1.1	
	영남권	15.1	32.5	7.2	16.2	27.6	1.5	
	충부권	20.0	29.1	10.9	9.1	29.7	1.1	
	호남권	16.4	25.3	11.6	13.7	32.2	0.7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바. 외식

1) 안전체감도

<표 4-31>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69.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 결과와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1>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5	140	532	272	21	677
비율	100.0	0.5	14.4	54.9	28.0	2.2	69.8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32>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 40대, 기능직,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를 특성을 갖는 조사대상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17.5% 이상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직, 무직, 사무직의 경우 70%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80%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고졸 및 대졸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3.1%로 타 권역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4-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5	14.4	54.9	28.0	2.2	69.8	—
성별	남	0.6	21.9	55.8	19.9	1.8	78.3	<.0001***
	여	0.4	6.6	53.8	36.7	2.5	60.8	
연령군별	20대	1.1	17.1	48.6	29.7	3.4	66.9	0.2500
	30대	0.5	12.4	54.5	32.2	0.5	67.3	
	40대	0.5	17.1	53.2	27.0	2.3	70.7	
	50대	0.5	13.7	54.4	29.4	2.0	68.6	
	60대 이상	0.0	11.4	64.7	21.0	3.0	76.1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0.0	17.7	48.1	31.7	2.5	65.8	0.0060**
	기능직	0.0	12.5	72.5	15.0	0.0	85.0	
	무직	0.0	18.7	58.7	21.3	1.3	77.3	
	사무관리직	0.8	16.2	46.9	33.9	2.3	63.8	
	사무직	0.4	16.9	54.9	27.4	0.4	72.2	
	자영업	1.2	10.8	57.8	28.9	1.2	69.9	
	전업주부	0.0	5.7	63.2	28.5	2.6	68.9	
	판매서비스직	1.8	15.8	50.9	28.1	3.5	68.4	
소득별	학생	1.3	22.4	40.8	27.6	7.9	64.5	0.2799
	100만원 미만	0.0	13.6	67.8	18.6	0.0	81.4	
	100만원대	0.8	11.8	58.3	25.2	3.9	70.9	
	200만원대	0.0	13.2	58.6	25.7	2.6	71.7	
	300만원대	0.0	12.8	55.3	30.9	1.1	68.1	
	400만원대	1.6	14.2	49.2	32.2	2.7	65.0	
학력별	500만원 이상	0.4	18.0	51.7	28.0	1.9	70.1	0.0565
	중졸 이하	0.0	5.5	75.3	17.8	1.4	80.8	
	고졸	0.6	15.7	53.7	27.3	2.7	70.0	
권역별	대졸이상	0.5	14.8	52.9	29.8	2.0	68.2	0.1457
	수도권	0.6	13.4	49.1	33.1	3.8	63.1	
	영남권	0.3	15.1	56.9	26.4	1.4	72.3	
	충부권	1.0	13.2	60.9	23.4	1.5	75.1	
지역별	호남권	0.0	16.8	55.3	26.7	1.2	72.1	0.1457
	호남권	0.0	16.8	55.3	26.7	1.2	72.1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4-33>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41.7%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28.1%,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12.9%,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10.2%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은 6.7%로 나타났다.

<표 4-33>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25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344	41.7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232	28.1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106	12.9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84	10.2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55	6.7
기타	4	0.5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4-34>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 반대로 판매서비스직은 해당 이유보다는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성별, 연령군별, 소득별, 학력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1.7	12.8	28.1	10.2	6.7	0.5	—
성별	남	41.7	13.5	28.2	8.8	7.3	0.5	0.8548
	여	41.7	12.3	28.0	11.4	6.2	0.5	
연령군별	20대	47.6	11.9	21.0	9.1	9.8	0.7	0.7797
	30대	41.5	11.4	27.3	12.5	6.8	0.6	
	40대	41.5	10.4	32.2	9.8	6.0	0.0	
	50대	40.0	13.7	29.7	10.3	5.7	0.6	
	60대 이상	38.5	17.6	29.1	8.8	5.4	0.7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49.2	12.3	27.7	6.2	1.5	3.1	0.0228*
	기능직	48.6	5.7	25.7	14.3	5.7	0.0	
	무직	44.3	14.8	24.6	9.8	4.9	1.6	
	사무관리직	40.7	10.2	33.3	12.0	3.7	0.0	
	사무직	42.9	10.7	25.5	13.3	7.7	0.0	
	자영업	37.0	13.7	32.9	8.2	8.2	0.0	
	전업주부	39.0	15.9	31.3	8.2	5.0	0.6	
	판매서비스직	21.3	23.4	29.8	12.8	12.8	0.0	
소득별	학생	55.2	8.6	15.5	5.2	15.5	0.0	0.6970
	100만원 미만	27.5	15.7	41.2	9.8	5.9	0.0	
	100만원대	42.3	14.4	27.0	9.0	7.2	0.0	
	200만원대	44.7	15.2	21.2	11.4	6.1	1.5	
	300만원대	39.6	12.2	32.9	8.5	6.1	0.6	
	400만원대	43.5	11.7	23.4	11.7	9.1	0.7	
학력별	500만원 이상	43.2	11.3	29.6	10.3	5.6	0.0	0.3025
	중졸 이하	37.7	10.1	39.1	4.4	8.7	0.0	
	고졸	43.6	15.3	24.1	9.6	7.1	0.4	
권역별	대졸 이상	41.1	11.8	28.9	11.4	6.1	0.6	0.0544
	수도권	41.1	13.8	27.6	10.9	5.8	0.7	
	영남권	43.3	10.5	27.5	13.0	4.9	0.8	
	충부권	42.6	17.2	30.2	3.6	6.5	0.0	
	호남권	38.8	9.7	27.6	11.9	11.9	0.0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사. 단체급식의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4-35>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0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총 56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7%가 보통 이상 응답하여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약간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4-35〉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560	10	178	236	122	14	424
비율	100.0	1.8	31.8	42.1	21.8	2.5	75.7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36>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로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60대 이상, 공무원/전문직,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호남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타 계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직업별을 제외하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영역의 안전체감도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체급식에서만 남녀의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공무원/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무직의 경우 80%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기능직의 경우 66.7%만이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직군으로 나타났다.

〈표 4-36〉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1.8	31.8	42.1	21.8	2.5	75.7	—
성별	남	1.8	32.0	42.7	20.7	2.7	76.5	0.9552
	여	1.7	31.5	41.4	23.3	2.2	74.6	
연령군별	20대	2.5	28.1	43.0	21.5	5.0	73.6	0.1302
	30대	0.0	28.5	41.5	27.7	2.3	70.0	
	40대	0.8	33.6	39.7	22.1	3.8	74.0	
	50대	3.0	31.0	47.0	19.0	0.0	81.0	
	60대 이상	3.9	41.0	39.7	15.4	0.0	84.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5.1	52.5	27.1	13.6	1.7	84.7	<.0001***
	기능직	0.0	25.9	40.7	33.3	0.0	66.7	
	무직	0.0	36.6	43.9	17.1	2.4	80.5	
	사무관리직	0.0	30.1	43.4	26.5	0.0	73.5	
	사무직	1.2	33.5	39.6	22.6	3.1	74.4	
	자영업	2.6	10.3	61.5	23.1	2.6	74.4	
	전업주부	1.6	31.8	39.7	27.0	0.0	73.0	
	판매서비스직	10.0	10.0	63.3	16.7	0.0	83.3	
	학생	0.0	33.3	40.7	14.8	11.1	74.1	
소득별	100만원 미만	3.7	29.6	51.9	11.1	3.7	85.2	0.4324
	100만원대	4.4	30.9	35.3	25.0	4.4	70.6	
	200만원대	2.4	27.4	44.1	23.8	2.4	73.8	
	300만원대	1.0	26.5	46.9	21.4	4.1	74.5	
	400만원대	0.0	30.9	47.3	19.1	2.7	78.2	
	500만원 이상	1.7	38.2	36.4	23.1	0.6	76.3	
학력별	중졸 이하	0.0	29.6	48.2	22.2	0.0	77.8	0.8035
	고졸	1.7	29.9	44.3	20.1	4.0	75.9	
	대졸 이상	2.0	32.9	40.7	22.6	2.0	75.5	
권역별	수도권	1.7	31.4	43.4	21.1	2.3	76.6	0.3787
	영남권	1.1	27.2	42.4	26.6	2.7	70.7	
	충부권	3.5	36.0	39.5	16.7	4.4	78.9	
	호남권	1.2	36.8	42.5	19.5	0.0	80.5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4-37>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보통이하로 응답한 총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21.1%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언론의 불안감 보도 및 교육/홍보부족을 선택한 대상자는 각각 6.5%와 5.4%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4-37〉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370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41	38.1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78	21.1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71	19.2
정부의 관리 미흡	31	8.4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24	6.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20	5.4
기타	5	1.4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4-38>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녀 모두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으나, 그 비율은 남성에서 약 13.7%정도 더 높았다. 대신 여성은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발생을 각각 6.4%, 7.4%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연령군별, 직업별, 소득별, 권역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4-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8.1	8.4	6.5	19.2	5.4	21.1	1.4	—
성별	남	43.8	9.2	4.2	16.1	6.9	18.4	1.4	0.0148*
	여	30.1	7.2	9.8	23.5	3.3	24.8	1.3	
연령군별	20대	28.6	11.9	7.1	27.4	6.0	16.7	2.4	0.4951
	30대	40.9	7.5	7.5	20.4	4.3	17.2	2.2	
	40대	40.7	8.1	3.5	15.1	7.0	25.6	0.0	
	50대	44.6	9.2	4.6	10.8	6.2	23.1	1.5	
	60대 이상	35.7	2.4	11.9	21.4	2.4	26.2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40.0	0.0	8.0	32.0	8.0	12.0	0.0	0.2073
	기능직	40.0	5.0	10.0	10.0	15.0	15.0	5.0	
	무직	34.6	7.7	7.7	23.1	7.7	19.2	0.0	
	사무관리직	37.9	10.3	0.0	19.0	6.9	25.9	0.0	
	사무직	39.3	9.4	3.7	17.8	5.6	23.4	0.9	
	자영업	50.0	8.8	14.7	5.9	0.0	20.6	0.0	
	전업주부	31.7	4.9	14.6	17.1	0.0	26.8	4.9	
	판매서비스직	21.7	17.4	4.4	34.8	0.0	21.7	0.0	
소득별	학생	41.7	8.3	5.6	22.2	8.3	11.1	2.8	0.4963
	100만원 미만	22.2	22.2	22.2	11.1	11.1	11.1	0.0	
	100만원대	41.9	9.3	7.0	16.3	4.7	18.6	2.3	
	200만원대	40.7	5.1	5.1	22.0	5.1	20.3	1.7	
	300만원대	38.6	11.4	5.7	15.7	5.7	20.0	2.9	
	400만원대	46.1	4.0	7.9	18.4	2.6	21.1	0.0	
학력별	500만원 이상	31.7	8.7	3.9	23.1	6.7	25.0	1.0	0.0779
	중졸 이하	47.1	11.8	23.5	0.0	0.0	17.7	0.0	
	고졸	38.7	8.4	9.2	19.3	6.7	16.8	0.8	
권역별	대졸 이상	37.2	8.1	3.9	20.5	5.1	23.5	1.7	0.5721
	수도권	34.5	10.3	3.5	25.9	4.3	19.8	1.7	
	영남권	41.7	7.6	7.6	12.9	6.1	22.7	1.5	
	중부권	39.7	4.4	7.4	23.5	7.4	16.2	1.5	
	호남권	35.2	11.1	9.3	14.8	3.7	25.9	0.0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이유 7. 기타

* p<.05, ** p<0.01, *** p<0.001

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4-39>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0명의 조사대상자중 77.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안전체감도인 74.4%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2013년 79.4%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39〉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3	192	557	204	14	752
비율	100.0	0.3	19.8	57.4	21.0	1.4	77.5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4-40>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20대, 공무원, 100만원대,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자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전문직과 자영업, 기능직에서 80%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86.3%를 나타내 고졸 및 대졸 이상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군별 및 권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3	19.8	57.4	21.0	1.4	77.5	—
성별	남	0.6	25.7	56.0	17.1	0.6	82.3	<.0001***
	여	0.0	13.6	58.9	25.2	2.3	72.5	
연령군별	20대	0.0	21.7	58.9	18.3	1.1	80.6	0.1789
	30대	0.0	21.3	51.5	26.7	0.5	72.8	
	40대	0.9	22.5	53.6	20.3	2.7	77.0	
	50대	0.5	18.1	59.8	20.6	1.0	78.4	
	60대 이상	0.0	14.4	65.3	18.6	1.8	79.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31.7	54.4	11.4	1.3	87.4	0.0331*
	기능직	0.0	17.5	62.5	20.0	0.0	80.0	
	무직	0.0	18.7	57.3	24.0	0.0	76.0	
	사무관리직	0.8	27.7	49.2	21.5	0.8	77.7	
	사무직	0.0	21.9	54.9	21.9	1.3	76.8	
	자영업	1.2	12.1	68.7	18.1	0.0	81.9	
	전업주부	0.0	11.4	62.2	24.4	2.1	73.6	
	판매서비스직	0.0	14.0	59.7	22.8	3.5	73.7	
	학생	0.0	23.7	54.0	18.4	4.0	77.6	
소득별	100만원 미만	1.7	11.9	61.0	22.0	3.4	74.6	0.0534
	100만원대	0.0	13.4	66.1	18.9	1.6	79.5	
	200만원대	0.0	21.1	55.3	23.7	0.0	76.3	
	300만원대	0.0	16.0	62.2	20.7	1.1	78.2	
	400만원대	0.6	20.8	54.1	24.0	0.6	75.4	
	500만원 이상	0.4	26.1	52.5	18.4	2.7	78.9	
학력별	중졸 이하	0.0	8.2	78.1	13.7	0.0	86.3	0.0531
	고졸	0.3	20.2	56.7	21.7	1.2	77.2	
	대졸 이상	0.4	21.1	55.2	21.6	1.8	76.6	
권역별	수도권	0.3	21.9	53.8	21.3	2.8	75.9	0.4590
	영남권	0.3	17.8	60.3	20.6	1.0	78.4	
	충부권	0.0	19.8	60.4	19.8	0.0	80.2	
	호남권	0.6	19.3	55.9	23.0	1.2	75.8	

* p<.05, ** p<0.01, *** p<0.001

3) 불안이유

<표 4-41>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와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관리 미흡이 모두 25%이상을 나타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저가의 원재료 사용 및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41>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775	100.0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230	29.7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1	25.9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197	25.4
저가의 원재료 사용	93	12.0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52	6.7
기타	2	0.3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4-42>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공무원/전문직의 경우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정부의 단속,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직업군은 판매서비스직과 학생이었다. 제조/유통업체의 식품관리 소홀을 주된 이유로 지정한 직업군은 기능직과 사무직, 전업주부 등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가의 원재료 사용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권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2〉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6.7	25.9	25.4	29.7	12.0	0.3	—
성별	남	6.8	27.3	27.3	29.7	8.5	0.5	0.0524
	여	6.6	24.8	23.8	29.7	15.2	0.0	
연령군별	20대	4.4	16.8	38.0	29.2	11.7	0.0	0.0699
	30대	6.9	23.9	28.9	30.8	8.8	0.6	
	40대	5.3	30.0	20.0	28.8	15.3	0.6	
	50대	7.2	29.5	21.1	30.7	11.5	0.0	
	60대 이상	9.8	28.0	21.0	28.7	12.6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1.3	39.6	18.9	22.6	7.6	0.0	<.0001***
	기능직	3.0	21.2	24.2	36.4	9.1	6.1	
	무직	8.2	24.6	26.2	29.5	11.5	0.0	
	사무관리직	9.7	30.1	26.9	21.5	11.8	0.0	
	사무직	6.0	20.5	25.4	35.7	12.4	0.0	
	자영업	6.9	31.9	29.2	22.2	9.7	0.0	
	전업주부	7.0	28.1	17.5	32.8	14.6	0.0	
	판매서비스직	4.1	18.4	34.7	28.6	14.3	0.0	
	학생	1.7	20.7	39.7	27.6	10.3	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3.9	11.8	31.4	39.2	13.7	0.0	0.6289
	100만원대	5.5	23.6	25.5	31.8	12.7	0.9	
	200만원대	9.2	25.8	28.3	23.3	13.3	0.0	
	300만원대	5.7	26.0	26.6	28.5	12.7	0.6	
	400만원대	6.3	27.1	20.1	36.1	10.4	0.0	
	500만원 이상	7.8	30.2	25.0	26.0	10.9	0.0	
학력별	중졸 이하	6.0	14.9	28.4	34.3	16.4	0.0	0.2144
	고졸	4.9	26.5	23.9	31.0	13.1	0.8	
	대졸 이상	8.0	27.3	25.9	28.2	10.7	0.0	
권역별	수도권	8.8	28.5	26.5	24.9	11.2	0.0	0.1956
	영남권	5.4	27.2	22.6	34.7	9.6	0.4	
	충부권	5.7	26.0	27.9	28.5	11.4	0.6	
	호남권	6.2	18.6	25.6	31.0	18.6	0.0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이유 2.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자. 정책현안

1) 현안

<표 4-43>에는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43.2%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31.1%의 대상자가 선택하여 그 뒤를 이었다.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와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각각 10.9%, 10.1%를 차지하였으며,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4-4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19	43.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302	31.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106	10.9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98	10.1
정부 정책 홍보 강화	33	3.4
기타	12	1.2

2) 현안에 관한 세부분석

<표 4-44>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더 중요한 현안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 강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응답하였으나 중졸 이하에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표 4-44〉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10.9	31.1	43.2	3.4	10.1	1.2	—
성별	남	11.0	28.5	46.4	3.0	9.0	2.0	0.0474*
	여	10.8	33.9	39.8	3.8	11.2	0.4	
연령군별	20대	8.6	38.3	41.7	2.9	8.0	0.6	0.1369
	30대	9.9	35.6	43.6	2.0	7.4	1.5	
	40대	14.4	26.6	43.7	3.2	11.7	0.5	
	50대	9.3	30.9	40.7	4.9	11.3	2.9	
	60대이상	12.0	24.6	46.7	4.2	12.0	0.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1.4	29.1	45.6	1.3	10.1	2.5	0.2431
	기능직	5.0	37.5	50.0	5.0	2.5	0.0	
	무직	16.0	25.3	44.0	5.3	8.0	1.3	
	사무관리직	12.3	23.1	46.9	1.5	13.1	3.1	
	사무직	13.5	27.4	46.4	2.5	9.3	0.8	
	자영업	13.3	30.1	38.6	4.8	12.1	1.2	
	전업주부	7.3	38.9	37.3	4.2	12.4	0.0	
	판매서비스직	5.3	33.3	43.9	7.0	8.8	1.8	
소득별	학생	9.2	40.8	39.5	2.6	6.6	1.3	0.2619
	100만원미만	17.0	28.8	37.3	5.1	10.2	1.7	
	100만원대	7.1	23.6	50.4	7.1	11.8	0.0	
	200만원대	11.2	29.0	45.4	2.6	10.5	1.3	
	300만원대	9.6	34.6	40.4	4.3	10.1	1.1	
	400만원대	12.0	36.1	37.2	3.8	8.7	2.2	
학력별	500만원이상	11.5	30.7	46.0	0.8	10.0	1.2	<.0001***
	중졸이하	20.6	34.3	15.1	9.6	20.6	0.0	
	고졸	7.1	32.3	46.3	4.8	9.5	0.0	
권역별	대졸이상	12.0	30.0	45.0	1.8	9.1	2.1	0.5189
	수도권	12.5	30.9	44.7	1.9	8.1	1.9	
	영남권	8.6	30.1	45.9	4.1	9.9	1.4	
	중부권	11.7	29.4	41.1	4.6	12.7	0.5	
	호남권	11.2	35.4	37.9	3.7	11.2	0.6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현안 6. 기타

* p<.05, ** p<0.01, *** p<0.001

2. 부가 조사

가. 불량 식품 근절

1) 인지도

<표 4-45>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76.9%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 68.3%에 비해 높게 조사되어 정책의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4-45〉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0	32	304	410	204	20	746
비율	100.0	3.3	31.3	42.3	21.0	2.1	76.9

2) 인지도 세부분석

<표 4-46>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50대, 자영업, 500만원대 이상, 대졸이상, 중부권 거주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40대 이상이 2-30대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학생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이 400만원 미만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으며 (80% 이상), 학력별로는 고졸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권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46〉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p
합계		3.3	31.3	42.3	21.0	2.1	76.9	—
성별	남	3.2	34.3	41.6	18.9	2.0	79.1	0.2532
	여	3.4	28.2	43.0	23.3	2.1	74.6	
연령군별	20대	1.7	25.7	34.9	33.1	4.6	62.3	<.0001***
	30대	2.5	26.7	39.6	28.2	3.0	68.8	
	40대	3.6	32.0	45.1	17.6	1.8	80.6	
	50대	4.9	37.3	44.1	13.7	0.0	86.3	
	60대 이상	3.6	34.7	47.3	13.2	1.2	85.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7.6	50.6	22.8	17.7	1.3	81.0	<.0001***
	기능직	0.0	22.5	52.5	22.5	2.5	75.0	
	무직	1.3	28.0	53.3	17.3	0.0	82.7	
	사무관리직	5.4	38.5	37.7	16.2	2.3	81.5	
	사무직	2.5	32.1	45.2	17.7	2.5	79.8	
	자영업	2.4	37.4	49.4	10.8	0.0	89.2	
	전업주부	3.6	24.9	44.6	25.4	1.6	73.1	
	판매서비스직	3.5	17.5	47.4	28.1	3.5	68.4	
소득별	학생	1.3	25.0	27.6	40.8	5.3	54.0	0.0018**
	100만원 미만	0.0	17.0	54.2	23.7	5.1	71.2	
	100만원대	3.2	26.8	45.7	22.8	1.6	75.6	
	200만원대	2.6	32.2	42.8	22.4	0.0	77.6	
	300만원대	2.1	23.4	44.7	25.5	4.3	70.2	
	400만원대	3.3	35.0	42.1	19.1	0.6	80.3	
학력별	500만원 이상	5.4	39.5	36.0	16.9	2.3	80.8	0.0006***
	중졸 이하	1.4	13.7	61.6	20.6	2.7	76.7	
	고졸	2.4	27.3	43.6	24.6	2.1	73.3	
권역별	대졸 이상	4.1	36.1	38.9	18.9	2.0	79.1	0.8677
	수도권	3.4	32.5	40.9	20.3	2.8	76.9	
	영남권	3.1	29.5	43.8	22.6	1.0	76.4	
	충부권	2.5	31.0	44.2	19.3	3.1	77.7	
		호남권	4.4	32.9	39.8	21.7	77.0	

* p<.05, ** p<0.01, *** p<0.001

3)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4-47>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3.7%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1.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2013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위와 3위 순서과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24	43.7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5	21.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87	19.3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89	9.2
정부의 단속 소홀	57	5.9
기타	8	0.8

4)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4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50대 이상에서 더욱 강했다 (50% 이상). 직업별로는 자영업, 무직에서,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해당사유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소득별, 권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48〉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3.7	19.3	21.1	9.2	5.9	0.8	—
성별	남	44.8	20.3	20.7	7.0	6.2	1.0	0.2478
	여	42.6	18.2	21.6	11.4	5.5	0.6	
연령군별	20대	34.3	20.0	21.1	18.3	4.6	1.7	<.0001***
	30대	38.1	15.4	30.7	8.9	5.9	1.0	
	40대	45.1	20.3	18.0	10.4	5.4	0.9	
	50대	50.0	21.1	19.6	3.9	5.4	0.0	
	60대 이상	50.9	19.8	15.6	4.8	8.4	0.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32.9	27.9	29.1	5.1	1.3	3.8	0.0008***
	기능직	40.0	20.0	17.5	12.5	10.0	0.0	
	무직	52.0	17.3	13.3	5.3	9.3	2.7	
	사무관리직	49.2	19.2	20.8	9.2	0.8	0.8	
	사무직	35.4	21.9	24.5	11.8	5.9	0.4	
	자영업	57.8	15.7	15.7	6.0	4.8	0.0	
	전업주부	46.6	17.1	22.8	6.2	7.3	0.0	
	판매서비스직	40.4	14.0	21.1	10.5	14.0	0.0	
소득별	학생	44.7	17.1	14.5	17.1	5.3	1.3	0.1861
	100만원 미만	45.8	17.0	13.6	10.2	13.6	0.0	
	100만원대	43.3	15.8	18.9	10.2	10.2	1.6	
	200만원대	45.4	17.8	20.4	12.5	3.3	0.7	
	300만원대	41.0	25.0	21.8	5.9	6.4	0.0	
	400만원대	45.9	16.9	21.9	8.7	4.9	1.6	
학력별	500만원 이상	42.9	19.9	23.4	9.2	3.8	0.8	0.0014**
	중졸 이하	43.8	17.8	20.6	5.5	12.3	0.0	
	고졸	50.7	16.6	15.1	9.8	7.1	0.6	
권역별	대졸 이상	39.5	21.1	24.8	9.3	4.3	1.1	0.6029
	수도권	41.9	20.9	18.8	11.6	5.3	1.6	
	영남권	43.8	18.2	23.6	8.6	5.5	0.3	
	중부권	47.2	17.3	21.8	6.1	6.6	1.0	
	호남권	42.9	20.5	20.5	9.3	6.8	0.0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나. 식품안전인식

1) 영향요인

<표 4-49>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방송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가 62.4%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본인 및 가족의 경험 등이 그 뒤를 이어 2013년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표 4-49〉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0	100.0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605	62.4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30	13.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07	11.0
막연한 불안감	68	7.0
주변 사람의 의견	30	3.1
정부의 보도 자료	27	2.8
기타	3	0.3

2) 영향요인에 관한 세부분석

<표 4-50>에는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송 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 및 가족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0〉 조사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p
합계		7.0	11.0	13.4	62.4	3.1	2.8	0.3	—
성별	남	7.0	11.0	16.7	58.8	4.0	2.2	0.2	0.0235*
	여	7.0	11.0	10.0	66.1	2.1	3.4	0.4	
연령군별	20대	6.3	16.6	11.4	58.9	5.7	1.1	0.0	0.0329*
	30대	5.9	12.4	12.4	62.9	3.0	2.5	1.0	
	40대	10.4	10.4	13.1	62.2	2.3	1.8	0.0	
	50대	5.9	8.8	10.8	66.2	2.9	4.9	0.5	
	60대 이상	6.0	7.2	20.4	61.1	1.8	3.6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8.9	8.9	20.3	57.0	3.8	1.3	0.0	0.2071
	기능직	2.5	7.5	25.0	57.5	5.0	2.5	0.0	
	무직	1.3	12.0	20.0	56.0	6.7	4.0	0.0	
	사무관리직	9.2	13.1	12.3	61.5	0.8	3.1	0.0	
	사무직	6.8	13.9	9.7	64.1	2.5	2.1	0.8	
	자영업	8.4	14.5	9.6	57.8	4.8	4.8	0.0	
	전업주부	6.7	6.7	11.4	69.4	2.1	3.6	0.0	
	판매서비스직	7.0	5.3	12.3	70.2	1.8	1.8	1.8	
소득별	학생	9.2	13.2	17.1	54.0	5.3	1.3	0.0	0.1131
	100만원 미만	5.1	6.8	3.4	78.0	5.1	1.7	0.0	
	100만원대	5.5	13.4	18.1	55.1	2.4	5.5	0.0	
	200만원대	5.3	11.2	13.2	62.5	2.6	5.3	0.0	
	300만원대	7.5	14.9	11.2	62.2	3.7	0.0	0.5	
	400만원대	10.4	8.2	14.2	61.2	3.8	2.2	0.0	
학력별	500만원 이상	6.5	10.0	14.6	63.2	2.3	2.7	0.8	0.2194
	중졸 이하	6.9	5.5	12.3	64.4	2.7	8.2	0.0	
	고졸	6.2	11.3	13.4	61.4	4.5	3.0	0.3	
권역별	대졸 이상	7.5	11.6	13.6	62.7	2.3	2.0	0.4	0.8174
	수도권	8.4	8.8	13.1	64.1	2.8	2.5	0.3	
	영남권	5.8	12.7	14.0	61.3	3.1	3.1	0.0	
	중부권	6.6	9.6	14.2	65.0	2.0	2.0	0.5	
권역별	호남권	6.8	14.3	11.8	57.8	5.0	3.7	0.6	

요인 1. 막연한 불안감

요인 2.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요인 3.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요인 4.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요인 5. 주변 사람의 의견

요인 6. 정부의 보도 자료

요인 7. 기타

* p<.05, ** p<0.01, *** p<0.00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72.1%에 비해 2.3%포인트 안전체감도가 상승하였다. 여전히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제조·유통 영역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4-5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1.1	24.1	49.2	24.4	1.1	74.4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100.0	0.3	10.6	36.8	46.0	6.3	47.7
수입식품 안전	100.0	0.3	10.7	41.0	42.1	5.9	52.1
외식 안전	100.0	0.5	14.4	54.9	28.0	2.2	69.8
단체급식 안전	100.0	1.8	31.8	42.1	21.8	2.5	75.7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00.0	0.3	19.8	57.4	21.0	1.4	77.5

나. 안전체감도가 작년에 비해 올해 높아진 이유로는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을 국민들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진 이유로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적절과 정부의 점검/단속 불충분등이 지적되었다.

다. 남자, 40대 이상, 공무원/전문직, 1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 소득, 중졸 이하 조사대상계층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자, 20~30대, 300만원대 소득, 수도권 조사대상계층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라.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중졸이하에서 고졸 이상보다 안전체감도가 낮은 것은 작년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올해 결과에서의 특이점은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40대를 기준으로 그 아래 연령층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40대 이상 연령층과 차별화 되었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3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V자 형태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마.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방송이었고 특히 여자의 이용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 연령층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가족의 권유에 의존해서 식품안전정보를 구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가. 향후 통계청 지적대로 식품패널 선정이 통계학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이메일 모집으로 선정된 패널을 통계청 패널 모집단을 활용하여 확률비례로 재 구축함이 필요하다.

나. 2014년에는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이 채택되어 조사에 활용되었다. 양자간 소통적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맞춤형 조사방법을 파악하여 활용하면 조사성공률도 높힐 수 있고, 조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명년에는 부가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겠다. 조사예산의 한계로 부가조사가 2013년 개발된 조사항목 그대로 2014년도 실시되어 식품안전과 관련한 세부사실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5장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조사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계획
- 제2절 조사 결과
- 제3절 세부 조사 결과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5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5-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5-1> 하반기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4년 11월 19일 ~ 12월 3일	
조사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1,000명	
조사내용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16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전화조사 : 259명 인터넷조사: 715명	
탈락사유	총 26명	전화 연결불가 4명
		전화 응답거부 1명
		인터넷조사 무응답 21명
조사 성공자	총 974명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1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조사는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표 5-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하반기조사	
	패널수	비율(%)
합계	1,127	100.0
전화조사	264	23.4
인터넷조사	829	73.6
면접조사	10	0.9
패널접촉 불가	24	2.1

전화조사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조사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조사를 선호하는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직접 설문지가 보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반기와 달리 면접조사는 대상자수 및 조사실시 일정 등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다.

총 1,127명의 조사대상자 중 패널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으며,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 974명에 대해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었다.

3. 조사실시

가. 조사목표

하반기 조사도 상반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1,000명을 대상의 성별, 4개 권역별, 5

개 연령군으로 총화된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체감도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하반기 조사에 참여한 식품패널 현황은 상반기 조사에 참여한 패널 현황이 제시된 <표 4-3>의 결과와 동일하다.

나. 조사 성공

<표 5-3>에는 조사에 성공한 974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 있다.

하반기 조사의 조사성공률은 97.4%였으며 97.0%인 상반기조사보다 0.4% 높은 수치를 보였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30개 조사단위에서 조사성공률을 100% 달성하여 20개였던 상반기 조사보다 크게 늘었다.

호남권 20대 여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서도 조사성공률이 가장 낮았으나 (85.7%) 상반기 조사성공률(78.6%)보다는 상승하였다. 대체적으로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권역별로는 중부권, 성별로는 여성, 연령군별로는 40대의 조사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3> 하반기조사 조사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7.4	97.1	92.8	97.2	100.0	96.3	98.8	97.7	97.8	95.9	99.1	100.0	95.3
수도권	97.6	95.3	90.6	92.3	100.0	9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남권	97.3	98.0	89.7	100.0	100.0	100.0	100.0	96.6	100.0	86.7	100.0	100.0	96.2
중부권	98.5	99.0	94.7	100.0	100.0	100.0	100.0	98.0	100.0	100.0	100.0	100.0	89.5
호남권	95.9	96.7	100.0	100.0	100.0	90.5	94.1	95.0	85.7	100.0	95.0	100.0	93.3

제2절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5-4>에는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모두 상반기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평균 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4〉 하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합계	
		명수	비율
합계		974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4	5.5
	100만원대	131	13.5
	200만원대	157	16.1
	300만원대	189	19.4
	400만원대	187	19.2
	500만원 이상	256	2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70	7.2
	고졸	335	34.4
	대졸 이상	569	58.4
직업분류	공무원/전문직	80	8.2
	기능직	44	4.5
	무직	69	7.1
	사무관리직	127	13.0
	사무직	244	25.1
	자영업	78	8.0
	전업주부	201	20.6
	판매서비스직	55	5.7
	학생	76	7.8

2. 기본 조사

가.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5-5>에는 2014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4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안전체감도는 73.2%로 74.4%였던 상반기 안전체감도보다 1.2% 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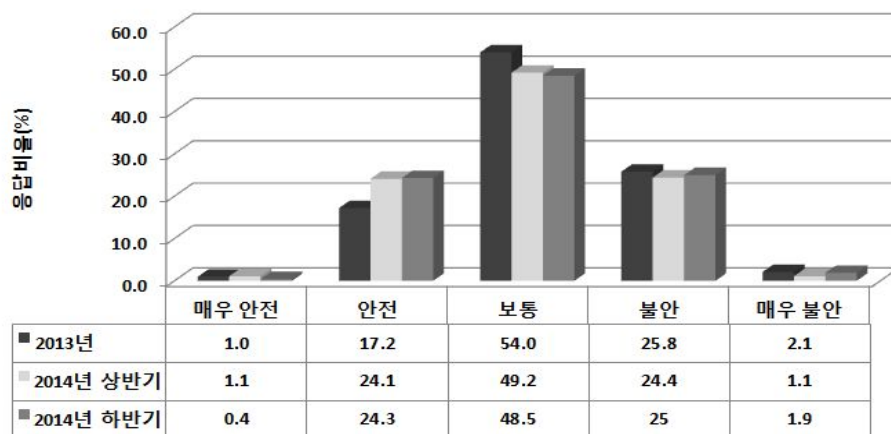
〈표 5-5〉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4	237	472	243	18	713
비율	100.0	0.4	24.3	48.5	25.0	1.9	73.2

[그림 5-1]에는 2013년 및 2014년 상하반기 조사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5-1]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나.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1) 안전체감도

<표 5-6>에는 2014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89.8%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결과인 90.6%보다는 0.8% 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표 5-6〉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크게 나아짐	나아짐	동일	떨어짐	크게 떨어짐	동일 이상
응답자수	974	25	391	459	91	8	875
비율	100.0	2.6	40.1	47.1	9.3	0.8	89.8

2) 나아진 이유

<표 5-7>에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으로 30.3%의 조사대상자가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이 상반기 때 15.5%의 조사대상자가 선택하여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하반기 때 18.5%로 상승하여 세 번째로 많은 조사대상자가 선택한 이유가 되었다.

〈표 5-7〉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416	100.0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126	30.3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86	20.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77	18.5
수입식품, 국내생산 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67	16.1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53	12.7
기타	7	1.7

3) 감소한 이유

〈표 5-8〉에는 2014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	100.0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31	31.3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29	29.3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15	15.2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13	13.1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9	9.1
기타	2	2.0

체감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주된 이유로는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1.3%였으며 이는 상반기 조사의 26.4%보다 약 5% 포인트 정도 상승한 결과이다.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도 약 5% 포인트 상승하여 세 번째 이유에서 두 번째 이유로 상승하였다.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은 상반기 때 26.4%로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과 함께 첫 번째 이유로 조사되었으나 하반기 조사에서는 약 11%포인트가 하락하여 세 번째 이유가 되었다.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9>에는 내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95.0%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여 94.4%였던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나아질 것 이상으로 예측한 조사대상자는 51.0%였다.

<표 5-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

구분	합계	크게 나아질 것	나아질 것	동일할 것	떨어질 것	크게 떨어질 것	동일할 것 이상
응답자수	974	14	483	428	45	4	925
비율	100.0	1.4	49.6	43.9	4.6	0.4	95.0

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5-10>에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1.4%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전체의 4.3%가 응답하여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5-10〉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03	41.4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 규정의 개선	328	33.7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	101	10.4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83	8.5
정부 정책 홍보 강화	42	4.3
기타	17	1.8

마.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5-11>에는 학교 주변 판매식품안전, 수입식품안전, 외식안전, 유통식품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3.2%인데 이보다 높게 조사된 세부분야는 81.3%의 단체급식, 78.8%의 제조·유통식품, 74.9%의 외식의 안전으로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단체급식의 안전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도 안전체감도도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에 수입식품의 안전체감도는 51.5%로 상반기 보다 낮게 조사되었고,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체감도는 51.6%로 상반기보다는 약 4%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50%대의 안전체감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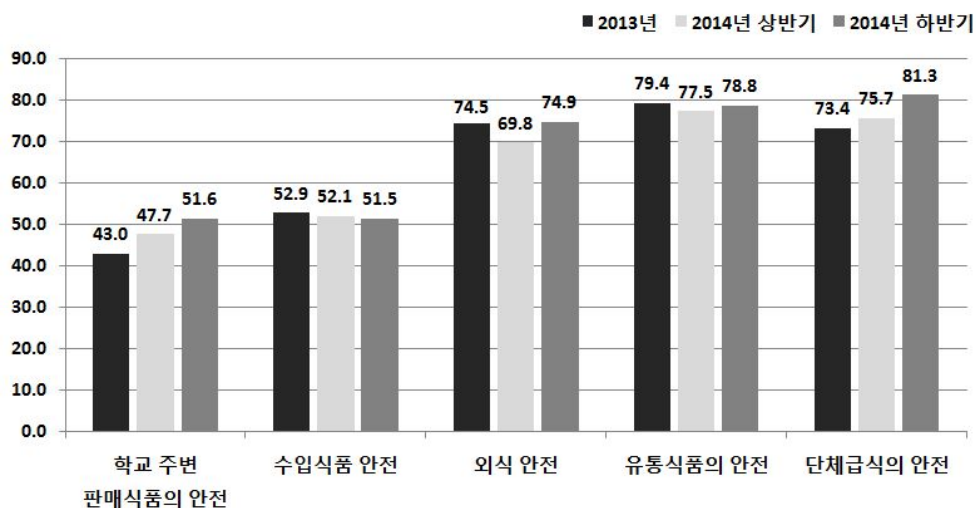
〈표 5-11〉 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100.0	0.7	12.9	38.0	42.7	5.7	51.6
수입식품 안전	100.0	0.4	12.3	38.8	40.6	7.9	51.5
외식 안전	100.0	0.5	16.4	57.9	23.6	1.5	74.9
유통식품의 안전	100.0	0.6	21.9	56.3	19.9	1.3	78.8
단체급식의 안전	100.0	3.3	32.8	45.1	16.0	2.7	81.3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0.4	24.3	48.5	25.0	1.9	73.2

[그림 5-2]에는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를 2013년 결과 및 상반기 결과와 비교한 결과가 막대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5-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과 단체급식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는 2013년 조사에서부터 총 세 번의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순방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수입식품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락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정책적 관

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외식의 안전체감도는 2013년 74.5%에서 2014년 상반기 조사에서 69.8%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74.9%로 다시 상승하였다.

3. 부가 조사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부가조사에 대한 항목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대적 불안감

<표 5-12>에는 2014년 하반기 범죄, 식품안전, 교통사고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별 상대적 불안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12〉 여러 사회문제별 불안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비율					
	응답수	비율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미만
범죄	974	100.0	0.6	10.6	28.0	44.5	16.3	60.8
환경문제	974	100.0	0.8	12.6	38.3	41.9	6.4	48.3
자연재해	974	100.0	0.7	15.9	37.1	39.3	7.0	46.3
교통사고	974	100.0	0.6	11.1	44.1	37.8	6.5	44.3
중증감염증	974	100.0	1.3	15.1	40.1	35.7	7.7	43.4
식품안전	974	100.0	0.9	16.4	43.4	35.5	3.7	39.2
전쟁, 테러	974	100.0	2.5	21.5	42.7	28.6	4.7	33.4

총 974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분석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불안한 사회위험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33.4%의 범죄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는 39.2%로 상

반기에 이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사회위험으로 조사되었다.

나. 영향요인

<표 5-13>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방송 보도 등 언론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1.7%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전문가나 과학적 지식’과 ‘본인 및 가족의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2.5%, 11.5%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에 대한 응답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보였다.

<표 5-13>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방송보도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601	61.7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22	12.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2	11.5
막연한 불안감	78	8.0
정부의 보도 자료	30	3.1
주변 사람의 의견	28	2.9
기타	3	0.3

다.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5-14>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자의 78.1%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37	296	428	188	25	761
비율	100.0	3.8	30.4	43.9	19.3	2.6	78.1

라.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5-15>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15〉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16	42.7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9	21.5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8	21.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72	7.4
정부의 단속 소홀	59	6.1
기타	10	1

가장 주된 이유는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전체의 42.7%가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와 식품업체의 안전의식 부족이 각각 전체의 21.5%, 21.4%의 순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났다. 이런 조사결과는 향후 식품안전규제의 합리화, 부당이득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책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조사결과라 하겠다.

마. 식품정책에 대한 관심

<표 5-16>에는 평소에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 갖는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4.0%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심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6.0%에 그쳤다.

<표 5-16>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매우 관심있음	관심있음	보통	관심없음	전혀 관심없음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139	447	330	55	3	916
비율	100.0	14.3	45.9	33.9	5.7	0.3	94.0

바. 주요 정보 구득원

<표 5-17>에는 평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중복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2,014건을 대상으로 분석이 되었다. 방송매체가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5.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조사대상자의 27.9%가 인터넷 지식정보라고 응답하였다. SNS는 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순위의 조사결과는 2013년 조사부터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홍보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17〉 정보 구득 매체

(단위: %)

항목	응답수	비율
합계	2,014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715	35.5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62	27.9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364	18.1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21	11.0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46	7.2
기타	6	0.3

사. 유용한 식품정보

<표 5-18>에는 평소에 이용하는 식품안전 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생활 정보가 전체의 35.2%,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정보가 25.4%, 식품안전 전문정보가 19.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런 경향은 2013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8〉 유용한 식품안전 정보

(단위: %)

항목	응답수	비율
합계	974	100.0
식생활 정보	343	35.2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247	25.4
식품안전 전문정보 (연구자료, 교수·의사인터뷰등)	194	19.9
위해식품 정보나 회수(recall) 정보	105	10.8
식품 기준 규격 및 법령 등	81	8.3
기타	4	0.4

제3절 세부 조사 결과

1. 기본 조사

가. 식품안전체감도

<표 5-19>에는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직업별 등의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60대, 공무원, 100만원대 미만,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 대상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소득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 공무원, 100만원대, 중졸 이하 계층의 안전체감 정도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5-1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4	24.3	48.5	25.0	1.9	73.2	—
성별	남	0.6	30.0	46.9	20.9	1.6	77.5	0.0002***
	여	0.2	18.5	50.1	29.1	2.1	68.8	
연령군별	20대	0.6	19.2	44.6	34.5	1.1	64.4	0.0014**
	30대	0.0	16.6	49.8	30.7	3.0	66.3	
	40대	1.3	26.1	47.4	23.0	2.2	74.8	
	50대	0.0	30.1	49.0	19.4	1.5	79.1	
	60대 이상	0.0	29.5	51.8	17.5	1.2	81.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0.0	52.5	33.8	13.8	0.0	86.3	<.0001***
	기능직	2.3	22.7	54.6	20.5	0.0	79.6	
	무직	0.0	31.9	44.9	20.3	2.9	76.8	
	사무관리직	0.8	27.6	50.4	19.7	1.6	78.7	
	사무직	0.0	21.3	49.6	27.9	1.2	70.9	
	자영업	1.3	15.4	56.4	25.6	1.3	73.1	

	전업주부	0.0	18.9	52.2	26.4	2.5	71.2	
	판매서비스직	0.0	20.0	52.7	23.6	3.6	72.7	
	학생	1.3	19.7	35.5	39.5	4.0	56.6	
소득별	100만원 미만	1.9	27.8	50.0	16.7	3.7	79.6	0.0026**
	100만원대	0.0	19.1	51.9	26.7	2.3	71.0	
	200만원대	0.6	22.9	43.3	29.9	3.2	66.9	
	300만원대	0.0	15.3	52.9	30.2	1.6	68.3	
	400만원대	0.5	22.5	54.6	21.4	1.1	77.5	
	500만원 이상	0.4	35.2	41.8	21.5	1.2	77.4	
학력별	중졸 이하	0.0	22.9	57.1	18.6	1.4	80.0	0.5255
	고졸	0.9	22.1	48.7	26.6	1.8	71.7	
	대졸 이상	0.2	25.8	47.3	24.8	1.9	73.3	
권역별	수도권	0.6	22.0	48.3	26.3	2.8	70.9	0.2714
	영남권	0.0	22.3	51.6	24.4	1.7	73.9	
	중부권	0.0	27.0	49.5	23.0	0.5	76.5	
	호남권	1.2	29.3	42.1	25.6	1.8	72.6	

* p<.05, ** p<0.01, *** p<0.001

나.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0>에는 작년 대비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변수별로 세 부분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변수별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별, 소득별, 직업별, 연령군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5-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크게 나아짐	나아짐	동일	떨어짐	크게 떨어짐	동일 이상	p
합계		2.6	40.1	47.1	9.3	0.8	89.8	—
성별	남	2.8	45.1	41.5	9.9	0.8	89.3	0.0086**
	여	2.3	35.0	53.0	8.8	0.8	90.4	

연령군별	20대	2.8	24.3	59.3	12.4	1.1	86.4	<.0001***
	30대	1.0	30.7	52.8	14.6	1.0	84.4	
	40대	2.7	38.5	48.7	9.3	0.9	89.8	
	50대	2.4	50.0	42.2	4.9	0.5	94.7	
	60대 이상	4.2	58.4	31.3	5.4	0.6	94.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7.5	53.8	32.5	5.0	1.3	93.8	0.0085**
	기능직	0.0	43.2	47.7	6.8	2.3	90.9	
	무직	2.9	39.1	44.9	11.6	1.5	87.0	
	사무관리직	0.0	51.2	40.2	7.1	1.6	91.3	
	사무직	1.6	36.1	51.6	10.7	0.0	89.4	
	자영업	3.9	41.0	47.4	7.7	0.0	92.3	
	전업주부	3.0	39.8	48.3	8.0	1.0	91.1	
	판매서비스직	0.0	36.4	52.7	10.9	0.0	89.1	
	학생	5.3	22.4	54.0	17.1	1.3	81.6	
소득별	100만원 미만	11.1	37.0	44.4	7.4	0.0	92.6	0.0006***
	100만원대	0.8	33.6	55.0	9.2	1.5	89.3	
	200만원대	3.8	35.0	47.8	12.1	1.3	86.6	
	300만원대	0.0	34.4	55.6	9.0	1.1	90.0	
	400만원대	3.2	47.1	41.7	7.0	1.1	92.0	
	500만원 이상	2.3	46.5	41.0	10.2	0.0	89.8	
학력별	중졸 이하	4.3	42.9	45.7	5.7	1.4	92.9	0.6254
	고졸	2.4	37.3	50.5	8.7	1.2	90.2	
	대졸 이상	2.5	41.5	45.3	10.2	0.5	89.3	
권역별	수도권	1.2	39.9	48.0	9.9	0.9	89.2	0.4811
	영남권	1.7	39.9	49.5	7.9	1.0	91.1	
	중부권	5.1	41.8	42.9	9.7	0.5	89.8	
	호남권	3.7	39.0	46.3	10.4	0.6	89.0	

* p<.05, ** p<0.01, *** p<0.001

다.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1>에는 올해 대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변수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이 세부분석 결과는 연령군별, 소득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크게 나아질 것	나아질 것	동일할 것	떨어질 것	크게 떨어질 것	동일할 것 이상	p
합계		1.4	49.6	43.9	4.6	0.4	95.0	—
성별	남	1.6	52.7	40.4	4.8	0.4	94.8	0.2735
	여	1.3	46.3	47.6	4.4	0.4	95.2	
연령군별	20대	1.1	33.9	59.3	5.1	0.6	94.4	<.0001***
	30대	0.5	37.7	52.3	8.5	1.0	90.5	
	40대	1.8	46.0	50.0	1.8	0.4	97.8	
	50대	1.9	62.1	31.1	4.9	0.0	95.2	
	60대이상	1.8	69.9	25.3	3.0	0.0	97.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0.0	63.8	33.8	2.5	0.0	97.5	0.1106
	기능직	4.6	54.6	38.6	2.3	0.0	97.7	
	무직	0.0	56.5	39.1	4.4	0.0	95.7	
	사무관리직	0.8	52.8	42.5	3.9	0.0	96.1	
	사무직	2.1	42.6	49.2	5.7	0.4	93.9	
	자영업	1.3	53.9	38.5	6.4	0.0	93.6	
	전업주부	2.0	53.2	41.3	2.5	1.0	96.5	
	판매서비스직	0.0	47.3	45.5	7.3	0.0	92.7	
소득별	학생	1.3	30.3	59.2	7.9	1.3	90.8	0.0074**
	100만원미만	7.4	57.4	31.5	3.7	0.0	96.3	
	100만원대	0.0	47.3	48.1	4.6	0.0	95.4	
	200만원대	2.6	40.8	52.2	4.5	0.0	95.5	
	300만원대	1.1	46.0	47.1	5.3	0.5	94.2	
	400만원대	0.0	49.7	44.9	4.3	1.1	94.7	
학력별	500만원이상	1.6	57.0	36.3	4.7	0.4	94.9	0.4892
	중졸이하	4.3	52.9	37.1	5.7	0.0	94.3	
	고졸	1.8	48.7	45.1	4.2	0.3	95.5	
권역별	대졸이상	0.9	49.7	44.1	4.8	0.5	94.7	0.1326
	수도권	0.0	49.5	44.6	5.3	0.6	94.1	
	영남권	2.1	45.4	47.8	4.1	0.7	95.2	
	중부권	1.5	56.6	38.3	3.6	0.0	96.4	
지역별	호남권	3.1	48.8	42.7	5.5	0.0	94.5	

* p<.05, ** p<0.01, *** p<0.001

라.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5-22>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안전체감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1.6%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결과의 수입식품 안전과 거의 동일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 결과인 43.0%, 상반기 조사결과인 47.7%에 비해서는 꾸준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한 연구 결과에만 의존한 식약처의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정책적 미숙함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³⁾.

<표 5-2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7	126	370	416	55	503
비율	100.0	0.7	12.9	38.0	42.7	5.6	51.6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5-23>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 60대 이상, 공무원, 400만원대,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 특성 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성별, 학력별, 권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승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제4회 소비자 포럼 개최- 발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표 5-2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변수별 세부분석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7	12.9	38.0	42.7	5.6	100.0	—
성별	남	0.8	16.9	38.4	39.0	4.8	56.1	0.0020**
	여	0.6	8.8	37.5	46.5	6.5	47.0	
연령군별	20대	1.1	11.9	33.9	44.6	8.5	46.9	0.1162
	30대	0.0	11.1	33.7	49.8	5.5	44.7	
	40대	0.9	16.4	38.5	38.1	6.2	55.8	
	50대	0.5	14.6	38.8	43.7	2.4	53.9	
	60대 이상	1.2	9.6	45.8	37.4	6.0	56.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20.0	45.0	32.5	1.3	66.3	0.0559
	기능직	0.0	18.2	38.6	36.4	6.8	56.8	
	무직	0.0	2.9	52.2	39.1	5.8	55.1	
	사무관리직	0.8	20.5	28.4	47.2	3.2	49.6	
	사무직	0.8	10.7	37.3	45.9	5.3	48.8	
	자영업	1.3	12.8	42.3	38.5	5.1	56.4	
	전업주부	0.5	11.0	38.8	43.3	6.5	50.3	
	판매서비스직	1.8	7.3	38.2	45.5	7.3	47.3	
	학생	0.0	15.8	29.0	43.4	11.8	44.7	
소득별	100만원미만	1.9	13.0	38.9	38.9	7.4	53.7	0.8706
	100만원대	0.8	11.5	42.8	42.0	3.1	55.0	
	200만원대	0.6	12.1	34.4	44.6	8.3	47.1	
	300만원대	0.5	11.6	34.9	46.0	6.9	47.1	
	400만원대	0.0	14.4	41.2	39.0	5.4	55.6	
	500만원 이상	1.2	14.1	37.5	43.0	4.3	52.7	
학력별	중졸 이하	0.0	11.4	55.7	28.6	4.3	67.1	0.0312*
	고졸	0.9	10.8	37.3	43.3	7.8	49.0	
	대졸 이상	0.7	14.4	36.2	44.1	4.6	51.3	
권역별	수도권	0.3	14.2	31.6	46.4	7.4	46.1	0.0221*
	영남권	0.7	10.7	39.9	44.3	4.5	51.2	
	충부권	0.5	13.3	48.5	33.2	4.6	62.3	
	호남권	1.8	14.0	34.8	43.9	5.5	50.6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5-24>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전체의 29.5%, 25.3%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정부의 관리 미흡,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24>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41	100.0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48	29.5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213	25.3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126	15.0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118	14.0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67	8.0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66	7.9
기타	3	0.4

4) 불안 이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5-25>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여성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경험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 반면, 남성층은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25〉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29.5	15.0	7.9	25.3	8.0	14.0	0.4	—
성별	남	33.0	19.1	6.6	22.3	7.1	11.7	0.2	0.002**
	여	26.2	11.1	9.0	28.2	8.8	16.2	0.5	
연령군별	20대	29.9	16.9	9.7	24.7	7.8	11.0	0.0	0.0482*
	30대	19.8	19.8	10.2	31.6	6.2	11.3	1.1	
	40대	32.6	12.8	4.3	22.5	10.2	17.7	0.0	
	50대	32.0	13.1	7.4	20.6	8.0	18.3	0.6	
	60대 이상	33.8	12.2	8.1	27.7	7.4	10.8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42.9	6.4	4.8	23.8	6.4	15.9	0.0	0.0168*
	기능직	25.0	16.7	2.8	36.1	2.8	16.7	0.0	
	무직	35.8	20.9	3.0	26.9	4.5	7.5	1.5	
	사무관리직	37.0	16.0	1.0	15.0	10.0	21.0	0.0	
	사무직	25.0	17.1	10.2	25.5	8.8	13.0	0.5	
	자영업	34.3	17.9	4.5	20.9	11.9	10.5	0.0	
	전업주부	23.6	9.0	12.9	30.9	7.3	15.7	0.6	
	판매서비스직	20.0	16.0	12.0	26.0	12.0	14.0	0.0	
소득별	학생	34.4	20.3	7.8	23.4	4.7	9.4	0.0	0.3929
	100만원미만	34.8	17.4	6.5	32.6	4.4	4.4	0.0	
	100만원대	23.5	16.5	10.4	20.9	10.4	17.4	0.9	
	200만원대	27.0	16.8	8.0	23.4	8.0	16.1	0.7	
	300만원대	24.7	13.3	6.6	31.3	10.8	13.3	0.0	
	400만원대	31.3	11.3	6.3	26.9	8.8	15.6	0.0	
학력별	500만원 이상	35.5	16.6	8.8	21.7	4.6	12.4	0.5	0.7568
	중졸 이하	32.3	8.1	8.1	25.8	9.7	16.1	0.0	
	고졸	28.0	16.2	8.8	27.7	7.1	12.2	0.0	
권역별	대졸 이상	30.0	15.1	7.3	23.8	8.3	14.9	0.6	0.0125*
	수도권	35.9	16.7	6.9	22.1	6.9	11.6	0.0	
	영남권	28.3	13.6	5.8	29.5	6.6	15.9	0.4	
	중부권	24.3	16.6	13.6	23.7	10.1	10.7	1.2	
	호남권	25.4	12.3	6.5	26.1	10.1	19.6	0.0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이유 7. 기타

* p<.05, ** p<0.01, *** p<0.001

마. 수입식품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5-26>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1.5%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다섯 분야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2013과 상반기 결과와 비교하면 각 52.9%, 5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5-26〉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4	120	378	395	77	502
비율	100.0	0.4	12.3	38.8	40.6	7.9	51.5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5-27>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자, 20대, 판매서비스직,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체감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별과 연령 군별, 직업별에서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20대, 30대, 60대 이상은 5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40대에서만 42.9%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42.3%만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면에 학생, 공무원/전문직종의 조사대상자 체감도는 60%를 넘는 체감도를 보였다.

〈표 5-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4	12.3	38.8	40.6	7.9	51.5	—
성별	남	0.4	16.9	42.3	34.8	5.6	59.6	<.0001***
	여	0.4	7.6	35.2	46.5	10.3	43.2	
연령군별	20대	1.7	20.3	42.4	32.8	2.8	64.4	0.0003***
	30대	0.0	12.1	41.2	40.2	6.5	53.3	
	40대	0.4	7.5	35.0	45.6	11.5	42.9	
	50대	0.0	11.7	37.9	39.3	11.2	49.5	
	60대 이상	0.0	11.5	38.6	44.0	6.0	5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17.5	41.3	32.5	7.5	60.0	0.0011**
	기능직	0.0	4.6	40.9	40.9	13.6	45.5	
	무직	1.5	10.1	37.7	47.8	2.9	49.3	
	사무관리직	0.0	19.7	33.9	40.9	5.5	53.6	
	사무직	0.4	13.9	36.1	42.2	7.4	50.4	
	자영업	1.3	3.9	47.4	44.9	2.6	52.6	
	전업주부	0.0	6.0	36.8	45.3	11.9	42.8	
	판매서비스직	0.0	12.7	52.7	21.8	12.7	65.5	
	학생	0.0	21.1	39.5	32.9	6.6	60.5	
소득별	100만원 미만	1.9	13.0	51.9	27.8	5.6	66.7	0.0728
	100만원대	0.0	9.2	40.5	38.9	11.5	49.6	
	200만원대	0.6	8.9	40.1	42.0	8.3	49.7	
	300만원대	0.0	10.6	38.6	43.4	7.4	49.2	
	400만원대	0.5	13.9	31.6	42.3	11.8	46.0	
	500만원 이상	0.4	16.0	39.8	39.8	3.9	56.3	
학력별	중졸 이하	0.0	11.4	44.3	35.7	8.6	55.7	0.7653
	고졸	0.3	11.3	37.6	40.9	9.9	49.3	
	대졸 이상	0.5	13.0	38.8	41.0	6.7	52.4	
권역별	수도권	0.0	13.3	38.1	40.6	8.1	51.4	0.2361
	영남권	0.3	11.7	39.9	40.6	7.6	51.9	
	충부권	0.0	10.7	43.4	39.3	6.6	54.1	
	호남권	1.8	13.4	32.9	42.1	9.8	48.2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5-28>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9.1%,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6.6%로 나타나 2013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그 다음 순위도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응답비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뿐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표 5-28〉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50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247	29.1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226	26.6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48	17.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137	16.1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83	9.8
기타	9	1.1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5-29>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통계학적으로 연령군별, 직업별로만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대와 30대의 의견이 유사하였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의 의견이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2~30대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지만, 40대 이후는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5-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7.4	29.1	9.8	16.1	26.6	1.1	—
성별	남	19.0	30.4	9.0	15.3	24.8	1.5	0.4729
	여	16.0	27.8	10.5	16.9	28.3	0.7	
연령군별	20대	10.1	37.0	15.2	16.7	21.0	0.0	0.0023**
	30대	12.6	30.9	13.1	16.6	24.0	2.9	
	40대	22.6	25.5	6.3	17.3	27.4	1.0	
	50대	20.9	24.7	5.5	14.8	33.0	1.1	
	60대 이상	18.4	29.9	10.9	15.0	25.9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3.1	16.9	3.1	16.9	40.0	0.0	0.0268*
	기능직	19.1	26.2	7.1	21.4	23.8	2.4	
	무직	16.4	21.3	6.6	19.7	34.4	1.6	
	사무관리직	27.5	30.4	9.8	11.8	18.6	2.0	
	사무직	13.9	29.7	10.5	19.6	24.9	1.4	
	자영업	21.6	39.2	6.8	9.5	23.0	0.0	
	전업주부	16.9	23.8	11.6	16.4	30.2	1.1	
	판매서비스직	8.3	41.7	16.7	10.4	22.9	0.0	
소득별	학생	10.0	41.7	11.7	15.0	21.7	0.0	0.2488
	100만원 미만	6.5	30.4	13.0	21.7	28.3	0.0	
	100만원대	14.3	34.5	12.6	15.1	21.0	2.5	
	200만원대	17.6	28.2	11.3	14.8	26.8	1.4	
	300만원대	17.8	28.4	8.9	18.3	26.6	0.0	
	400만원대	13.8	29.4	5.6	15.6	34.4	1.3	
학력별	500만원 이상	23.8	26.6	10.3	15.0	23.4	0.9	0.8257
	중졸 이하	12.9	33.9	12.9	17.7	21.0	1.6	
	고졸	17.9	29.4	10.5	15.2	26.7	0.3	
권역별	대졸 이상	17.7	28.3	8.9	16.5	27.2	1.4	0.8303
	수도권	18.2	29.6	10.4	16.1	25.0	0.7	
	영남권	16.8	27.0	9.4	17.2	28.5	1.2	
	충부권	18.9	30.3	12.6	13.1	23.4	1.7	
	호남권	15.1	30.2	5.8	18.0	30.2	0.7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바. 외식

1) 안전체감도

<표 5-30>에는 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74.9%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인 73.2%에 비교해 1.7%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반기 조사결과가 69.8%였으나 2013년 조사 결과가 74.5%였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외식의 안전 체감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0〉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5	160	564	230	15	729
비율	100.0	0.5	16.4	57.9	23.6	1.5	74.9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5-31>에는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50대, 기능직,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를 특성을 갖는 조사대상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17.5% 이상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직, 무직, 사무직의 경우 70%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고졸 및 대졸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3.1%로 타 권역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계학적으로 성별, 직업별, 소득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5	16.4	57.9	23.6	1.5	74.9	—
성별	남	0.8	23.3	56.3	18.5	1.0	80.5	<.0001***
	여	0.2	9.2	59.5	28.9	2.1	69.0	
연령군별	20대	1.1	16.4	53.7	27.7	1.1	71.2	0.2241
	30대	0.5	11.6	63.3	23.1	1.5	75.4	
	40대	0.9	18.6	56.2	23.0	1.3	75.7	
	50대	0.0	20.4	55.8	23.3	0.5	76.2	
	60대 이상	0.0	14.5	60.8	21.1	3.6	75.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3	27.5	57.5	11.3	2.5	86.3	0.0124*
	기능직	0.0	20.5	68.2	11.4	0.0	88.6	
	무직	1.5	17.4	59.4	20.3	1.5	78.3	
	사무관리직	1.6	22.8	52.8	21.3	1.6	77.2	
	사무직	0.4	13.5	57.8	27.9	0.4	71.7	
	자영업	0.0	19.2	53.9	24.4	2.6	73.1	
	전업주부	0.0	8.0	63.2	27.4	1.5	71.1	
	판매서비스직	0.0	14.6	52.7	27.3	5.5	67.3	
소득별	학생	0.0	21.1	54.0	23.7	1.3	75.0	0.0272*
	100만원 미만	0.0	16.7	63.0	18.5	1.9	79.6	
	100만원대	0.0	4.6	70.2	24.4	0.8	74.8	
	200만원대	1.3	17.8	52.9	26.8	1.3	72.0	
	300만원대	0.0	13.8	63.5	20.6	2.1	77.3	
	400만원대	1.1	17.7	54.6	25.1	1.6	73.3	
학력별	500만원 이상	0.4	22.7	52.0	23.4	1.6	75.0	0.5001
	중졸 이하	0.0	10.0	67.1	21.4	1.4	77.1	
	고졸	0.0	16.7	58.5	23.6	1.2	75.2	
권역별	대졸이상	0.9	17.1	56.4	23.9	1.8	74.3	0.2462
	수도권	0.3	17.0	53.3	26.9	2.5	70.6	
	영남권	0.7	15.5	58.1	24.1	1.7	74.2	
	중부권	0.5	14.3	66.3	17.9	1.0	81.1	
	호남권	0.6	19.5	56.7	23.2	0.0	76.8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5-32>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전체의 34.9%(2013년 43.9%, 상반기 41.7%)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31.8%의 순으로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런 순위는 2013년과 동일한 경향이다. 소수 의견으로는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13.6%,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12.6%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은 6.7%로 나타났다.

〈표 5-3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809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282	34.9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257	31.8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110	13.6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102	12.6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54	6.7
기타	4	0.5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5-33>에는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전문직층에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 반면에 전업주부들은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연령군별, 직업별, 소득별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34.9	13.6	31.8	12.6	6.7	0.5	—
성별	남	34.5	15.7	31.6	11.7	6.4	0.3	0.6131
	여	35.2	11.8	31.9	13.4	6.9	0.7	
연령군별	20대	38.4	13.7	17.1	17.1	11.6	2.1	0.0012**
	30대	34.3	13.1	32.6	12.0	7.4	0.6	
	40대	33.5	10.4	34.1	14.3	7.7	0.0	
	50대	36.0	13.4	37.2	8.5	4.9	0.0	
	60대 이상	32.4	18.3	36.6	11.3	1.4	0.0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49.1	14.0	24.6	7.0	5.3	0.0	0.0145*
	기능직	17.1	8.6	48.6	17.1	8.6	0.0	
	무직	39.3	14.3	28.6	10.7	7.1	0.0	
	사무관리직	41.7	13.5	29.2	14.6	1.0	0.0	
	사무직	36.7	12.9	26.7	15.2	7.6	1.0	
	자영업	27.0	15.9	41.3	14.3	1.6	0.0	
	전업주부	27.6	15.7	41.1	9.2	6.0	0.5	
	판매서비스직	31.9	8.5	34.0	12.8	12.8	0.0	
소득별	학생	43.3	13.3	13.3	13.3	15.0	1.7	0.0211*
	100만원 미만	33.3	24.4	13.3	24.4	4.4	0.0	
	100만원대	31.2	10.4	36.0	15.2	7.2	0.0	
	200만원대	33.1	15.0	28.4	12.6	10.2	0.8	
	300만원대	30.7	14.1	39.3	8.0	7.4	0.6	
	400만원대	36.8	11.2	26.3	17.1	7.9	0.7	
학력별	500만원 이상	40.6	13.7	33.5	8.6	3.1	0.5	0.3494
	중졸 이하	28.6	19.1	38.1	12.7	1.6	0.0	
	고졸	34.4	12.9	30.5	12.2	9.7	0.4	
권역별	대졸 이상	36.0	13.3	31.7	12.9	5.6	0.6	0.1458
	수도권	36.3	14.2	33.7	12.7	2.6	0.4	
	영남권	36.9	13.5	26.6	14.3	8.2	0.4	
	중부권	34.1	11.4	33.5	11.4	9.6	0.0	
권역별	호남권	29.0	15.3	35.1	10.7	8.4	1.5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사. 단체급식의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5-34>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4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총 51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1.3%가 보통 이상 응답하여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5-34〉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512	17	168	231	82	14	416
비율	100.0	3.3	32.8	45.1	16.0	2.7	81.3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5-35>에는 학교나 회사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조사대상층을 보면 남자, 50대와 60대 이상, 공무원/전문직, 500만원 이상,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자층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군별, 소득별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과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안전체감도가 낮게 나타났고, 그 외 여자, 200만원대와 300만원대, 고졸, 영남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층의 안전체감도가 70%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5〉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3.3	32.8	45.1	16.0	2.7	81.3	—
성별	남	3.2	35.2	44.2	14.2	3.2	82.6	0.4318
	여	3.5	29.2	46.5	18.8	2.0	79.2	
연령군별	20대	1.7	27.6	48.3	16.4	6.0	77.6	0.0058**
	30대	1.8	27.7	44.6	24.1	1.8	74.1	
	40대	5.2	28.5	47.4	14.7	4.3	81.0	
	50대	6.2	45.4	37.1	11.3	0.0	88.7	
	60대 이상	1.4	39.4	47.9	11.3	0.0	88.7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0	52.0	36.0	8.0	2.0	90.0	0.1454
	기능직	10.7	17.9	53.6	14.3	3.6	82.1	
	무직	3.0	45.5	36.4	12.1	3.0	84.8	
	사무관리직	4.1	39.7	39.7	16.4	0.0	83.6	
	사무직	3.2	29.7	47.1	16.1	3.9	80.0	
	자영업	2.5	25.0	55.0	10.0	7.5	82.5	
	전업주부	3.2	31.8	38.1	25.4	1.6	73.0	
	판매서비스직	4.4	30.4	52.2	13.0	0.0	87.0	
	학생	0.0	21.3	55.3	21.3	2.1	76.6	
소득별	100만원 미만	5.3	36.8	36.8	15.8	5.3	78.9	0.0172*
	100만원대	1.7	20.0	60.0	13.3	5.0	81.7	
	200만원대	4.9	27.2	43.2	22.2	2.5	75.3	
	300만원대	3.3	23.9	50.0	16.3	6.5	77.2	
	400만원대	0.9	35.5	45.8	17.8	0.0	82.2	
	500만원 이상	4.6	43.8	37.9	12.4	1.3	86.3	
학력별	중졸 이하	0.0	28.6	57.1	14.3	0.0	85.7	0.2559
	고졸	1.8	30.3	43.6	19.4	4.9	75.8	
	대졸 이상	4.3	34.4	45.1	14.4	1.8	83.7	
권역별	수도권	2.6	33.6	47.7	12.9	3.2	83.9	0.5567
	영남권	3.1	29.2	42.9	23.0	1.9	75.2	
	충부권	3.9	33.3	48.0	11.8	2.9	85.3	
	호남권	4.3	37.2	41.5	13.8	3.2	83.0	

* p<.05, ** p<0.01, *** p<0.001

3) 불안 이유

<표 5-36>에는 학교나 회사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보통 이하로 응답한 총 3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이 24.8%로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미흡, 언론에서 불안감 보도를 지적한 비율은 각각 6.7%와 5.5%로 분석되었다.

〈표 5-36〉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327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10	33.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81	24.8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62	19.0
정부의 관리 미흡	27	8.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22	6.7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18	5.5
기타	7	2.1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5-37>에는 학교나 회사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은 층은 남자, 40대, 사무관리직, 100만원대, 대졸 이상, 중부권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어떤 층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사자료는 분석되었지만 층간 차이는 의미없는 차이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3.6	8.3	6.7	19.0	5.5	24.8	2.1	—
성별	남	36.1	10.5	5.2	18.9	4.7	23.6	1.1	0.2066
	여	30.2	5.2	8.8	19.1	6.6	26.5	3.7	
연령군별	20대	29.3	4.9	11.0	23.2	6.1	22.0	3.7	0.2102
	30대	36.7	11.4	8.9	19.0	5.1	17.7	1.3	
	40대	39.0	2.6	2.6	16.9	6.5	32.5	0.0	
	50대	29.8	10.6	2.1	19.2	8.5	25.5	4.3	
	60대 이상	31.0	16.7	7.1	14.3	0.0	28.6	2.4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39.1	8.7	8.7	13.0	0.0	26.1	4.4	0.9464
	기능직	25.0	10.0	0.0	25.0	10.0	25.0	5.0	
	무직	29.4	17.7	0.0	23.5	0.0	29.4	0.0	
	사무관리직	41.5	14.6	4.9	14.6	2.4	22.0	0.0	
	사무직	33.7	4.8	7.7	18.3	8.7	25.0	1.9	
	자영업	41.4	10.3	3.5	17.2	3.5	24.1	0.0	
	전업주부	24.4	4.9	12.2	19.5	4.9	31.7	2.4	
	판매서비스직	33.3	0.0	13.3	33.3	6.7	13.3	0.0	
소득별	학생	32.4	10.8	5.4	18.9	5.4	21.6	5.4	0.9850
	100만원 미만	36.4	9.1	18.2	18.2	0.0	18.2	0.0	
	100만원대	36.2	12.8	10.6	8.5	4.3	23.4	4.3	
	200만원대	32.7	7.3	5.5	21.8	5.5	25.5	1.8	
	300만원대	34.3	7.5	6.0	20.9	6.0	22.4	3.0	
	400만원대	29.4	5.9	2.9	25.0	5.9	29.4	1.5	
학력별	500만원 이상	35.4	8.9	7.6	16.5	6.3	24.1	1.3	0.4133
	중졸 이하	26.7	26.7	13.3	6.7	6.7	20.0	0.0	
	고졸	29.5	8.9	6.3	19.6	4.5	28.6	2.7	
권역별	대졸 이상	36.5	6.5	6.5	19.5	6.0	23.0	2.0	0.3515
	수도권	35.4	7.1	7.1	23.2	4.0	22.2	1.0	
	영남권	26.6	7.3	6.4	20.2	6.4	29.4	3.7	
	중부권	42.2	9.4	7.8	6.3	9.4	21.9	3.1	
	호남권	34.6	10.9	5.5	23.6	1.8	23.6	0.0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이유 7. 기타

* p<.05, ** p<0.01, *** p<0.001

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1) 안전체감도

<표 5-38>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74명의 조사대상자중 78.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안전체감도인 73.2%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2013년 79.4%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을에 시리얼 사건 등 식품사고가 있었지만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우리나라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지지도가 체감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38〉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6	213	548	194	13	767
비율	100.0	0.6	21.9	56.3	19.9	1.3	78.8

2) 안전체감도 세부분석

<표 5-39>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20대와 60대 이상, 공무원, 500만원 이상,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자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2013년과는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제수준별 차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 2013년에 1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2014년 하반기에는 정반대층이라 할 수 있는 500만원 이상층에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라 향후 좀 더 조사자료가 축적되어 분석되어야만 정확한 결과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3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p
합계		0.6	21.9	56.3	19.9	1.3	78.8	—
성별	남	1.0	27.4	54.3	16.1	1.2	82.7	<.0001***
	여	0.2	16.1	58.3	23.9	1.5	74.6	
연령군별	20대	0.6	23.2	57.6	17.5	1.1	81.4	0.4190
	30대	0.5	16.1	57.8	24.6	1.0	74.4	
	40대	1.3	22.6	53.5	20.4	2.2	77.4	
	50대	0.5	26.7	52.9	19.4	0.5	80.1	
	60대 이상	0.0	20.5	60.8	16.9	1.8	81.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2.5	36.3	50.0	10.0	1.3	88.8	0.0032**
	기능직	0.0	15.9	54.6	27.3	2.3	70.5	
	무직	0.0	21.7	63.8	13.0	1.5	85.5	
	사무관리직	1.6	33.1	42.5	22.1	0.8	77.2	
	사무직	0.4	20.5	53.3	24.6	1.2	74.2	
	자영업	1.3	12.8	70.5	15.4	0.0	84.6	
	전업주부	0.0	15.4	63.7	18.9	2.0	79.1	
	판매서비스직	0.0	18.2	54.6	25.5	1.8	72.7	
	학생	0.0	25.0	56.6	17.1	1.3	81.6	
소득별	100만원 미만	1.9	25.9	46.3	24.1	1.9	74.1	0.0770
	100만원대	0.0	13.0	64.9	19.9	2.3	77.9	
	200만원대	0.6	20.4	56.1	20.4	2.6	77.1	
	300만원대	0.0	19.6	57.7	22.2	0.5	77.3	
	400만원대	0.0	21.4	58.3	19.8	0.5	79.7	
	500만원 이상	1.6	28.5	51.6	17.2	1.2	81.6	
학력별	중졸 이하	0.0	17.1	68.6	12.9	1.4	85.7	0.4405
	고졸	0.3	21.5	57.9	18.8	1.5	79.7	
	대졸 이상	0.9	22.7	53.8	21.4	1.2	77.3	
권역별	수도권	0.0	21.4	53.6	22.3	2.8	74.9	0.0052**
	영남권	1.0	19.9	57.4	21.3	0.3	78.4	
	충부권	1.0	21.4	65.3	12.2	0.0	87.8	
	호남권	0.6	26.8	48.8	22.0	1.8	76.2	

* p<.05, ** p<0.01, *** p<0.001

3) 불안이유

<표 5-40>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755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적정보관 문제와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관리 미흡,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 각각 28.3%, 27.0%, 26.9%로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가의 원재료 사용 및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이 한자리 수로 그 뒤를 이었다.

<표 5-40>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755	100.0
제조·유통업체의 관리소홀로 식품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214	28.3
정부의 식품제조 업체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	204	27.0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3	26.9
저가의 원재료 사용	80	10.6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48	6.4
기타	6	0.8

4) 불안이유 세부분석

<표 5-41>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는 정부의 단속 미흡이 가장 주된 이유로 지목한 반면 여자는 식품의 부적절한 보관 등을 지적하였다. 소득별 차이를 보면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대층은 식품의 부적절 보관 등을 주된 이유로 평가한 반면 300만원대와 500만원 이상층은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100만원대와 400만원대 층은 정부의 단속소홀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층은 없었다.

〈표 5-41〉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6.4	26.9	27.0	28.3	10.6	0.8	—
성별	남	5.9	29.2	30.6	25.6	8.2	0.6	0.0529
	여	6.8	24.8	23.8	30.8	12.8	1.0	
연령군별	20대	4.4	25.2	35.6	22.2	11.9	0.7	0.4000
	30대	5.4	26.5	24.7	31.9	10.2	1.2	
	40대	6.4	30.8	23.3	33.1	6.4	0.0	
	50대	6.7	26.0	28.7	26.0	11.3	1.3	
	60대 이상	9.1	25.0	24.2	26.5	14.4	0.8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1	24.5	24.5	30.6	12.2	2.0	0.5127
	기능직	2.7	35.1	27.0	29.7	5.4	0.0	
	무직	5.6	22.2	33.3	29.6	9.3	0.0	
	사무관리직	7.2	33.7	16.9	31.3	10.8	0.0	
	사무직	6.7	28.0	28.0	28.0	8.8	0.5	
	자영업	7.5	28.4	38.8	16.4	9.0	0.0	
	전업주부	8.2	23.5	19.4	32.9	14.1	1.8	
	판매서비스직	4.4	20.0	37.8	26.7	11.1	0.0	
	학생	1.8	28.1	35.1	22.8	10.5	1.8	
소득별	100만원 미만	10.3	18.0	25.6	35.9	10.3	0.0	0.0510
	100만원대	8.8	20.2	29.0	22.8	19.3	0.0	
	200만원대	8.1	28.2	22.6	33.1	6.5	1.6	
	300만원대	4.6	30.9	23.7	28.3	10.5	2.0	
	400만원대	2.7	23.8	32.0	32.0	8.8	0.7	
	500만원 이상	7.3	31.3	27.9	24.0	9.5	0.0	
학력별	중졸 이하	13.8	17.2	31.0	22.4	15.5	0.0	0.2005
	고졸	5.0	26.7	28.6	28.2	11.1	0.4	
	대졸 이상	6.2	28.3	25.5	29.2	9.7	1.2	
권역별	수도권	6.7	29.9	28.7	24.4	9.8	0.4	0.2919
	영남권	4.4	23.0	26.1	33.0	12.2	1.3	
	충부권	9.9	29.0	27.0	22.4	11.2	0.7	
	호남권	5.0	25.2	25.2	35.3	8.4	0.8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자. 정책현안

1) 현안

<표 5-42>에는 2014년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41.4%로 2013년 및 상반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지적한 응답률이 33.7%로 이 두가지 현안이 가장 주된 현안으로 조사되었다.

<표 5-4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03	41.4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328	33.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101	10.4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83	8.5
정부 정책 홍보 강화	42	4.3
기타	17	1.8

2) 현안에 관한 세부분석

<표 5-43>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가 정책현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정책현안이라 응답한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층별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표 5-43〉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10.4	33.7	41.4	4.3	8.5	1.8	—
성별	남	10.1	30.6	43.1	5.0	8.7	2.6	0.0974
	여	10.7	36.9	39.6	3.6	8.4	0.8	
연령군별	20대	6.8	40.7	36.2	5.7	9.6	1.1	0.1620
	30대	8.0	37.7	42.2	3.0	6.0	3.0	
	40대	12.0	31.0	42.9	4.0	8.0	2.2	
	50대	13.1	32.0	41.8	2.4	9.2	1.5	
	60대 이상	11.5	27.1	43.4	7.2	10.2	0.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6.3	21.3	46.3	6.3	10.0	0.0	0.5166
	기능직	15.9	31.8	36.4	4.6	11.4	0.0	
	무직	5.8	29.0	46.4	4.4	11.6	2.9	
	사무관리직	15.8	28.4	42.5	0.8	9.5	3.2	
	사무직	8.6	35.3	41.4	6.2	7.0	1.6	
	자영업	9.0	42.3	37.2	2.6	6.4	2.6	
	전업주부	10.5	37.3	39.8	3.5	8.0	1.0	
	판매서비스직	5.5	30.9	45.5	5.5	10.9	1.8	
소득별	학생	6.6	39.5	38.2	5.3	7.9	2.6	0.1751
	100만원 미만	7.4	20.4	51.9	7.4	13.0	0.0	
	100만원대	9.2	31.3	41.2	6.1	11.5	0.8	
	200만원대	11.5	37.6	35.0	3.8	8.9	3.2	
	300만원대	7.4	31.2	48.7	3.2	7.4	2.1	
	400만원대	13.4	38.5	32.6	3.7	9.6	2.1	
학력별	500만원 이상	10.9	33.6	44.1	4.3	5.9	1.2	0.3894
	중졸 이하	12.9	35.7	35.7	5.7	10.0	0.0	
	고졸	8.4	34.9	41.2	4.2	10.5	0.9	
권역별	대졸 이상	11.3	32.7	42.2	4.2	7.2	2.5	0.5569
	수도권	12.4	33.8	40.9	5.0	6.2	1.9	
	영남권	7.6	34.4	44.0	3.4	9.3	1.4	
	중부권	11.2	33.2	39.8	4.6	8.2	3.1	
	호남권	10.4	32.9	39.6	4.3	12.2	0.6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현안 6. 기타

* p<.05, ** p<0.01, *** p<0.001

2. 부가 조사

가. 불량 식품 근절

1) 인지도

<표 5-44>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78.1%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3년 68.3%, 상반기 결과인 76.9%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5-44〉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합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응답자수	974	37	296	428	188	25	761
비율	100.0	3.8	30.4	43.9	19.3	2.6	78.1

2) 인지도 세부분석

<표 5-45>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변수별로 세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이 세부분석결과는 권역별을 제외하고 모든 조사계층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60대 이상, 무직, 100만원대,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층의 59.2%는 여러 계층의 인지도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그만큼 정책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45〉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모름	전혀 모름	보통 이상	p
합계		3.8	30.4	43.9	19.3	2.6	78.1	—
성별	남	5.4	35.2	38.6	18.1	2.6	79.3	0.0002***
	여	2.1	25.4	49.5	20.6	2.5	77.0	
연령군별	20대	2.8	24.3	41.2	27.1	4.5	68.4	<.0001***
	30대	1.5	22.6	46.7	27.1	2.0	70.9	
	40대	6.2	28.3	42.9	18.6	4.0	77.4	
	50대	3.9	40.3	40.3	14.1	1.5	84.5	
	60대 이상	4.2	36.8	49.4	9.0	0.6	90.4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1.3	42.5	27.5	17.5	1.3	81.3	<.0001***
	기능직	0.0	38.6	43.2	18.2	0.0	81.8	
	무직	2.9	33.3	46.4	15.9	1.5	82.6	
	사무관리직	6.3	37.8	37.0	15.8	3.2	81.1	
	사무직	4.5	29.1	45.5	18.9	2.1	79.1	
	자영업	5.1	26.9	47.4	16.7	3.9	79.5	
	전업주부	0.5	24.9	55.7	17.9	1.0	81.1	
	판매서비스직	3.6	29.1	34.6	29.1	3.6	67.3	
	학생	0.0	21.1	38.2	31.6	9.2	59.2	
소득별	100만원 미만	3.7	16.7	46.3	24.1	9.3	66.7	<.0001***
	100만원대	1.5	24.4	56.5	17.6	0.0	82.5	
	200만원대	3.2	29.9	40.8	23.6	2.6	73.9	
	300만원대	2.1	22.8	49.7	22.2	3.2	74.6	
	400만원대	5.4	32.6	43.3	15.5	3.2	81.3	
	500만원 이상	5.5	40.6	35.2	17.2	1.6	81.3	
학력별	중졸 이하	1.4	15.7	64.3	15.7	2.9	81.4	0.0022**
	고졸	2.1	28.7	45.7	20.0	3.6	76.4	
	대졸 이상	5.1	33.2	40.4	19.3	1.9	78.7	
권역별	수도권	2.8	31.3	44.0	19.2	2.8	78.0	0.1168
	영남권	2.1	29.9	42.6	22.3	3.1	74.6	
	충부권	7.1	26.0	49.5	15.3	2.0	82.7	
	호남권	4.9	34.8	39.6	18.9	1.8	79.3	

* p<.05, ** p<0.01, *** p<0.001

3)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5-46>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2.7%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여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상반기 결과와 동일하게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1.5%),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46>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16	42.7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09	21.5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08	21.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72	7.4
정부의 단속 소홀	59	6.1
기타	10	1.0

4)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5-47>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세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이 대부분의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권역별 구분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가운데,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과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 발생이 세부 그룹에 따라 2순위와 3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5-47〉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2.7	21.4	21.5	7.4	6.1	1.0	—
성별	남	44.5	20.9	23.1	5.0	5.2	1.2	0.0461*
	여	40.9	21.8	19.7	9.9	6.9	0.8	
연령군별	20대	36.7	17.0	20.3	17.0	8.5	0.6	0.0008***
	30대	40.2	22.1	26.1	5.5	4.5	1.5	
	40대	39.8	23.0	24.3	6.2	5.3	1.3	
	50대	48.5	22.8	18.0	5.3	4.9	0.5	
	60대 이상	48.8	21.1	17.5	3.6	7.8	1.2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36.3	20.0	30.0	7.5	3.8	2.5	0.0361*
	기능직	52.3	18.2	20.5	4.6	4.6	0.0	
	무직	49.3	18.8	18.8	5.8	4.4	2.9	
	사무관리직	44.1	21.3	22.8	4.7	4.7	2.4	
	사무직	35.3	23.0	26.2	10.7	4.5	0.4	
	자영업	60.3	15.4	12.8	3.9	7.7	0.0	
	전업주부	41.3	25.4	18.9	6.0	7.5	1.0	
	판매서비스직	41.8	21.8	21.8	3.6	10.9	0.0	
	학생	46.1	17.1	13.2	14.5	9.2	0.0	
소득별	100만원 미만	40.7	18.5	20.4	13.0	7.4	0.0	0.0459*
	100만원대	42.0	19.1	16.8	11.5	8.4	2.3	
	200만원대	45.2	23.6	15.3	10.2	5.1	0.6	
	300만원대	45.0	26.5	19.6	2.1	6.4	0.5	
	400만원대	40.6	18.2	24.6	8.6	5.9	2.1	
	500만원 이상	41.8	20.3	27.0	5.5	5.1	0.4	
학력별	중졸 이하	44.3	24.3	12.9	4.3	14.3	0.0	0.0019**
	고졸	47.5	20.0	18.2	9.0	5.4	0.0	
	대졸 이상	39.7	21.8	24.4	6.9	5.5	1.8	
권역별	수도권	42.1	21.4	22.3	6.2	6.5	1.6	0.4426
	영남권	42.3	22.0	20.6	9.3	5.2	0.7	
	충부권	49.5	20.9	17.4	7.1	4.1	1.0	
	호남권	36.6	20.7	26.2	6.7	9.2	0.6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이유 6. 기타

* p<.05, ** p<0.01, *** p<0.001

나. 식품안전인식

1) 영향요인

<표 5-48>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방송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가 61.7%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이 12.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이 11.5%로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표 5-48〉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응답자수	비율
합계	974	100.0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601	61.7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122	12.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2	11.5
막연한 불안감	78	8.0
정부의 보도 자료	30	3.1
주변 사람의 의견	28	2.9
기타	3	0.3

2) 영향요인에 관한 세부분석

<표 5-49>에는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송 보도나 막연한 불안감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문가 및 과학적 의견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군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1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고, 공무원/전문직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9〉 조사대상자 특성별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p
합계		8.0	11.5	12.5	61.7	2.9	3.1	0.3	—
성별	남	5.6	12.1	16.5	59.8	3.0	2.8	0.2	0.0015
	여	10.5	10.9	8.4	63.7	2.7	3.4	0.4	
연령군별	20대	4.5	12.4	9.6	67.2	3.4	2.8	0.0	0.1463
	30대	10.6	14.6	11.1	59.3	1.5	2.5	0.5	
	40대	10.2	9.3	9.7	66.8	2.7	1.3	0.0	
	50대	8.7	11.2	16.0	55.3	3.4	4.9	0.5	
	60대 이상	4.8	10.2	16.9	59.6	3.6	4.2	0.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15.0	7.5	20.0	55.0	1.3	0.0	1.3	0.0401*
	기능직	6.8	11.4	13.6	50.0	11.4	6.8	0.0	
	무직	5.8	10.1	15.9	58.0	4.4	5.8	0.0	
	사무관리직	7.1	17.3	11.8	57.5	3.9	2.4	0.0	
	사무직	7.0	9.8	13.1	64.8	2.5	2.5	0.4	
	자영업	6.4	16.7	15.4	55.1	1.3	5.1	0.0	
	전업주부	9.5	8.0	9.0	68.2	2.0	3.0	0.5	
	판매서비스직	14.6	14.6	5.5	58.2	1.8	5.5	0.0	
소득별	학생	1.3	14.5	11.8	68.4	2.6	1.3	0.0	0.0269*
	100만원 미만	5.6	7.4	3.7	75.9	5.6	1.9	0.0	
	100만원대	5.3	13.7	13.7	61.8	2.3	2.3	0.8	
	200만원대	7.6	17.8	10.8	56.7	2.6	3.8	0.6	
	300만원대	7.9	11.1	8.5	66.1	1.6	4.8	0.0	
	400만원대	8.0	5.4	12.3	65.8	3.7	4.3	0.5	
학력별	500만원 이상	10.2	12.1	18.0	55.5	3.1	1.2	0.0	0.7246
	중졸 이하	8.6	8.6	14.3	61.4	2.9	4.3	0.0	
	고졸	6.3	13.1	10.8	61.8	3.6	4.2	0.3	
권역별	대졸 이상	9.0	10.9	13.4	61.7	2.5	2.3	0.4	0.5644
	수도권	7.4	11.8	11.2	62.2	4.0	3.4	0.0	
	영남권	7.6	10.7	11.7	62.9	3.8	2.8	0.7	
	충부권	6.6	11.7	15.3	62.8	1.0	2.6	0.0	
권역별	호남권	11.6	12.2	13.4	57.3	1.2	3.7	0.6	

요인 1. 막연한 불안감

요인 2.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요인 3.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요인 4.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요인 5. 주변 사람의 의견

요인 6. 정부의 보도 자료

요인 7. 기타

* p<.05, ** p<0.01, *** p<0.00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5-50>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72.2%에 비해 1% 포인트 체감도가 상승하였지만, 상반기 조사에 비교하면 약 1.2% 낮아졌다. 3차의 안전체감도 조사 실시 후 처음으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51.1%로 다른 영역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동안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던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은 51.6%로 수입식품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는 81.3%로 세부영역중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5-50>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전반적인 식품안전	100.0	0.4	24.3	48.5	25.0	1.9	73.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100.0	0.7	12.9	38.0	42.7	5.7	51.6
수입식품 안전	100.0	0.4	12.3	38.8	40.6	7.9	51.5
외식 안전	100.0	0.5	16.4	57.9	23.6	1.5	74.9
유통식품의 안전	100.0	0.6	21.9	56.3	19.9	1.3	78.8
단체급식의 안전	100.0	3.3	32.8	45.1	16.0	2.7	81.3

나. 안전체감도가 작년에 비해 올해 높아진 이유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4대 사회 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반기에 비해 ‘식약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이라 응답한 비율이 3.0%포인트 상승하였다.

다.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진 이유로도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이 상반기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을 이유로 선정한 비율은 11.2%포인트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식약처 출범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남자, 60대, 공무원, 100만원대 미만, 중졸 이하, 중부권 거주 대상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직업별, 소득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자, 공무원, 중졸 이하 계층의 안전체감 정도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 하반기 결과에서의 특이점인 연령별 차이가 뚜렷했던 점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의 체감도가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50대의 경우에도 2~30대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높은 70% 대의 체감도를 보였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월소득 2~300만원대의 안전체감도가 60%대로 가장 낮아 상반기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바.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방송이었고, 그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소득별로는 3~400만원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40대와 공무원/전문가 그룹 및 500만원 이상 소득 그룹의 경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가. 2014년 안전체감도 조사에서는 연령별 동향이 2013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40대층을 기준으로 이상 연령층의 안전체감도가 이하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적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난 직업군이 학생층으로 향후 학생층을 포함한 4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인다.

나. 2014년에는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이 채택되어 조사에 활용되었는데 전체 1,000명 조사대상자중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비율이 70%대로 높게 나타났고, 실제 조사 성공률이 90%를 넘고 있어 향후에도 맞춤형 조사방법을 사용함은 조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조사기획이라 하겠다.

다. 2013년 조사부터 2014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안전체감도가 7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상승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라. 하반기 조사도 권역별 분석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조사대상 패널 수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제6장

2013년,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제1절 조사대상자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6

2013년, 2014년 <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

제1절 조사대상자

1. 참여 현황

<표 6-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60명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반기 조사에는 970명, 하반기 조사에는 974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중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860명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2014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6-1> 2014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60	443	79	96	102	89	77	417	74	83	99	88	73
수도권	286	147	25	33	38	27	24	139	28	28	34	27	22
영남권	259	132	24	28	31	27	22	127	21	24	29	30	23
중부권	171	87	15	19	18	19	16	84	15	16	20	18	15
호남권	144	77	15	16	15	16	15	67	10	15	16	13	13

2. 조사성공율

<표 6-2>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60명의 현황을 목표인 1,000명 대비 비율로 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연령군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2회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호남권에서의 연속 참여 비율이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6-2〉 2014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6.0	86.5	81.4	88.9	90.3	82.4	89.5	85.5	83.1	84.7	86.8	86.3	85.9
수도권	86.4	86.5	78.1	84.6	95.0	81.8	92.3	86.3	87.5	84.8	89.5	81.8	88.0
영남권	86.6	88.0	82.8	93.3	91.2	87.1	84.6	85.2	80.8	80.0	85.3	90.9	88.5
중부권	85.9	86.1	78.9	90.5	85.7	82.6	94.1	85.7	88.2	84.2	90.9	85.7	78.9
호남권	84.2	84.6	88.2	88.9	83.3	76.2	88.2	83.8	71.4	93.8	80.0	86.7	86.7

3. 일반적 특성

<표 6-3>에는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 860명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그룹이 가장 많았고 (26.4%), 소득이 줄어들수록 대상자의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수준 별로는 대졸 이상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이 34.4%, 중졸 이하는 7.1%에 불과하였다.

직업분류상으로는 사무직이 25.0%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20.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무관리직의 비율도 13.7%였고, 기능직과 판매서비스직은 각각 4.2%와 5.7%로 적은 수준이었다.

결국 현 식품패널은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전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합계	
		명수	비율
합계		860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9	5.7
	100만원대	115	13.4
	200만원대	140	16.3
	300만원대	170	19.8
	400만원대	159	18.5
	500만원 이상	227	2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61	7.1
	고졸	295	34.3
	대졸 이상	504	58.6
직업분류	공무원/전문직	67	7.8
	기능직	36	4.2
	무직	65	7.6
	사무관리직	118	13.7
	사무직	215	25.0
	자영업	68	7.9
	전업주부	175	20.4
	판매서비스직	49	5.7
	학생	67	7.8

제2절 조사결과

1.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6-4>에는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4년 상·하반기 결과사이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과 비교해보면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7% 포인트 가량 증가한 반면에 ‘불안’ 응답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유사하였다. 이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이 ‘안전’으로 변화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정책적으로 ‘불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6-4〉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1.0	17.2	54.0	25.8	2.1	72.2
상반기 조사	970	1.1	24.1	49.2	24.4	1.1	74.4
하반기 조사	974	0.4	24.3	48.5	25.0	1.9	73.2
상·하반기 평균	—	0.8	24.2	48.9	24.7	1.5	73.8

<표 6-5>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54%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6.6%는 보통으로, 8.9%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63.0%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7.3%, 19.0%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2.4%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35.9%는 ‘보통’으로 6.6%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표 6-5〉 2014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3	3	2	0	0
		비율	37.5	37.5	25.0	0.0	0.0
	안전	응답수	0	115	78	19	1
		비율	0.0	54.0	36.6	8.9	0.5
	보통	응답수	1	72	262	79	2
		비율	0.2	17.3	63.0	19.0	0.5
	불안	응답수	0	14	76	111	11
		비율	0.0	6.6	35.9	52.4	5.2
	매우불안	응답수	0	0	1	7	3
		비율	0.0	0.0	9.1	63.6	27.3

<표 6-6>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교에 용이하도록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매우 불안은 20점, 불안은 40점, 보통은 60점, 안전은 80점, 매우 안전은 100점씩 등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 사이에는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군별, 권역별,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없는 항목이 더 많았다. 일부 상·하반기간 차이가 있었던 변수로는 권역별로 영남권에서, 소득별로 200만원대에서, 직업별로 사무직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영남권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약 2점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200만원대 소득수준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3점 가량 하락하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상·하반기에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사무직 직업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3점 가량의 안전 체감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표 6-6〉 2014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 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0	59.9	15.3	59.1	15.3	0.1365
성별	남	443	61.9	15.4	60.9	15.4	0.1292
	여	417	57.7	14.9	57.3	15.0	0.5627
연령별	20대	153	57.8	14.6	57.1	15.3	0.5754
	30대	179	57.7	15.8	56.0	14.9	0.1513
	40대	201	60.7	15.5	59.7	16.2	0.3372
	50대	177	61.4	14.9	61.1	14.9	0.8480
	60대 이상	150	61.9	15.1	61.7	14.3	0.9150
권역별	수도권	286	57.9	15.2	58.2	15.9	0.7509
	영남권	259	60.6	14.8	58.5	14.5	0.0229
	중부권	171	60.4	14.9	60.7	14.4	0.7592
	호남권	144	61.9	16.3	60.3	16.4	0.1967
소득별	100만원 미만	49	60.8	15.3	62.0	17.0	0.5371
	100만원대	115	59.1	14.4	57.6	14.5	0.3071
	200만원대	140	60.4	15.6	57.6	16.5	0.0345
	300만원대	170	57.2	14.8	56.4	13.9	0.4743
	400만원대	159	60.1	14.7	59.7	14.4	0.7431
	500만원 이상	227	61.6	16.1	61.9	15.7	0.7874
학력별	중졸 이하	61	62.6	12.9	61.3	13.6	0.5415
	고졸	295	60.3	15.2	58.6	15.4	0.0558
	대졸이상	504	59.3	15.6	59.2	15.4	0.8107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7	64.2	15.8	66.3	14.9	0.2528
	기능직	36	58.3	13.8	60.0	13.5	0.4990
	무직	65	61.8	16.1	60.9	16.4	0.5526
	사무관리직	118	59.0	16.1	60.7	15.2	0.2198
	사무직	215	61.0	15.1	58.3	14.5	0.0143
	자영업	68	57.6	13.2	57.6	14.5	—
	전업주부	175	58.9	15.1	57.6	14.9	0.2934
	판매서비스직	49	58.0	15.9	58.0	15.9	—
	학생	67	58.8	15.1	55.8	17.6	0.1145

* paired t-test

2. 세부영역별

<표 6-7>에는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에 대한 3회차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입식품 안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전과 단체급식 안전체감도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작년 대비 2개 영역(학교주변 판매식품, 단체급식)에서 상승을, 3개 영역(수입식품, 외식, 제조·유통식품)에서 하락하였다.

〈표 6-7〉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

구분	회차	조사 대상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4	8.4	34.2	45.9	11.1	43.0
	2차	970	0.3	10.6	36.8	46.0	6.3	47.7
	3차	974	0.7	12.9	38.0	42.7	5.7	51.6
	2, 3차 평균	—	0.5	11.8	37.4	44.4	6.0	49.7
수입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9	9.7	42.4	39.3	7.8	52.9
	2차	970	0.3	10.7	41.0	42.1	5.9	52.1
	3차	974	0.4	12.3	38.8	40.6	7.9	51.5
	2, 3차 평균	—	0.4	11.5	39.9	41.4	6.9	51.8
외식 안전체감도	1차	928	0.4	16.1	58.0	23.0	2.6	74.5
	2차	970	0.5	14.4	54.9	28.0	2.2	69.8
	3차	974	0.5	16.4	57.9	23.6	1.5	74.9
	2, 3차 평균	—	0.5	15.4	56.4	25.8	1.9	72.4
제조·유통 식품 안전체감도	1차	928	0.9	24.6	54.0	19.2	1.4	79.4
	2차	970	0.3	19.8	57.4	21.0	1.4	77.5
	3차	974	0.6	21.9	56.3	19.9	1.3	78.8
	2, 3차 평균	—	0.5	20.9	56.9	20.5	1.4	78.2
단체급식 안전체감도	1차	928	1.2	25.8	46.4	24.3	2.4	73.4
	2차	970	1.8	31.8	42.1	21.8	2.5	75.7
	3차	974	3.3	32.8	45.1	16.0	2.7	81.3
	2, 3차 평균	—	2.6	32.3	43.6	18.9	2.6	78.5

* 1차: 2013년 11월

2차: 2014년 6월~7월

3차: 2014년 11월~12월

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표 6-7>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학교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체감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는 작년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7%포인트 상승하였다.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매우 불안’의 비율이 5%가량 감소하였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불안’의 비율이 약 3.4%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불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통’의 비율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안전’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추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표 6-7〉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0.4	8.4	34.2	45.9	11.1	43.0
상반기 조사	970	0.3	10.6	36.8	46.0	6.3	47.7
하반기 조사	974	0.7	12.9	38.0	42.7	5.7	51.6
상·하반기 평균	—	0.5	11.8	37.4	44.4	6.0	49.7

<표 6-8>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49.5%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5.8%는 보통으로, 11.6%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56.1%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3.5%, 27.6%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61.9%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27.6%는 ‘보통’, 4.4%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표 6-8〉 2014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1	1	0	1	0
		비율	33.3	33.3	0.0	33.3	0.0
	안전	응답수	3	47	34	11	0
		비율	3.2	49.5	35.8	11.6	0.0
	보통	응답수	2	43	179	88	7
		비율	0.6	13.5	56.1	27.6	2.2
	불안	응답수	1	17	107	240	23
		비율	0.3	4.4	27.6	61.9	5.9
	매우불안	응답수	0	1	7	30	17
		비율	0.0	1.8	12.7	54.6	30.9

<표 6-9>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점 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위한 점수 부여방법은 상기한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조사에서 약 1.3점 가량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체감도가 약 2점 가량 상승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군별, 권역별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직업별로는 전업 주부에서 하반기에 안전체감도가 유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9〉 2014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구분		응답수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0	50.8	15.7	52.1	16.1	0.0151
성별	남	443	53.0	16.1	53.8	16.5	0.2838
	여	417	48.4	15.0	50.3	15.6	0.0198
연령별	20대	153	51.2	17.4	51.6	17.3	0.7641
	30대	179	48.6	15.3	49.8	15.3	0.3304
	40대	201	51.9	16.0	53.5	16.6	0.0954
	50대	177	51.3	14.1	52.9	15.4	0.1867
	60대이상	150	50.7	15.8	52.3	16.0	0.236
권역별	수도권	286	49.2	15.9	51.1	16.9	0.0506
	영남권	259	50.2	15.6	51.3	15.2	0.2692
	중부권	171	52.2	15.5	54.3	15.4	0.0548
	호남권	144	53.2	15.7	52.8	16.8	0.7569
소득별	100만원 미만	49	53.5	18.0	52.2	17.7	0.5952
	100만원대	115	51.0	14.8	53.4	15.2	0.1086
	200만원대	140	50.6	16.2	50.7	16.7	0.9241
	300만원대	170	49.2	15.4	50.7	15.7	0.1784
	400만원대	159	52.1	15.3	52.8	16.0	0.4872
	500만원 이상	227	50.5	16.0	52.7	16.4	0.0403
학력별	중졸이하	61	52.5	15.1	55.1	14.4	0.2613
	고졸	295	51.3	14.8	50.8	16.1	0.6422
	대졸이상	504	50.3	16.3	52.4	16.3	0.002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7	53.7	16.4	56.7	16.6	0.1327
	기능직	36	55.6	12.7	52.2	16.8	0.2052
	무직	65	50.8	14.2	50.2	12.8	0.6864
	사무관리직	118	50.5	16.3	53.1	17.2	0.0708
	사무직	215	52.2	16.0	51.8	15.6	0.7203
	자영업	68	50.0	14.9	52.6	16.5	0.1291
	전업주부	175	47.7	14.6	51.1	15.7	0.0086
	판매서비스직	49	51.8	15.8	51.4	16.3	0.8747
	학생	67	49.3	18.5	50.7	18.5	0.4499

* paired t-test

나. 수입 식품의 안전

<표 6-10>에는 2013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는 작년 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하였다. 안전의 비율은 1.8%포인트 상승하였지만 ‘불안’의 비율 역시 1.9%포인트 증가하였다. 회차별로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안전’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불안’과 ‘매우 불안’으로 응답하는 대상자의 비율도 이를 상쇄할 만큼 상승하는 것이 지속적인 체감도 하락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5.9%로 감소한 ‘매우 불안’의 비율은 하반기 조사에서 다시 예년 수준인 7.9%로 상승하였다.

〈표 6-10〉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0.9	9.7	42.4	39.3	7.8	52.9
상반기 조사	970	0.3	10.7	41.0	42.1	5.9	52.1
하반기 조사	974	0.4	12.3	38.8	40.6	7.9	51.5
상·하반기 평균	—	0.4	11.5	39.9	41.4	6.9	51.8

<표 6-1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47.8%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2.2%는 보통으로, 17.8%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55.9%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1.6%, 29.1%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8.1%가 하

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25.9%는 ‘보통’으로 5.2%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94명의 대상자가 상반기에 ‘불안’에서 ‘보통’으로 안전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다시 103명의 대상자가 상반기 ‘보통’에서 하반기 ‘불안’으로 응답한 것이 전체 체감도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1〉 2014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1	1	0	0	0
		비율	50.0	50.0	0.0	0.0	0.0
	안전	응답수	1	43	29	16	1
		비율	1.1	47.8	32.2	17.8	1.1
	보통	응답수	1	41	198	103	11
		비율	0.3	11.6	55.9	29.1	3.1
	불안	응답수	1	19	94	211	38
		비율	0.3	5.2	25.9	58.1	10.5
	매우불안	응답수	0	2	8	22	19
		비율	0.0	3.9	15.7	43.1	37.3

<표 6-12>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마찬가지로 5점 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안전체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군별, 권역별,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없는 항목이 더 많았다. 일부 상·하반기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연령별로 20대와 40대에서, 직업별로 사무직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하반기 조사에서 약 3점 가량 체감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0대에서는 하반기 조사에서 약 3점 가량 체감도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0는 연령군별 비교에서도 가장 체감도가 낮은 연령군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연령대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가 약 3점 가량 하락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와 유사하게 하반기 안전 체감도에 변화가 있는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표 6-12〉 2014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구분		응답수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0	51.4	15.3	51.3	16.5	0.8364
성별	남	443	54.0	15.3	54.7	16.4	0.4241
	여	417	48.5	14.9	47.6	15.8	0.2558
연령별	20대	153	53.7	17.8	56.6	16.8	0.0442
	30대	179	51.4	14.1	52.3	15.6	0.4298
	40대	201	51.6	15.7	48.4	16.2	0.0066
	50대	177	49.0	14.4	49.4	17.2	0.7941
	60대이상	150	51.3	14.4	50.7	15.7	0.5848
권역별	수도권	286	51.3	15.6	51.0	16.4	0.8200
	영남권	259	51.0	15.3	51.4	16.3	0.7711
	중부권	171	52.3	15.2	51.3	15.6	0.4472
	호남권	144	51.1	15.1	51.4	18.1	0.8522
소득별	100만원 미만	49	51.8	14.7	55.9	16.3	0.1147
	100만원대	115	51.0	15.0	49.9	16.8	0.5294
	200만원대	140	50.3	15.3	51.0	15.2	0.6134
	300만원대	170	50.9	14.9	50.2	15.6	0.5240
	400만원대	159	51.2	15.4	48.9	18.4	0.1231
	500만원 이상	227	52.6	16.0	53.5	16.2	0.3888
학력별	중졸이하	61	51.5	14.8	51.8	16.9	0.8774
	고졸	295	51.4	15.2	50.3	16.6	0.2901
	대졸이상	504	51.3	15.5	51.7	16.4	0.5743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7	51.3	15.3	54.0	18.4	0.2189
	기능직	36	49.4	18.2	47.2	16.0	0.4405
	무직	65	53.2	14.7	52.6	15.2	0.7545
	사무관리직	118	51.4	14.9	53.1	16.8	0.2653
	사무직	215	54.7	15.2	51.4	16.8	0.0047
	자영업	68	50.9	12.2	51.5	14.0	0.7084
	전업주부	175	47.2	14.2	46.5	15.3	0.5756
	판매서비스직	49	50.6	14.2	54.3	16.8	0.1406
	학생	67	51.9	19.4	55.5	17.3	0.0964

* paired t-test

다. 외식의 안전

<표 6-13>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외식의 식품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작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올해 하반기 조사에서 다시 예년 수준의 70%대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조사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낮은 69.8%의 안전체감도를 기록한 바 있다. 세부 척도별로도 올해 하반기 조사의 결과는 작년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6-13〉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0.4	16.1	58.0	23.0	2.6	74.5
상반기 조사	970	0.5	14.4	54.9	28.0	2.2	69.8
하반기 조사	974	0.5	16.4	57.9	23.6	1.5	74.9
상·하반기 평균	—	0.5	15.4	56.4	25.8	1.9	72.4

<표 6-8>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50.0%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44.6%는 보통으로, 3.9%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70.5%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2.3%, 16.8%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47.7%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44.9%는 ‘보통’으로 4.5%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하반기에 보통으로 돌아선 것이 전체 체감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14〉 2014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1	1	1	1	0
		비율	25.0	25.0	25.0	25.0	0.0
	안전	응답수	2	65	58	5	0
		비율	1.5	50.0	44.6	3.9	0.0
	보통	응답수	2	57	328	78	0
		비율	0.4	12.3	70.5	16.8	0.0
	불안	응답수	0	11	109	116	7
		비율	0.0	4.5	44.9	47.7	2.9
	매우불안	응답수	0	1	2	9	6
		비율	0.0	5.6	11.1	50.0	33.3

<표 6-15>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5점 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반기 56.7점, 하반기 57.9점),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상반기 53.3점, 하반기 55.0점). 남성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 결과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군별로는 40대와 50대군에서만 하반기조사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약 2.2점 가량 점수가 상승하여 유일하게 유의적으로 외식의 체감도 점수가 상승한 권역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에서, 직업별로는 공무원/전문직과 사무관리직에서 외식의 체감도 점수가 각각 4.5점과 4.2점 상승하였다.

〈표 6-15〉 2014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구분		응답수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0	56.7	14.3	57.9	13.8	0.0131
성별	남	443	60.0	14.4	60.6	13.7	0.3046
	여	417	53.3	13.3	55.0	13.2	0.0128
연령별	20대	153	57.3	16.1	57.9	14.7	0.6057
	30대	179	55.6	13.3	56.8	12.7	0.2877
	40대	201	57.2	14.8	59.0	14.4	0.0493
	50대	177	56.3	14.4	58.9	13.4	0.0167
	60대이상	150	57.3	12.6	56.7	13.4	0.5369
권역별	수도권	286	54.8	15.2	57.0	14.7	0.0143
	영남권	259	57.5	13.7	57.8	13.6	0.7135
	충부권	171	57.9	13.6	58.7	12.5	0.4383
	호남권	144	57.8	14.0	59.0	13.4	0.2583
소득별	100만원 미만	49	58.4	12.1	59.6	12.6	0.4110
	100만원대	115	56.0	14.3	55.7	10.5	0.8123
	200만원대	140	57.0	13.6	58.3	15.1	0.3068
	300만원대	170	56.2	13.1	57.5	12.9	0.2049
	400만원대	159	56.1	16.3	57.6	14.6	0.1580
	500만원 이상	227	57.4	14.6	58.9	14.5	0.0947
학력별	중졸이하	61	56.4	10.7	57.4	11.8	0.4958
	고졸	295	57.4	14.6	58.1	13.5	0.4088
	대졸이상	504	56.3	14.5	57.9	14.2	0.0178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7	57.0	14.9	61.5	14.5	0.0242
	기능직	36	60.0	10.7	60.6	11.2	0.8004
	무직	65	58.8	13.6	59.7	13.5	0.5939
	사무관리직	118	55.3	15.2	59.5	15.1	0.0020
	사무직	215	58.0	13.7	57.0	13.2	0.2337
	자영업	68	56.2	13.9	58.2	14.1	0.2395
	전업주부	175	54.6	12.2	55.3	12.3	0.4618
	판매서비스직	49	57.1	16.3	55.1	15.6	0.3223
	학생	67	56.7	18.9	59.7	14.6	0.1754

* paired t-test

라.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표 6-16>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제조·유통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의 조사에서 보통 이상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안전’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작년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은 24.6%였으나 올해 평균 결과는 20.9%로 약 3.7%포인트 감소가 나타났다. 하반기 조사의 ‘불안’과 ‘매우 불안’을 합한 비율은 21.2%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6-16〉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0.9	24.6	54.0	19.2	1.4	79.4
상반기 조사	970	0.3	19.8	57.4	21.0	1.4	77.5
하반기 조사	974	0.6	21.9	56.3	19.9	1.3	78.8
상·하반기 평균	—	0.5	20.9	56.9	20.5	1.4	78.2

<표 6-17>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51.8%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40.6%는 보통으로, 4.1%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64.4%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5.8%, 19.0% (매우 불안까지 포함시 19.8)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40.6%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49.4%는 ‘보통’으로 7.2%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절반 가까이가 하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것이 특이점이었다.

〈표 6-17〉 2014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1	2	0	0	0
		비율	33.3	66.7	0.0	0.0	0.0
	안전	응답수	5	88	69	7	1
		비율	2.9	51.8	40.6	4.1	0.6
	보통	응답수	0	78	319	94	4
		비율	0.0	15.8	64.4	19.0	0.8
	불안	응답수	0	13	89	73	5
		비율	0.0	7.2	49.4	40.6	2.8
	매우불안	응답수	0	1	2	7	2
		비율	0.0	8.3	16.7	58.3	16.7

<표 6-18>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60명 패널을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점 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 사이에는 안전체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 연령군별, 소득별, 학력별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권역별로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상·하반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중부권에서는 약 2.3점 가량 제조·유통 식품의 체감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두 가지 직군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능직의 경우 약 5.6점 가량이 하반기조사에서 하락하여 가장 큰 체감도의 하락을 보였으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반대로 2.3점 가량 점수가 상승하였다.

〈표 6-18〉 2014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비교

구분		응답수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0	59.3	13.8	59.7	14.2	0.4879
성별	남	443	61.8	13.6	61.7	14.3	0.8374
	여	417	56.8	13.5	57.6	13.8	0.2592
연령별	20대	153	60.5	13.4	61.0	14.1	0.6781
	30대	179	58.8	14.1	58.0	13.6	0.4833
	40대	201	59.9	15.2	59.6	15.5	0.6200
	50대	177	59.1	13.5	60.8	14.2	0.1513
	60대이상	150	58.4	12.4	59.5	13.3	0.3264
권역별	수도권	286	59.2	14.9	58.3	15.1	0.3124
	영남권	259	58.9	13.3	59.5	13.8	0.6556
	중부권	171	59.8	12.6	62.1	12.1	0.0306
	호남권	144	59.9	13.9	60.3	15.3	0.7544
소득별	100만원 미만	49	58.0	15.4	60.8	17.0	0.3897
	100만원대	115	57.6	12.2	57.6	12.7	1.0000
	200만원대	140	59.6	13.5	59.3	14.9	0.8339
	300만원대	170	58.9	12.5	58.7	13.3	0.8238
	400만원대	159	59.5	14.4	59.5	13.3	1.0000
	500만원 이상	227	60.6	14.9	61.9	15.1	0.1785
학력별	중졸이하	61	59.0	9.3	60.3	11.8	0.484
	고졸	295	59.5	13.7	60.1	14.1	0.6017
	대졸이상	504	59.3	14.3	59.5	14.6	0.8029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67	65.7	13.4	64.2	15.0	0.4152
	기능직	36	60.0	11.7	54.4	13.2	0.0231
	무직	65	59.1	12.5	60.9	12.5	0.2767
	사무관리직	118	60.5	15.1	61.9	16.1	0.3117
	사무직	215	59.9	13.7	58.9	14.6	0.3019
	자영업	68	58.5	11.6	59.1	11.7	0.6862
	전업주부	175	56.2	12.9	58.5	13.2	0.0388
	판매서비스직	49	56.7	14.3	57.6	14.5	0.7354
	학생	67	60.0	16.0	61.5	14.6	0.6835

* paired t-test

마. 단체급식의 안전

<표 6-19>에는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세 번의 단체급식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올해 하반기 조사에서 가장 체감도가 상승한 영역이 본 영역으로 결과의 평균값이 작년대비 약 5.1% 정도 상승하였으며, 하반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80%를 상회하였다. 상반기에 비해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은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과 ‘매우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표 6-19>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

구분	패널 수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보통 이상
‘13년 조사	928	1.2	25.8	46.4	24.3	2.4	73.4
상반기 조사	560	1.8	31.8	42.1	21.8	2.5	75.7
하반기 조사	512	3.3	32.8	45.1	16.0	2.7	81.3
상·하반기 평균	—	2.6	32.3	43.6	18.9	2.6	78.5

<표 6-20>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5명 패널을 대상으로, 그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단체급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부터 직접 관련이 없는 패널은 응답하지 않게 함에 따라 타 영역에 비해 응답수가 적은 편이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64.9%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26.3%는 보통으로, 2.6%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60.1%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22.5%, 15.9%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37.5%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45.8%는 ‘보통’으로 9.7%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표 6-20〉 2014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불안
상반기 조사	매우안전	응답수	4	2	2	0	0
		비율	50.0	25.0	25.0	0.0	0.0
	안전	응답수	6	74	30	3	1
		비율	5.3	64.9	26.3	2.6	0.9
	보통	응답수	0	31	83	22	2
		비율	0.0	22.5	60.1	15.9	1.5
	불안	응답수	1	7	33	27	4
		비율	1.4	9.7	45.8	37.5	5.6
	매우불안	응답수	0	0	5	1	2
		비율	0.0	0.0	62.5	12.5	25.0

<표 6-21>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5명 패널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점척도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 사이에는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성별, 권역별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상·하반기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연령군별로 50대에서 약 4.8점이 상승하였으며 (상반기 63.5점, 하반기 68.3점),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에서 약 3.1점이 상승하였다 (상반기 63.6점, 하반기 66.7점).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2.6점이 (상반기 62.1점, 하반기 64.7점),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에서 5.5점이 상승하여 (상반기 60.3점, 하반기 65.8점) 전반적인 단체급식의 체감도 향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2014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수준 체감도 비교

구분		응답수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5	61.9	16.7	63.3	16.7	0.1237
성별	남	294	62.2	16.8	63.9	16.8	0.0698
	여	211	61.5	16.7	62.4	16.5	1.0000
연령별	20대	108	60.7	17.7	61.0	17.7	0.3887
	30대	114	59.6	16.4	60.8	16.5	0.8799
	40대	121	61.3	17.3	62.8	18.0	0.6423
	50대	92	63.5	15.6	68.3	15.4	0.0295
	60대이상	70	66.3	15.8	65.8	13.5	1.0000
권역별	수도권	157	62.4	16.4	63.0	16.0	0.5943
	영남권	168	59.4	16.7	62.0	17.0	0.1992
	중부권	101	64.2	18.0	64.3	16.7	0.4970
	호남권	79	63.3	15.5	65.1	17.4	0.5823
소득별	100만원 미만	23	63.5	16.7	64.4	20.1	0.6380
	100만원대	64	61.6	19.3	60.0	16.0	0.3916
	200만원대	75	61.1	16.7	63.2	17.4	0.7551
	300만원대	90	60.4	16.1	60.0	17.9	0.4193
	400만원대	102	61.2	15.9	63.1	14.4	0.1588
	500만원 이상	151	63.6	16.7	66.7	16.3	0.0061
학력별	중졸이하	24	60.0	14.4	62.0	12.8	0.756
	고졸	159	61.8	16.7	60.8	17.6	0.8199
	대졸이상	322	62.1	16.9	64.7	16.4	0.0266
직업별	공무원/전문직	50	70.4	16.3	67.2	16.2	0.4751
	기능직	25	60.0	15.3	61.7	18.6	0.6515
	무직	35	62.3	15.9	66.3	17.2	0.772
	사무관리직	76	60.3	15.1	65.8	15.8	0.0035
	사무직	149	62.0	17.0	63.0	17.1	0.3481
	자영업	33	57.0	15.1	60.6	17.6	0.3306
	전업주부	59	61.7	16.3	60.4	17.1	0.3244
	판매서비스직	28	63.6	16.4	67.8	14.0	0.4346
	학생	50	58.8	19.6	60.0	14.8	0.2796

* paired t-test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표 6-22>에는 2014년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안전체감도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룹별로 분류하여 보면 영남권, 월 소득 200만원대, 사무직 직종에서 상반기에 비해 체감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약 1.3점이 상승하였으며, 그룹별로 분류시 여성과 월 소득 500만원 이상, 대졸 이상, 전업주부에서 안전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입식품의 안전영역에서는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군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사항이었다. 20대의 경우 하반기에 안전체감도가 상승하였으나 40대의 경우에는 안전체감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하반기 안전체감도가 약간 하락하였다.

라. 외식의 안전영역에서는 하반기 조사에서 약 5%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그룹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에서, 40대와 50대에서, 대졸이상에서, 공무원/전문직과 사무관리직에서 하반기에 체감도가 상승하였다. 또한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외식의 안전체감도가 상승한 것이 특이점이었다.

마. 제조·유통 식품의 안전영역에서는 상·하반기 사이에 유의적인 안전체감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부 그룹별로 중부권과 전업주부 그룹에서 약간의 안전체감도 상승이 나타났다. 반대로 기능직 직군에서는 체감도가 5.6점 가량 하락하는 경향도 보였다.

바. 단체급식의 안전영역은 하반기에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패널의 비율은 상승하였으나, 상·하반기 모두 조사에 참여한 패널로 한정하였을 때 상·하반기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대, 500만원 이상, 대출 이상, 사무관리직에서는 그 체감도가 상승한 측면이 있었다.

〈표 6-22〉 2014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2014년 상·하반기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 체감도 변화	상승한 그룹	하락한 그룹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하락	—	영남권 200만원대 소득 사무직 직종	860명
학교주변 판매식품	상승	여성 500만원 이상 대출 이상 전업주부	—	860명
수입식품	하락	20대	40대 사무직	860명
외식	상승	여성 40대 50대 대출 이상 공무원/전문직 사무관리직 수도권	—	860명
제조·유통 식품	상승	중부권 전업주부	기능직	860명
단체급식	상승	50대 500만원 이상 대출 이상 사무관리직	—	505명

2. 시사점

가. 2013년 하반기에 1회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 상하반기 조사로 총 3회 조사자료가 축적되었고, 시계열 분석도 하였는데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식품분야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사가 되고 있다. 국정과제로 시작은 되었지만 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부가 시작되도 계속 조사되어야 할 의미있는 정부 사업이라 사료된다.

나. 특히 2014년에는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이 채택되어 조사에 활용되어 조사인건비도 절약되었고, 또 조사성공률도 높힐 수 있어 매년 맞춤형 조사방법을 활용함이 매우 바람직하겠다.

다. 제4장 시사점에서도 기 언급하였지만 명년에는 부가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겠다. 조사예산의 한계로 부가조사가 2013년 개발된 조사항목 그대로 2014년도 실시되어 식품안전과 관련한 세부 사실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수립되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행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통계청 사회조사 대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등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13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에는 상, 하반기 조사로 벌써 3회의 조사자료가 누적되게 되어 나름대로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도별, 회수별 비교분석에 의해 식품안전 불안요인도 찾을 수 있고, 또한 소비자 친화적인(user-friendly)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통계적인 패널선정

명년에는 식품안전체감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표본설계, 조사방법, 패널관리 등 금년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통계학적으로 완성된 식품패널이 선정되어 제대로 된 조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부가조사 내실화

2013년 처음 개발된 설문지에 의해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예산의 한계로 부가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2013년 설문지에 국한하여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내실있는 사실(fact finding)조사가 못되고 있다. 조사비용을 증액시키

고, 조사내용도 해마다 현안에 맞게 조정, 증가시켜 내실있는 부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다.

3. 조사대상 패널 수 증원

현재 1,000명의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16개 시도별로 분포시키면 지역적 오차가 10%를 넘는 지역도 나타나 현재는 4개 권역별로 묶어 분석을 하고 있다. 지역적 오차를 3% 이내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패널 수를 최소 2,000명 정도로 증원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16개 시도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09~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2).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2).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2012).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 신호등표시로 우리아이 영양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 기호 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1.03.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날 대비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3.04.15).
- 식품저널(2010~2012). 식품유통연감. 서울: 식품저널.
- 안국찬, 목진휴, 박기묵, 김성철(2010). 사회조사와 통계기법. 법문사.
- 이동률(1998). 표본추출의 의의와 표본추출설계시 고려사항 및 표본의 크기. 고시연구, 288(3), pp.397~399.
- 이승신(201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회 소비자포럼 발표자료(2013.10.04).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과약을 위한 조사설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201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비 지원.
- 한희선(2009). 조사설계를 위한 사회조사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3).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2013.10.08).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09045 에서 2013.10.12. 인출.
- Babbie, Earl R.(200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Cengage Learning.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Cengage Learning.
- Bartlett, J. E., II, Kotrlik, J. W., & Higgins, C.(2001). Organizational research: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for survey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19(1), pp.43~50.
- Kenny, David A.(1987). *Statistics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Boston: Little, Brown.
- Kirkwood, James; Robert Hubrecht(2010). *The UFAW Handbook on the Car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Other Research Animals*. Wiley-Blackwell, pp. 29.
- Kish, L.(1995). *Survey Sampling*. Wiley-Interscience.
- NIST/SEMATECH. 7.2.4.2. Sample sizes required. e-Handbook of Statistical Methods.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저영양관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에서 2013.12.10. 인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home>.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부록 1.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인 사 말 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4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정보, 식품사고 및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정책 등에 대한 식품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ID	조사표 번호	조사원 ID

※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 화 번 호
조사 담당자		() - -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조사표 기입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

I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크게 나아짐 | → | 1-1 항목으로 |
| <input type="checkbox"/> 2 나아짐 | | |
| <input type="checkbox"/> 3 동일 | → | 2 항목으로 |
| <input type="checkbox"/> 4 떨어짐 | → | 1-2 항목으로 |
| <input type="checkbox"/> 5 크게 떨어짐 | | |

1-1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 ☐ 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 ☐ 3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 ☐ 4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 5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 ☐ 6 기타(내용:)

1-2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 ☐ 2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 ☐ 3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 ☐ 4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 ☐ 5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 ☐ 6 기타(내용:)

2 귀하께서는 올해 (2014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안전	② 안전	③ 보통	④ 불안	⑤ 매우 불안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3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6 기타(내용:)

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크게 나아질 것	② 나아질 것	③ 동일할 것	④ 떨어질 것	⑤ 크게 떨어질 것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 다음부터는 세부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영역

5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전 ☐ 2 안전 ☐ 3 보통 ☐ 4 불안 ☐ 5 매우 불안

→ **6** 향으로

→ **5-1** 향으로

5-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 6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 7 기타(내용:)

수입 식품의 안전영역

6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전 ☐ 2 안전 ☐ 3 보통 ☐ 4 불안 ☐ 5 매우 불안

→ **7** 향으로

→ **6-1** 향으로

6-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 6 기타(내용:)

외식의 안전영역

7 귀하께서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전 ☐ 8 향으로

☐ 2 안전 ☐ 3 보통

☐ 3 보통 ☐ 4 불안

☐ 4 불안 ☐ 7-1 향으로

☐ 5 매우 불안

7-1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 6 기타(내용:)

유통식품의 안전영역

8 귀하께서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전 ☐ 9-0 향으로

☐ 2 안전 ☐ 3 보통

☐ 3 보통 ☐ 4 불안

☐ 4 불안 ☐ 8-1 향으로

☐ 5 매우 불안

8-1 제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2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부적절

☐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 6 기타(내용:)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9-0 귀하께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급식대상자이신가요?

☐ **1** 예 → **9** 항목으로

☐ **5** 아니요 → **10** 항목으로

9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전 **10** 항목으로

☐ **2** 안전

☐ **3** 보통

☐ **4** 불안 **9-1** 항목으로

☐ **5** 매우 불안

9-1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관리 미흡

☐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 **7** 기타(내용:)

II 2014년도 부가조사

항목별 불안정도

10 귀하께서는 평소에 다음의 여러 항목별 불안정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안전	② 안전	③ 보통	④ 불안	⑤ 매우 불안
환경문제					
자연재해					
중증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범죄					
전쟁, 테러					
식품안전					
교통사고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1 막연한 불안감
☐ 2 본인 및 가족의 경험
☐ 3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 4 방송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 5 주변 사람의 의견
☐ 6 정부의 보도 자료
☐ 7 기타(내용:)

불량식품 근절

12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① 잘 알고있음	②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3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 5 정부의 단속 소홀
☐ 6 기타(내용:)

식품안전정책 관심도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정부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항목	① 매우 관심있음	② 관심있음	③ 보통	④ 관심없음	⑤ 전혀 관심없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관심도					

식품 관련 정보

15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 ☐ 1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 ☐ 2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렛 등
- ☐ 3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 ☐ 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 ☐ 5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 ☐ 6 기타(내용:)

16 귀하께서 평소 이용하시는 식품안전 정보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어떤 내용
입니까?

- ☐ 1 식품 기준 규격 및 법령 등
- ☐ 2 식생활 정보
- ☐ 3 식품 안전 전문 정보(연구자료, 교수·의사 인터뷰 등)
- ☐ 4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 ☐ 5 위해식품 정보나 회수(recall) 정보
- ☐ 6 기타(내용:)

※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조사는 비확률 할당표본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활용시 유의바랍니다.